



기독일보



2024년 4월 12일 금요일

www.christdaily.co.kr

구독신청 02-6085-8166 제 2521호

차별금지법·평등법 발의자들 중 제22대 총선서 10명 당선

전체 37명의 27%... 새 국회서도 발의 가능성 대표발의자들 중엔 박주민 의원만 당선 그 밖에 고민정·김용민·남인순·박성준 등 차별금지법안 주도했던 정의당은 '원의' 김원평 교수 "발의되면 강력 저항할 것"

제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평등법)안을 발의했던 국회의원 37명 중 10명이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당선됐다. 제21대 국회에선 △장혜영 의원 등 10인이 '차별금지법안'을 △이상민 의원 등 24인이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박주민 의원 등 13인이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권인숙 의원 등 17인이 '평등 및 차별금지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박수로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도 있어 이 4개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의 총 수는 37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이번 총선에

서 당선된 의원들은 10명으로, 차별금지법(평등법)안을 발의했던 의원들 중 약 27%의 의원들이 새 국회에서 활동하게 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했던 권인숙(더불어민주당)·박주민(더불어민주당)·이상민(국민의힘)·장혜영(녹색정의당, 이상 가나다 순) 의원 중 박주민 의원만 당선됐다. 이 밖에 법안 발의자들 중 당선자는 고민정(더불어민주당)·김용민(더불어민주당)·남인순(더불어민주당)·박성준(더불어민주당)·용혜인(더불어민주당)·이수진



제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평등법)안을 대표발의한 4명의 국회의원들. (왼쪽부터 순서대로) 장혜영·박주민·권인숙·이상민 의원. 이들 중 이번 제22대 총선에서 박주민 의원만 당선됐다. ©뉴스시스

(더불어민주당)·이재정(더불어민주당)·전용기(더불어민주당)·진선미(더불어민주당, 이상 가나다 순) 의원이다. 특히 제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안'에

주도적이었다. 그러나 정의당은 녹색당과 합당해 이번 총선에 나섰지만, 한 석도 얻지 못해 '원의 정당'이 되고 말았다. 다수의 교회 및 교계시민단체들은 차별금지법(평등법)안이 동성애 등을 의미하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제시하고 있어 이 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 이런 사유들이 포함돼 법이 제정될 경우, 표현양상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때문에 교계에선 이번 총선을 앞두고 이런 법안의 입법을 추진했던 이들을 심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됐다. 그러나 새 국회에서 또다시 차별금지법(평등법)안 발의가 되지 않을까 하고 이들은 경고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 발의자들 중 30%에 가까운 이들이 다시 국회의원이 되면서 차별금지법(평등법)이 슈는 제22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논란이

될 전망이다.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운동의 리더 중 한 명인 김원평 교수(한동대, 진평연 집행위원장)는 "(평등법안 대표발의자인) 박주민 의원이 당선돼 제22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하고, "21대 국회에선 민주당 김화재 의원 등이 당내에서 적극 반대 의견을 표명 해주셔서 막을 수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22대 국회의원이 되지 못해 염려가 된다"고 했다. 그는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당론으로 정하는 것이 가장 우려되는 경우"라며 "그러나 그런 법안들이 발의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내에 반대하는 분들도 계속 것이고, 교계 역시 이전처럼 강력하게 저항할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또 "차별금지법안을 주도했던 정의당이 이번에 원의 정당이 된 건 그레도 긍정적인 면 중 하나"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김진영 기자

유바디교육목회연구소 출범... "다음세대 비릇 전 세대 성장 위해"

주안교회 담임 주승중 목사 이사장 취임

유바디교육목회연구소 출범식 및 이사장 취임식이 11일 오후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가정과 교회 함께 더 나은 주제로 개회했다. 이날 예배는 이승현 목사(이사, 장석교회)의 인도로, 이영구 목사(이사, 용문교회)의 기도, 성경봉독, 김화수 목사(이사, 주님의교회)의 설교, 양승현 목사(이사, 세대로교회)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유바디는 가정(유니게)과 교회(바울)가 함께 다음세대(디모데)를 양육하는 성경적 교육 모델(딤후 1:5-6), 전 세대가 참여하는 전생애 교육목회 모델이다. 유바디교육목회연구소는 한국교회와 가정으로 파송된 교육목회 선교단체이다. 유바디 모델을 기반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한국교회를 섬긴다. 유바디는 생애주기별 소그룹과 맞춤형 콘텐츠(부모·노년·가정)를 바탕으로 믿음의 부모와 가정을 세우고, 다음세대는 물론 교회의 전 세대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유바디는 전 그리스도인(딤후 4:5)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김화수 목사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기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예수 믿는 것들이 더

하다 더해'라고 말한다"며 "역설적으로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자기들과 다른 특별한 것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실망감을 가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대에 걸맞은 삶을 살아간다면 그들은 분명히 감동을 받을 것"이라며 "그런 기대감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본문은 분명한 방향을 말한다. 거룩한 사람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간다면 제대로 사는 것"이라고 했다. 김 목사는 "먼저 자극과 반응 사이에 있는 공간을 활용해야 한다"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극받은 우리가 반응한다면 바른 그리스도인의 열매가 틀림없이 맺히게 될 것"이라며 "둘째로 주님의 뜻을 고민하지 말고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의 과정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관건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동력은 바로 기도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기도로서 소통하며 나아가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당당히 서게



유바디교육목회연구소 출범식 참석자 단체 사진. ©장지동 기자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이사장으로 취임한 주승중 목사(이사장, 주안교회·사진)는 "교회와 가정과 학교가 한 몸처럼 이어져서 다음세대를 양육하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원형이자 근본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주 목사는 "앞으로 유바디교육목회연구소는 유바디 모델과 한국형 교육목회 결과를 기초로 가정 교육 교재 및 자료 그리고 교회와 가정의 연계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한국교회를 섬기게

될 것"이라며 "특별히 한국교회는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다. 노년세대를 위한 목회 프로그램이 절실한 상황인데, 유바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은 고무적"이라고 했다. 아울러 "앞으로 유바디교육목회연구소가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또 법안 이사회도 최선을 다해 후원할 것"이라며 "이사장으로서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축사를 전한 유승중 목사(교육목회교청선교회 대표)는 "한국교회의 위기는 다음세대 위기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유바디 교육 목회가 지금 시대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시스템이다. 한국교회에 유바디 교육 시스템이 잘 전파되어져서 놀라운 새로운 기회와 역사가 일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영상을 통해 고성래 목사(이사, 부여중앙성결교회)·문화곤 목사(높은뜻푸른교회)·안진희 집사(높은뜻푸른교회)·김중주 장로(미국 실리컨밸리 세소망교회) 등이 축사를 전했다. 한편, 출범식은 박상진 소장의 기도도 모든 일정을 마쳤다. 장지동 기자

임현택 의협 회장, '의정 갈등 중재' 종교계에 요청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당선인이 두 달여 간 이어진 의정 갈등 해소를 기독일보DB 위해 시작한 종교계와의 대화를 마무리했다. 11일 의협에 따르면 임 당선인은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기독교, 불교, 천도교, 유교, 천주교 등 주요 종교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중재를 요청했다. 임 당선인은 "정부의 일방적 정책으로 의사들이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며 "전공의를 비롯한 모든 의사가 환자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덧붙여 "종교계에 현재 상태 중재를 요청한다"고 했다. 종교계 인사들은 "의료계와 정부가 합리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해 조속한 해결을 바라하며 중재 역할을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나래 기자



임현택 의협 회장(오른쪽)과 진 의정 갈등 해소를 기독일보DB 위해 시작한

살고 싶은 집 자이!

은평자이 더 스타 주상복합

2천만원으로 입주시까지 + 선착순 특별 혜택

- ☑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중
- ☑ 26년 5월 입주예정
- ☑ 전매 가능
- ☑ 중도금 전액 무이자
- ☑ 풀옵션 무상제공

소형주택: 전용 49㎡ | ▶분양용도: 공동주택(소형주택), 오피스텔 ▶분양규모: 연면적 42,954.14㎡

시행주택 신한자산신탁 시행위탁 화이트코리아산업(주) 시공 GCS 건설

문의 1544-6605

6

6

6

“22대 국회, 차별금지법 등 악법 발의 말아야”

한국교회연합, 4·10 총선 논평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 앞에 겸손하게
기록 의원들, 정당 거수기로 전락
나라·국민 위한 민의의 장 펼쳐졌으면



한국교회연합(대표 회장 송태섭 목사(사진), 이하 한교연)이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 대한 논평을 11일 발표했다. 한교연은 이 논평에서 “4.10일 총선에서 여야가 각자 받아든 성적표에 허비가 엇갈리고 있다. 집권 여당으로서 매우 실망스럽고, 야당으로서는 흡족할 만한 결과

가 나왔으나 이것이 곧 패배 또는 승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이어 “모든 언론이 여당이 참패하고 여당이 압승을 거두었다고 앞다투어 대서특필하고 있다”며 “그러나 엄밀히 말해 승리한 것은 투표에 임한 국민이지 그 표를 나눠 가진 정당이 아니다. 국민의 선택에 따른 책임이 그만큼 엄중하고 무겁하다는 점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 앞에 겸손하게 고개 숙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번 총선에서 여당의 국민의 힘을 비례 의석까지 합해 108석을 얻었다. 반면에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175석을 차지했다”며 “수치로 단순 비교하면 승자와 패자가 확연히 구분된다. 모든 입법과정이 거대 야당의 손에 좌우되고 여당은 수동적인 수밖에 없게 되었으니 당장은 야당의 승리로 비칠 수도 있다”고 했다. 한교연은 “하지만 입에 단 것이 몸에 해롭고 입에 쓴 약이 몸에 이롭게 한다는 격언이 있듯이 정치의 풍향계는 수시로 바뀌는 게 진리다. 정부 여당이 오늘의 아픈 결과를 쓴 약을 삼킨 것으로 받아들여 더욱 겸손한 자세로 분골쇄신한다면 쓴 약이 훗날 양약의 효과로 나타나

게 될 것”이라며 “반대로 야당은 달콤한 승리를 만끽하며 자만할 게 아니라 입법의 막중한 책임을 두 어깨에 짊어진 만큼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더욱 자세를 낮춰 정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특히 정부와 여당은 야당과 법야권이 총선 과정에서 부르짖은 ‘감찰 독재’ ‘정권 심판’에 왜 국민이 응답했는지 자성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일방통행이 되면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고 불통은 곧 국민과의 단절을 의미한다. 따라서 야당과의 협치와 대화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는 자세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한국교회는 이번 총선 결과를

하나님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에 보내는 섬뜩한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들이고자 한다”며 “만약 총선 출구조사에서 나온 대로 ‘개헌저지선’까지 무너졌더라면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는가.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의 참화를 딛고 피 흘려 이룩한 자유 민주주의의 토대가 뿌리째 뽑히는 결과가 눈앞에서 벌어질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니 모골이 송연해진다”고 했다. 또한 “이 시점에서 우려되는 것은 21대 국회에서 보여준 거대 야당의 무리한 악법 입법 시도가 또다시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점”이라며 “유권자들이 여당보다 야당을 더 많이 지지한 것은 대의민주주의에서 여야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려는 뜻

이지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동성애 옹호, 차별금지법 등 각종 악법 입법 시도를 남발하라는 뜻이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교연은 “만약 22대 국회에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있었던 불의한 시도가 다시 재연된다면 한국교회는 순교를 각오하고 끝까지 대항할 것임을 엄숙히 밝힌다. 이에 특별히 기독교 신앙을 지닌 국회의원들은 신앙 양심을 저버리고 각 정당의 거수기로 전락하는 과오를 저지르게 되지 않기를 당부한다”며 “한국교회는 제22대 국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하며, 진정 나라와 국민을 위한 민의의 장이 펼쳐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것”이라고 했다. 김진영 기자

기공협 “총선 결과 겸허히 수용하고 협치 하길”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이하 기공협)가 11일 “제22대 총선 결과 겸허히 수용하고 협치(協治)를 하기 바란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기공협은 이 성명서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109석, 더불어민주당·조국신당을 비롯한 범야권 191석의 당선자를 배출하고 대안원의 막

을 내렸다”며 “이번 총선은 1988년 제13대 총선 투표율 75.8퍼센트, 1992년 제14대 총선 71.9퍼센트에 이어 67퍼센트 투표율을 기록하면서 총선 역사상 32년 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번 총선은 109석대 191석이라는 선거 결과가 보여주듯 ‘정권심판’과 소위 ‘이조심판’이라는 ‘야당지도자 심판론

이 부각된 선거였다”며 “그런데 유권자들은 범야권 후보와 정당에 압도적인 표를 몰아주었다. 이는 민심의 향배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기공협은 “우선 윤석열 정부는 이번 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국정을 쇄신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민생경제 회복과 한반도 평화, 경제 회복을 위해 범야권의 입장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협치(協治)

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집권여당은 선거를 통해 표출된 민심을 두렵게 생각해 선도적으로 국민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실행하기를 바란다”며 “범야권은 집권 여당과 대화와 타협의 상생의 정치를 하기를 바란다. 특히 의회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겸손하게 국민의 명령을 받들기를 바란다”고 했다. 특히 “여야 정당은 한국 기독교계가 제안하고 추진해온 공공정책을 제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화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기공협은 “첫 번째로 낙태, 자살, 중독, 묻지마 폭력, 산업재해, 아동폭력, 노인학대, 고독사 등 사회 전반에 팽배해 있는 생명경시 현상을 극복하고 생명존중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생명존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최대 과제인 저출산(저출생) 극복을 위해 종교시설을 출산돌봄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세 번째는 근대종교문화자원 보존법 제정에 주기를 바란다. 네 번째는 알콜, 마약, 도박 등 중독문제 해결을 위한 중독 예방과 치료에 관한 법률안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한다. 다섯 번째는 종교사회의 건학정신을 구현할 수 있도록 사학법을 재개정해 줄 것을 당부한다. 여섯 번째는 기후위기 탄소중립을 실현할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이젠 국민화합... 여기에 교회가 역할을”

제22대 총선 투표 참여 및 공명선거 캠페인을 전개해 온 세계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김상복 목사)가 국민화합을 강조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는 총선이 끝난 11일 “이제는 국민화합입니다”라는 홍보배너를 만들어 SNS와 단체카톡방, 문자메시지로 공유하고 나섰다. 홍보배너 컬러에는 이번 여러 정당의 상징색을 사용하여 국민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는 총선 전 발표한 ‘투표참여 및 공명선거 10대 지침’에서도 “선거가 끝난 후 국민의 의사를 존중

하여 국민화합을 위해 힘쓴다”는 내용을 담아 홍보한 바 있다.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는 “이번 선거는 여야 정당이 사활을 걸고 싸운 선거였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후유증이 클 것이다. 국민화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 후유증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선거 결과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마음으로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러한 때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국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나라를 사랑하고 국가 발전을 위한 평화의 사도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와 여야 정당도 국민통합을 위한 정책과 협치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철영 목사는 ‘투표참여 및 공명선거 캠페인’에 함께 해 준 한국교회와 해외 한인교회에 감사의 전하기도 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는 지난 2007년 대선 때부터 총선, 지방선거 때마다 투표참여 캠페인을 전개해왔다. 또한 나라가 어려울 때는 비상구국기도회를 개최해왔다. 한편 이번 총선 투표율은 67.0%로 32년 만에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다. 소선거구가 실시된 1988년 제13대 총선 투표율 75.8%, 1992년 제14대 총선 투표율 71.9%에 이어 역대 총선에선 세 번째로 높은 투표율이다. 김진영 기자

금융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Shinhan

Pay의 모든 SOL 루션

신한 SOL Pay 신한카드로부터

Lead by 신한카드

이승구 교수 “젠더 이데올로기, 영적·시대적 분별력 가져야”

‘생명을 위한 고난’ 특별예배, 셋째날 강연

한국로잔위원회(의장 이재훈)와 행동하는프로라이프(상임대표 이봉화)가 공동주최하고 대구동신교회(담임 문대원 목사)가 주관하는 ‘생명을 위한 고난’ 특별예배 ‘한결같은 주의 생명’이 8일부터 오는 12일까지 매일 저녁 7시(12일은 저녁 8시)에 대구동신교회 비전관 생명홀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셋째날인 10일에는 이승구 교수(합동신학대학원 교수, 기독교생명윤리학회 상임이사)가 ‘영적 분별력과 시대적 분별력(요일 41-6)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이 교수는 “진짜 신앙은 무엇인가. 믿어야 할 것을 믿고, 믿지 말아야 할 것을 안 믿는게 진짜 신앙”이라며 “본문은 어떤 것을 믿어야 하고 어떤 것을 믿지 말아야 할지를 분별하라고 말한다. 이것이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했다. 그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은 시대적 분별력도 필요하다”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오늘날 젠더 이데올로기를 만들어서 온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일들이 생겼다. 심지어 학교에서는 ‘성’이라는 것이 그냥 태어난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가르친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몸을 가지고 수행하느냐에 따라 나의 정체성이 결

정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한 종류로 밀려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시대적 분별력”이라며 “먼저는 교회 공동체 안에 명확한 견해가 있어야 한다. 최근 감리교 목사님 한 분이 그들을(동성애자) 축복해 감리교에서 세 번의 재판 결과를 통해 더 이상 목사라 이름을 선언했다. 교회 공동체는 밀려오는 젠더 이데올로기에 분명하게 그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생명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진정한 생명. 이 영생을 드러내기 위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진정한 생명이 있도록 하기 위해 활동하는 것”이라며 “이 궁극적인 목적은 성적인 정체성이 무너진 상황 가운데에서는 발휘할 수 없다. 성경에 가르침에 따라 하나씩 정리를 해 나가야 한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진정한 영적 분별력은 사회적 분별력으로 나타난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야 한다”며 “그러나 이 일을 할 때 간접적으로 사람들 안에 잘못된 관념에 대해 너무 지나치게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는 몇 주 전에 부활절을 보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우리



이승구 교수가 강연을 하고 있다. ©대구동신교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있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전도하는 활동이고 생명 활동”이라며 “그러나 그 일을 하면서 동시에 세상이 건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일도 신경 써야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젠더 이데올로기라는 거대한 물결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며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말씀이 옳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것을 온 세상 가운데 나만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를 사랑 가운데서 드러내야 할 것”이라며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을 봉독했다. 아울러 “한국 사람들이 제대로 되지 않은 타진 옹달샘만 쌓아놓고 궁극적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을 두고만 볼 것인가”라며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진정한 생명운동을 이 땅 가운데 일으켜 주시기를 같이 기도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지동 기자

“제50차 CBMC ‘희년’ 한국대회, 기독 실업인들 모여 주님 찬양”



한국 CBMC 중앙회장 최범철 장로. ©최승연 기자



지난 제57차 한국CBMC 정기총회에서 최범철 중앙회장이 한국CBMC 기를 전달받아 흔들던 모습. ©기독교일보DB



최범철 중앙회장의 인도로 정기총회 참석자들이 2024년 사역주제인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를 삼창하고 있다. ©기독교일보DB

[인터뷰] 한국 CBMC 중앙회장 최범철 장로

기독교실업인회(CBMC)는 실업인과 전문인들에게 복음을 전해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성취하는 국제적 복음단체이다. CBMC는 크리스천 실업인(사업가)과 전문인들의 모임으로 전 세계 96개국에 조직되어 있다. 한국 CBMC는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국내 300여 개 지회, 해외 130여 개 지회를 두고 있으며 7천 5백여 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 CBMC 중앙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최범철 장로는 광주겨자씨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CBMC에서 20년 동안 사역하면서 지난 2월 16일 제20대 CBMC 중앙회장으로 취임하게 되었다. 최 장로를 만나 사역하게 된 계기, CBMC 사역을 통한 은혜, CBMC의 주요 사역 등을 들어 볼 수 있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CBMC 사역을 하게 된 계기는?
“CBMC는 교회 선배 장로님으로부터 처음 소개받았다. 처음에는 CBMC가 사업하고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을 전하는 곳으로 알고 왔는데 실질적으로 들어와서 보니까 건전하게 CBMC 안에서 서로 비즈니스적인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하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비즈니스는 여러 사람과 관계를 갖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에 아주 좋은 조건을 갖고 있으며 CBMC는 그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선교와 사명의 현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우리와 사업하고 있는 비즈니스 관계자들은 여러 사람 및 계층과 연결되어 있다. 서로 관계에 있다 보니 복음을 전하는 조건이 제일 좋다고 본다. 우리 단체는 노방 전도, 노상 전도 등을 했지만 그것보다도 서로 직장의 관계 속에서 연결되어 있다면 복음을 전하기에는 좋다고 생각한다. 일터에서 복음 전파를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다고 여기게 되었으며 열정적으로 20년 동안 CBMC에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전도와 양육을 통해서 개인을 변화시키고 일터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화 사역에 보람을 느낀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CBMC 사역을 하면서 받은 은혜가 있다면 간증 부탁드립니다.
“지난 2013년 남광주지회를 창립했다.

지회를 창립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회원들을 창립식에 데려오도록 했다. 믿지 않는 회원들을 잘 챙겼는데 이를 통해 교회에 다니다가 믿음을 잃은 사람, 교회를 쓴 사람 등 10명을 교회로 보냈는데 거기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다시 회복되고 지금도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다. 이를 보면서 기쁨을 느꼈고 은혜가 되었다. 지회를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을 관리하고 신앙적으로 정착하도록 하고 그 사람이 신앙생활로 인해 기쁨을 누리고 믿음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회를 창립한 저로서는 아주 큰 기쁨이 되었다. 비즈니스를 성실하고 있는 건강한 회원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배려하고 격려하고 교제하는 공동체를 섬기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생각한다.”

-한국 CBMC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한국 CBMC는 1951년 한국전쟁 중 미 군사 고문관인 세실 힐(Cecil Hill) 대령에 의해 대구에서 처음 조직되었다. 우리 단체는 실업인과 전문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증거하고 주님의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복음 단체이다. 한국 CBMC는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국내 300여 개 지회가 있다. 각 지회는 매주 1회 야밤에 모여 성경적 영성과 일터 복음화에 대한 포럼과 회원 상호 간 우정을 도모하고 조찬을 나누고 출근하고 있다.

CBMC는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다. CBMC 사역은 전도와 양육을 통해서 개인이 변화되고 일터가 변화되고 세상을 변화시키자는 것이다. CBMC 사역 시스템은 지회, 연합회, 중앙회 3 구조가 혼연일체 되어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사역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올해 사역 주제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이사야 60:1)인데 이렇게 정한 이유는?
“이사야서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하나님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명하신 하나님의 음성이자 그들의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이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될 당시 이스라엘은

절망과 어둠으로 좌악이 가득 차 있었다. 온 나라가 우상숭배와 더불어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계속 회개를 권고하셨지만, 백성들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 악행을 일삼았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인 바벨론의 손에 넘어가고 아름답던 예루살렘 성전이 훼파되고 백성들은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그들은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타국에서 포로생활을 하게 되었으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절망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고독 속에 몰아넣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다스림 영광스러운 미래와 메시아의 도래를 약속하시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하나님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고 말씀하셨고 이는 미래와 격려의 말씀이다. 지금 우리 사회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 사회, 문화 등이 긴 슬럼프에 빠져있다. 이를 보면서 코로나의 긴 터널에서 벗어나 지난 날을 극복하고 도약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를 올해 사역 주제로 정하게 되었다.”

-전도와 양육, CBMC 교육 체계 강화, 다음세대를 세우는 사역, 중앙사육 마련을 목표로 정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

“전도와 양육은 CBMC의 기본 사역이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이 사역은 침체되었는데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 일터 복음화 사역에 집중하기 위함이다. CBMC 교육 체계를 강화하여 CBMC 정예 회원을 양성하고자 한다.

다음세대를 세우는 사역은 우리 회원들의 자녀들을 우선으로 세우며 CBMC 비전을 전수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한국 CBMC는 지난 70여 년 동안 전용 사육이 없었는데 중앙사육 마련을 통해 교육공간 확보와 사역의 원활함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한국 CBMC와 국제 CBMC 역할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한국 CBMC는 국내 31개 연합회, 300여 개 지회와 해외 한인 CBMC 5개, 총연합회 26개, 연합회 133개 지회로 조직되어 있으며 중앙 CBMC가 상호간에 연합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관리 지도를 하고 있다.

국제 CBMC는 전 세계 6개 지역(아시

아, 태평양, 북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유럽) 96개국에 분포된 CBMC가 상호 유기적인 글로벌 공동체로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조율하고 협력하고 있다.”

-CBMC의 비전과 계획은 무엇인지?

“우리 사회와 교회를 보면 어느 공동체든 간에 저출산, 고령화가 제일 문제이며 이슈라고 생각한다. 기후변화도 문제지만, 다음세대가 안 세워지면 그 조직 자체의 존폐가 달린 문제라고 본다. CBMC의 앞으로의 발전과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 자녀 세대가 잘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CBMC에서 세우는 6가지 가치 중 하나는 CBMC의 비전을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교회와 협력하여 산학협력(CCC, 대학 소그룹제품)을 추진하려고 한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는 우리 회원들의 자녀들을 세우는 것이 우선이다. 우리 모든 공동체의 미래는 차세대로 가야 하며 차세대가 잘 세워지고 일터에서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건강한 CBMC가 되길 소망한다.”

-CBMC가 한국대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오는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울산에서 제50차 한국대회를 개최한다. 한국대회는 한국 CBMC의 가장 큰 행사로 전 세계에 흩어진 한인 CBMC 디아스포라가 함께 모이는 행사다. 회원과 가족들이

참가하여 비전을 새롭게 다짐하고 회원 간의 교제와 비전을 재충전하는 소중한 자리이다.

성경을 보면 희년 50년이 있다. 제50차 한국대회는 희년의 50년 해방과 회복의 해를 기념하며 5천 명이 행사에 참여할 예정이며 은혜의 소중한 자리를 준비하게 되었다. 이번 한국대회를 통해 복음화율이 낮은 울산지역의 복음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외의 CBMC 회원들은 희년 50년에 맞춰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는 5천 명이 모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함성이 울산 앞바다를 타고 오대양 6대주를 향해 울려 퍼져 나가게 될 것을 믿고 확신하며 기도하고 있다.” 최승연 기자

**사람을 연결하고
시간을 연결하고
공간을 연결하는**

**지금 이 순간도
LX는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미래차용 에너지 LX인터내셔널 | 글로벌 스마트 물류 LX판토스 | 프리미엄 인테리어 LX하우시스 | 신소재 개발 LX MMA | 차세대 반도체 LX세미콘 | 유리 솔루션 LX글라스

**LX
LINK FOR NEXT**

목사들이 답한 ‘목사의 정치적 발언이 가능한 상황’은?

목회데이터연구소, 목사 736명 대상 조사 결과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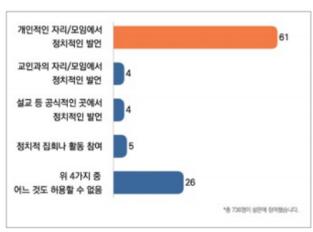
목회데이터연구소(목데연)가 목사 736명을 대상으로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조사해 최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가장 많은 61%의 목사들이 개인적인 자리나 모임에서에서 정치적 발언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어느 것도 허용할 수 없다’는 응답이 26%로 그 다음 순위를 차지했으며, ‘교인과의 자리나 모임, 설교 등 공식적인 곳은 모두 4%로 미미했다. 정치적 집회

나 활동 참여가 가능하다는 의견은 5%였다.

목데연은 “응답자의 대다수(87%)가 허용 안 된 혹은 개인적인 자리까지만 가능하다는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그 외에 ‘교인과의 자리(4%) 혹은 ‘설교의 자리에서(4%), 더 나아가 ‘정치적 집회 참여(5%)도 가능하다는 의견은 전체 응답자의 13%로 소수에 불과했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목사님께서서는 목사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물음에 대한 답변 비율 ©목회데이터연구소

동정 피로에 쓰러지는 목회자들, 해결 방안은?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샘 레이너(Sam Rainer) 목사(사진)가 쓴 '목회자들이 동정 피로를 느끼는 방식과 극복 방법'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최근 게재했다. 샘 레이너 목사는 미국 기독교 리소스 웹사이트인 '처치앤서스(Church Answers)' 회장이다.



레이너 목사는 "누군가가 짧은 시간에 여러 결정을 내린 뒤, 다른 결정을 내리기 힘들어하는 결정 피로(decision fatigue)에 대해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동정 피로(compassion fatigue)가 더 만연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동정 피로는 정서적, 영적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돌보고, 경청하고, 돕는 것이 누적된 결과로 생긴 과도한 피로이다. 목회자들은 위기 순간에 가장 먼저 영적 대응자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이 문제가 더 만연하다"며 "그들은 심각하고 골치 아픈 문제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그 결과로 분리되고 동정심이 줄어들는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없어 죄책감이 표면화되며 악순환이 생긴다"라며 원인들을 제시했다.

메시아 콤플렉스: 당신은 모든 사람의 전부가 될 수 없다. 모든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없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 목회자들은 여전히 노력하고, 교회는 그 노력을 환영한다. 물

론 어떤 목회자도 자신이 예수님이라고 주장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잘못된 동정은 자신을 과대평가할 수 있고, 자신 없이는 적절한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메시아 콤플렉스는 곧 탈진으로 이어진다.

고립: 혼자 짊어지는 짐은 더욱 무거워진다. 경청하는 친구가 당신이 좌절을 표현할 때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긴장을 완화할 수 있다. 귀는 종종 짐보다 더 강한 치유 능력을 가진다. 고통을 겪는 목회자들은 말하지 않고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다. 목회자가 고립되어 섭질 때 그들은 교인들의 말을 듣지만, 정작 자신이 말할 곳은 없다. 자신의 이야기를 말할 곳이 없을 때 긴장이 쌓인다.

여유 없음: 일정은 상단, 결혼식, 회의 등 시간을 요청하는 요구로 빠르게 채워진다. 각각은 교인들에게서 온 요청이라 중요하다. 그런 다음, 어떤 때는 응급 상황이 발생해서 병원에 늦게까지 머물게 된다. 어떤 청소년은 가출을 한다. 당신은 그 아이를 찾도록 도움을 준다. 한 배우자는 간통을 고백한다. 토요일에 2시간 동안 전화를 받게 된다. 며칠 밤을 잠 못 이루 끝에 당신은 지치게 된다. 힘든 한 주처럼 들리는가? 아니, 그런 일은 매주 반복된다.

문지기 효과: 목회자들은 대개 교회에서 정보의 문지기(gatekeeper) 역할을 한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정보를 결정하는 사람들이다. 문

지기의 문제점은 모든 사람의 문제와 불만의 저장소가 된다는 점이다. 장례 안내를 언급하지 않거나 잊어버릴 경우, 사람들은 당신을 비판하는 동시에 당신이 도울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탈진을 일으키는 이상한 상황이다.

공감 능력이 강한 목회자일수록 동정 피로에 더 취약하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무거운 부담을 짊어지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탈진이 일어날 수 있다. 타인의 트라우마에 더 민감한 목회자는 아니다. 면역이 되는 목회자는 없다.

목회자들은 동정 피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나?

동정심을 위한 전략을 세우라. 이 제안이 이상하거나 미묘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에게 큰 변화를 가져온다. 동정심은 감정적으로 지치게 하는 경향이 있다. 목표는 당신을 지치게 하지 않으면서 동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더 많은 공감적인 관심(다른 사람의 행복)을 갖고, 더 적은 감정적인 공감(다른 사람의 감정을 내면화하는)을 갖도록 노력하라. 다른 사람들이 기쁨을 경험할 때 정서적 공감을 사용하고, 사람들이 고통을 경험할 때 공감하라.

경계선을 정하라. 하루를 안식일로 정하고 그것을 지키라. 내게는 그런 날이 토요일이다.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토요일에 시간을 내달라는 요청에 "아니오"라고 말하라. 경계선을 정하지 않으면

경계가 없어진다.

휴가를 매년 재충전의 시간으로 기대하지 마라. 매주 안식일의 리듬은 휴가가 아닌 재충전하는 방식에 따라 결정된다. 당신의 영혼은 배터리를 주기적으로 사용하고 재충전해야 한다. 배터리에 더 많은 전력을 넣고 1년 동안 지속되길 기대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휴가 재충전은 1년 내내 지속되지 않는다.

화면 보는 시간을 줄이고 야외 활동을 더 많이 하라. 긴 하루를 보낸 뒤 유혹이 있다는 것을 안다. 그저 소셜 미디어를 뒤적거리고, 유튜브라는 토끼굴을 따라 여행하거나, 새로운 시리즈를 몰아보고 싶은 것이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밖에서 운동하고 시간을 보내라. 정신 건강에 관한 연구는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많다. 화면 앞에서 보내는 시간을 줄이고 야외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써라.

현실적인 업무량을 정하고 나머지는 위임하라. 현실은 몇 년 전, 내 아버지가 플로리다의 세인트 피터즈버그에 있는 그분의 교회에서 한 실험이다.

나는 교회에 있는 12명의 집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몇 가지 교회의 책임을 나열하고, 매주 각 영역에서 최소 몇 시간이 나가야 하는지 물었다. 20개의 영역을 나열했고, 공백에 다른 책임들을 추가할 수 있게 했다.

정확히 무엇을 기대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단지 결과를 집계할 때 충격을 받았다는 것만 기억한다. 집사들의 최소한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나는 매주 다음과 같은 책임을 수행해야 했다.

- 봉사 및 전도: 10시간
- 상담: 10시간
- 병영 및 가정방문: 15시간
- 행정가능: 18시간
- 지역사회 참여: 5시간
- 교단 참여: 5시간
- 교회 모임: 5시간
- 예배 및 설교: 4시간
- 기타: 10시간
- 총: 주당 114시간

이 간단한 연습은 거의 모든 목회자들이 직관적으로 느끼는 현실을 보여준다. 당신은 교회의 최소한의 기대조차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다. 특정 영역에서 더 많은 시간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 합리적인 주간 업무량을 설정하고, 교인들을 훈련시키고 정비하면서 책임을 위임하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 아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려고 노력하는 데서 동정 피로가 시작된다.

당신의 피로의 시기를 예상해야 한다. 모든 직업이 그러하다. 하지만 당신은 목회에서 동정 피로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유진 김 기자

“복음, 우리 모두 죄인이기에 언제나 ‘좋은 소식’”

저스틴 딜리헤이 목사, 복음과도시 홈페이지에 글 게재



저스틴 딜리헤이(Justin Dillehay) Grace Baptist Church 담임목사(사진)는 11일 복음과도시 홈페이지에 "불신자에게도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해도 될까"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재했다.

저스틴 딜리헤이 목사는 "이 글 제목을 보고 의아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당연하지. 그게 아니면 어떻게 복음을 전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싶을지도 모른다"라며 "일반 속죄(General atonement,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는 교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애초에 지금 제기하는 질문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문제는 제한 속죄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만 해당한다. 제한 속죄(Limited atonement)란 예수님의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게 아니라는 의미"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의 구원은 아버지께서 미리 그에게 주신 나라마다 있는 한정된 (그러나 아주 많은) 숫자의 죄인에게만 해당한다(요 6:38-39)"며 "이

견해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 누구라도 최후의 심판에서 정죄를 받지 않는다(롬 8장 34절) 그리스도가 대신 해서 죽은 모든 사람은 궁극적으로 구원을 얻는다(롬 5장 10절)"라고 했다.

그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주시지 않았다(요 17:9)는 사실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결코 모든 사람을 위한 게 아님을 의미한다. 예수님이 죽은 건 그의 양을 위해서이고, 모든 사람이 다 그의 양은 아니다(요 10:11, 26)"라며 "예수님은 신부를 위해 죽었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의 신부는 아니다(엡 5:25; 계 19:7-8)"라고 했다.

딜리헤이 목사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다"를 전도에 사용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눠 설명했다.

먼저 위 문장을 사용하면서 전도하는 경우에 대해 "분명히 회개하고 믿을 때까지는 결코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불신자에게 확실하게 알려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대부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비그리스도인도 그렇다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

다라는 말 때문에 불신자가 자신의 죄와 불신앙에 대해서도 안경감을 느낀다면, 그 결과는 심각하다"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도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눅 13:3, 5)고 상기시켰다"고 했다.

또한 "마지막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은 물론 하나님의 진노까지 느끼도록 도와야 한다"며 "나는 어떤 전도하는 사람이 불신자에게 '하나님은 결코 당신에게 진노하지 않으십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요한일서 2:2에서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 즉, 진노를 없애는 희생'이라 부르고, 이 제물은 '온 세상의 죄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며 설명을 이어갔다"며 "따라서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누구에게도 진노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었다"고 했다.

그러나 "이것은 요한복음 3:36의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에는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와 완전히 모순된다"며 "믿기 전까지 하나님은 여전히 불신자를 향해서 진노하신다. 사실상, 그분의 사랑이 단순한 감성적 사랑으로 치지 않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딜리헤이 목사는 '예수께서 너희를 위해 죽으셨다'를 전도에서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경우로 "베드로와 바울이 불신자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은 건 맞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전도를 하면서 이와 비슷한 호소를 하지 않은 건 아니었다(사도행전 2:39; 3:26; 10:43; 16:31)"고 했다.

딜리헤이 목사는 개혁주의 신학자 이안 머레이의 말을 인용하며 "성령께서는 진리를 사용하여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신다...(중략)...그러나 죄를 깨닫는 것만으로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 죄에 대한 확신은 단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말할 뿐, 죄인에게 하나님의 용서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는다...(중략)...사랑은 큰 매력이다. 복음을 호소하는 데에 있어서 사랑은 가장 중요하다...(중략)...그리고 이 사랑은 누군가가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언제나 좋은 소식으로 선포되어야 한다"고 했다.

딜리헤이 목사는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결과이다. 그렇기에 사랑을 회개의 자리로 이끌 수 있다(롬 2:4)"며 "제한 속죄는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의 부정이 아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더 분명하게 인식함으로써 그 사랑을 더욱 심화시킨다"고 했다.

그는 "제한 속죄의 복음은 예수님이 신부를 위해서 특별한 방법으로 죽으셨지만, 그 후 우리를 향해 돌아서서 모든 사람을 그 관계로 초대하신다고 말한다"고 했다. 노형구 기자

탈북민 대안학교 운영과 비전은?

바이어하우스학회, 제8회 심포지움 개최한다

바이어하우스학회(이하 학회)가 12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대한기독교여자전례연합회관에서 "탈북민 대안학교 운영과 비전"을 주제로 '제8회 심포지움'을 개최한다.

먼저 유관지 목사(북녘교회연구원장, 주빌리통일구국기도회 상임교문)가 "깊은 밤에 우리가 해야 할 일"(롬 13:11-14)이란 주제로 설교하고, 이후 심양섭 박사(기쁨의학교&남북사랑학교 교장)와 신효숙 박사(국민대 교수), 송신복 박사(삼미전교회, 평택 개안학교 교장, 강남 중앙평생교육원 상담학 교수)가 각각 "제3국 출신 탈북민 자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북한 이탈주민 자녀의 교육과 대안학교의 과제", "탈북민 대안학교의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 등을 주제로 발표한다.

문의: 010-3436-2006 이나라 기자



탈퇴공고

주향한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피어선총회를 탈퇴하기를
2023년 12월 31일 공동의회를
통해 결의하였기에
이에 공고합니다.

주향한 교회
당회장 김현중 목사 외 교인 일동

기독교 유일의 24면 일간지!!

기록일보

카카오톡 채널에서 만나요!
https://pf.kakao.com/_QNvAK/friend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기록일보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발행되는 일간지로서, 기독교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신문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53 코스빌딩 | 구독문의 02-6085-8166 | 광고문의 02-6082-8165 | www.cdaily.co.kr

성실기독교공사

개척교회 영가 공사 / 파이프 탑, 종각 종탑, 대형 십자가 시공, LED 네온 설치
네온 수리, 완공 후 철저한 A/S 보강

☎(02)923-2466 / HP : 010-5344-2466 / 080-938-0404
<부천시사> (032)349-2466 / FAX : (02)923-2466
홈페이지 <http://ss04.barunweb.co.kr>

캐스빌딩가 / tower2466@naver.com

대표 : 박진홍 (성실교회 안수집사)

성누가회 힐링핸즈, 2024년 OT 모임 성료

성누가회 산하 의료봉사단체인 힐링핸즈가 최근 서울기독교회관에서 온라인 특이선 모임인 '힐러들의 모임'을 개최하여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에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진행을 동시에 했는데, 전국 각지에서 73명의 대학생들이 현장에 참석했다. 나머지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참석을 했다. 현재 힐링핸즈의 소속 대학생 회원은 약 1000여 명이고, 46개 대학에 회원들이 분포되어 있다.

힐링핸즈에서는 국내외에서 정기적으로 의료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힐링핸즈는 해외의료선교로 필리핀의 KOPEC 기독교선교단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파송 교회와 협업하여 의료선교를 진행한 바가 있다. 국내에서도 의료 사각

지대에 있는 사람들과 외국인 노동자 대상 의료봉사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한국교회연합과 함께 겨울철에 저소득층 대상 연탄기부행사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힐링핸즈 관계자는 "지금까지 해온 봉사활동 외에도 다양한 봉사활동을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계획을 전했다.

이번 OT 모임은 힐링핸즈의 어른들 주도가 아니라 젊은 대학생들이 주도하여 준비한 점이 특징이었다. 학생들이 사전에 모여 방송촬영을 준비하기도 했고, OT 모임의 MC를 맡아 진행하기도 했다. 힐링핸즈 측은 이에 대해 "힐링핸즈에 소속감과 헌신적 마음을 가진 대학생들이 늘어났음을 보여준다"고 귀띔했다.



힐링핸즈 회원들이 OT 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힐링핸즈 제공

힐링핸즈의 대표인 신명섭 원장은 "힐링핸즈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가치로운 대학 생활을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미래는 젊은 청년들에게 달려 있는 만큼 젊은 청년들이 열정을 쏟을 수 있는 곳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OT를 마친 후 기념촬영. ©힐링핸즈 제공

최승연 기자

분당우리교회, 향후 22년간 매년 30억 원씩 기부



분당우리교회 드림센터 ©네이버 거리뷰 캡처

드림센터 매입이 650억 등 총 900억 기부 예정

분당우리교회(담임 이찬수 목사)가 예배 외 주중 활동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드림센터의 매입 가격 만금인 650억 원을 향후 22년 동안 매년 30억 원씩 장에

인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이찬수 목사는 최근 주일예배 설교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당초 교회

측은 드림센터를 기증하는 방식으로 사회환원을 계획했으나, 실제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해 건물 매입 가격을 기부방식으로 바꿨다고 한다. 또한 여기에 250억 원을 더해 총 기부 금액은 900억 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회 측은 앞으로 22년 동안 장애인

들과 청년, 노년층, 그리고 미자립 교회나 작은 교회를 위해 이 금액을 사용할 예정이다. 이찬수 목사는 이에 대해 얼마 전 설교에서 "여러분의 부담이 아니라 분당우리교회가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로서, 이것이 22년 동안 저와 여러분의 베풀어 줄 바라고" 전했다.

한편, 분당우리교회는 별도의 예배당을 소유하지 않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송림중고등학교 내 강당을 빌려 예배를 드리고 있다. 다만 예배 외 주

중 활동을 위해 분당에 '드림센터'를 구입, 2011년 12월 4일부터 사용해 오고 있다.

그러던 중 지난 2012년 7월 1일, 담임인 이찬수 목사는 주일예배에서 '일만성도 파송운동'을 공식화 했는데, △전 성도의 최소 절반인 1만 명에서 최대 4분의 3인 1만5천 명까지를 파송하고 △분당우리교회 드림센터를 앞으로 10년 간 사용한 뒤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것이었다. 전자는 지난해 29개 교회를 분립하면서 완료했다.

김진영 기자

오광석 목사 인도하는 치유학교 '1일 컨퍼런스' 열린다

4월 23일부터 5월 3일까지 총 다섯 차례

HSG 치유학교가 오는 4월 23일부터 5월 3일까지 총 다섯 번에 걸쳐 '1일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컨퍼런스 강사는 경남 양산의 한세교회 오광석 목사가 나선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먼저 치유학교, 신앙학교, 제자학교에 대한 한세교회 교육과정의 핵심을 소개한다. 또 컨퍼런스가 열리는 날 오후에는 특별치유 안수 시간을 갖고 현장에서 치유사역을 경험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HSG 치유학교는 컨퍼런스에 대해 "6주 안에 치유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실습해 초대교회 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역사가 똑같이 나타나도록 돕고, 믿는 자들에게 치유가 나타날 때까지 가르치는 과정"이라고 전했다.

한세교회는 매주 금요일예배, 토요일과 주일 오전에 설교 후 치유사역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금요일예배 후, 오광석 목사와 그의 제자들이 치유사역을 하고 있다고 한다.

오광석 목사는 교회 개척 4년 후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1,500교회) 하기도 했다. 또한 조흥기 목사 영재회 집회, 백석총회 목회자 세미나(2,500명), 브라질 교회(7,000명 성도 출석) 집회, 국내 다수 부흥회를 인도해 오고 있다. 현재 한세교회 담임, HSG 치유학교 대표, 신앙학교 대표



한세교회 오광석 목사 ©HSG 치유학교

로 사역하고 있다.

오광석 목사는 "우리 교회 사역프로그램은 치유학교, 신앙학교, 제자학교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며 "각 과정은 그 성격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 치유학교를 통해 일단 사람들이 모여야 한다(행 5:14). 그 이유는 사도들의 손을 통해 민간에 표적과 기적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이다(행 5:12). 신앙학교는 믿고 치유하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만드는 교육과정이다. 신앙의 기초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군사가 되기까지 가르친다"고 했다.

그는 "치유사역자가 갖추어야 할 마음 자세는 우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절대 순종하는 것"이라며 "그리고 내 자존심을 말씀 앞에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다. 주님이 치료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치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오 목사는 "항상 치유가 나타날 때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자기를 드러내지 말고 오직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자



HSG 치유학교가 열린 모습 ©HSG 치유학교

랑할 일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을 나를 통해 나타낸 하나님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치유사역은 작은 교회에도 적용이 되고 큰 교회는 더 잘 되는 특징이 있다. 그 이유는 치유엔 인적·물적 자원이 필요 없고 예수님이 하신 치유사역처럼 병든 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치유를 하면 사도행전 5장 14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몰려오기 때문"이라고 했다. 1일 컨퍼런스(오전 10시-오후 5시) 일정은 아래와 같다.

- 문의: 010-5397-1925(문자 접수)
 - 4월 23일(화) 양산 한세교회(담임 오광석 목사)
 - 4월 25일(목) 서울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1층 소강당
 - 4월 30일(화) 광주 화평교회(담임 정영근 목사)
 - 5월 2일(목) 대전 열방비전교회(담임 노문주 목사)
 - 5월 3일(금) 원주 한세교회(담임 정영석 목사)
- 김진영 기자

레티놀 4X로, 단 7일만에 속부터 짝 차오르는 밀도탄력

아이오페 레티놀 슈퍼 바운스 세럼

**7일 만에 속부터 차올라
4주 후 어려운 피부 나이**

10.6%
볼 탄력 개선

12.5%
모공부위 피부탄력

12.2%
피부 탄력증 개선



RETINOL
SUPER BOUNCE
SERUM
|
RETINOL 4X
IOPE

오늘부터 7일 후, 달라지는 피부 변화를 경험하세요!

IOPE

구매 문의 | 080-023-5454, 카카오톡 '아이오페' 채널 판매처 | 전국 아리따움 및 올리브영 매장
[*사용 7일 후, 인체 적용 시술 결과 [시행기간] 2023.01.26~2023.03.10 [시행대상] 성인 여성 30명 [시행기관] [전국]아리따움/올리브영

청년미래재단, 자립준비청년 위해 음악회 수익금 기부

아름다운재단은 청년미래재단이 지난 9월 자립준비청년의 건강한 홀로서기를 위해 음악회 수익금 500만 원을 기부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월 17일 청년미래재단이 개최한 '2024 청년희망 신년음악회'의 수익금 중 일부로 조성된 이 기부금은 아름다운재단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의 학업생활보조비 및 자기개발비 등을 지원하는 데에 쓰일 예정이다.

청년미래재단은 자립준비청년, 고립은 둔청년뿐만 아니라 지원 정책이 닿지 않는 복지 사각지대 청년들을 발굴해 심리

상담·창업비움-네트워크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다.

기부금 전달식에 참석한 임상환 청년미래재단 이사장은 "청년들의 건강한 홀로서기를 응원하는 음악회 관객분들의 마음을 대신 전한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했다.

김진아 아름다운재단 사무총장은 "문화를 나눔으로써 자립준비청년의 미래도 응원하는 뜻깊은 공연을 열어주시는 청년미래재단에 감사를 표현한다"며 "앞으로도 생활 속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청년미래재단이 지난 9월 자립준비청년의 건강한 홀로서기를 위해 음악회 수익금 500만 원을 아름다운재단에 기부했다. ©아름다운재단

주체와 힘을 모으는 아름다운재단이 되겠다"고 했다. 최승연 기자

“인랜드에서 다음세대 신앙의 밑거름이 되는 교회로”

[미주 기독교일보 20주년 인터뷰] 인랜드 ANC 온누리교회 윤창률 목사

미주 기독교일보가 창간 20주년을 맞아 미주 각 지역에서 성실히 목회하고 있는 교회들을 돌아 보고 한인 목회자들의 고군분투기를 기록한다. 이번 시간에 소개되는 인랜드 ANC 온누리교회는 2008년 3월 선랜드 ANC 온누리교회의 협력(Association) 교회로 시작됐다. 2021년부터는 선랜드 교회와 목회철학과 비전을 공유하며 협력하는 ANA(All Nations Association)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해 독립교회가 되었고 지난해 3월 4대 담임으로 윤창률 목사가 부임한 이후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 윤 목사는 다른 무엇보다 다음세대와의 연결이 현재 한인교회와 인랜드 ANC 온누리교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창률 목사와의 일문일답.

-인랜드 교회 목회 1년차를 맞고 있다. 1년간의 소회를 말해달라.

1년간 무언가를 정해서 강력히 밀어붙이기 보다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데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다. 선랜드 교회 부목사로 섬기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역해 왔는데 처음 맡은 담임목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1년을 지내왔다. 담임목사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모델이 되어야 한다. 그렇기에 더 깨어 있어야 하고, 더 바로 서야 한

다는 마음 자세로 긴장을 놓지 않고 있다. 제가 잘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다.

-ANC 온누리교회라고 하면 같은 비전을 공유하는 여러 교회들이 서로 연합하는 좋은 모델로 알려져 있다. 현재의 인랜드 교회를 담임하기까지 과정이 어떠했나.

원래 선랜드 ANC 온누리교회에서 부목사로 2004년부터 사역을 했고 2021년까지 17년간 섬겼다. 이후 잠깐의 휴식을 가지는 동안 인랜드 교회에 청빙 기회가 있어서 신청을 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2023년 3월부터 담임목회를 시작했다. ANC 교회들간에 같은 스피릿을 가지고 형제교회로서 함께 교제하고 있다. 전에는 인랜드 교회가 캔커피 교회의 위치였지만 현재는 완전히 독립교회로 운영되고 있다. 1년에 한번씩 정례적으로 ANA 소속의 온누리교회 목사님들끼리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있고, 평소에도 서로 자주 문안하면서 목회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1년 목회는 적응기간이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성도들과는 얼마나 친밀해졌는가.

1년을 목회한 시점에서 제가 느끼는 것은 성도들과 영적으로 더 긴밀하게 가까워지고 성도 한



인랜드 ANC 온누리교회 담임 윤창률 목사(왼쪽), 인랜드 ANC 온누리교회 간판(오른쪽) ©토마스 맹 기자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들어갈 시간이 아직은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담임목회 시작 후에 1년정도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덧 1년이 흘렀다. 최선을 다하려고 했고 성도들도 마음을 많이 열고 이해를 해주신 것 같다. 처음 1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동안 성도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거나 목회 청사진을 공유한 것이 있나.

제가 최근에 교회가 10년동안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 리더십들에게 화두를 던졌다. 큰 욕심을 내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가 교회의 좋은 모범을 세우고 그것을 다음세대에 계승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교회 공동체라는 정체성을 잘 물려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다. 교회에 연세드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우리가 밑거름이 되고 쓰임이 되어서 다음 세대가 더욱 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바톤을 넘기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사역 1년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매우 강하게 주시는 것을 느꼈다. 시무장로님들에게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끄집어 내고 모든 에너지를 다음세대를 위해서 쏟는다는 자세를 갖자고 했다. 다른 이민교회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특히 우리 교회의 경우 다음세대를 꼭 생각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 시설이나 리더십을 세우는 일, 또 교육까지 많은 부분들을 손보고 신경을 써야 한다. 다양한 세대가 한달에 한번 이상 회의를 하고 서로 기도하면서 하나 되는 꿈을 그려가자고 당회 때 이야기를 했고 다들 이해를 해주셨다. 이것을 구체화시켜야 한다.

-신앙적인 측면에서 성도들에게 그동안 강조한 부분이 있는가.

올해 교회 표어가 '말씀으로 살리라'다. 개인 경건생활에 많은 강조점을 줬다. 큐티, 일대일 양육, 성경공부를 통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열심을 내왔다. 할 수 있는 한 깊이 묵상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할지 고민을 많이 했다. 목회자에게는 아무래도 말씀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 아닌가 생각한다.

선랜드 교회의 유진수 목사님이 서울 온누리교회 출신이고 20여 년 전 제가 부목사로 섬길 때에도 큐티와 일대일 양육을 많이 강조했었다. 그래서 당시를 생각해보면 모든 성도들은 누구나 큐티에 대해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스피릿을 살려서 지난해부터 우리 교회에 큐티를 활성화 했고, 올해는 이 과정을 더욱 심화시키고 깊이 훈련하는 단계로 진행 중이다.

-인랜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가.

공동체 생활하는 것이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처음에 와서 했던 설교도 '행복한 교회가 주제였다.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 녹아 있었던 것 같다. 역지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교회 생활이 행복한 신앙을 하기를 바라고 있다. 공동체는 좋은 것임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래서 그동안 행복하게 목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노력을 했다. 또 한 가지는 소그룹 모임인 '다락방'을 통해 더욱 깊은 성도들간의 교제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교회의 가장 기본은 예배라고 생각한다. 먼저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성도들에게 강조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의 행복을 알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교회에서 평신도 선교사가 나와서 파송이 되었으면 한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으로 갈 수 있는 평신도들이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면 좋겠다.

사실 담임 목회하는 입장에서 늘 두렵고 떨린다.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불잡아 주시지 않으면 안됩니다'라고 매일 기도하고 있다.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다. 부목사로 섬기는 시간은 많았지만 담임목사로서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 했는데 고령화 및 다음세대 신앙계승이라는 주제는 다른 많은 한인교회들도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부분인 것 같다.

많은 이민교회들의 공통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다. 우리 교회는 연로하신 분들이 많다보니 더욱 실감하고 있다. 고령화에 대해 여러 우려의 목소리 및 대안들이 나오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고 인간적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풀지 못하는 고민들을 두고 기도할 때 결국 하나님이 풀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실 것만 믿고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되고 우리 또한 책임을 다 해야 한다. 비전을 함께 다음 세대에 그려 나가고 다음 세대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 먼저 온 세대들이 영적으로 건강한 모델을 만들어주고 열심히 예배하면 하나님이 연결되는 부분을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저는 굉장히 정이 많은 사람이다. 저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통해 옛날 한국의 교회가 정이 많았던 것 같이 항상 정이 넘치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런 부분이 너무 좋아 보였다. 사랑이 많고, 푸근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가 도와주려고 하고 지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 귀하다고 느꼈다. 인랜드 교회가 접근성도 정말 좋고, 넓은 부지도 있어서 성도들이 앞으로 주님의 귀한 사역을 펼쳐나기는데 있어서 큰 자산이 될 것이다.

1년 동안 성도들에게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크다. 사택이 떨어져 집에 못 들어갈 때가 많았는데 매번 아들같이 챙겨주시고 마음을 써주셨다. 교회에 어르신들이 많지만 본인들이 굉장히 자발적으로 헌신을 많이 하신다. 청소부터 시작해서 정원 관리 등 모든 것을 본인들이 직접 하려고 하신다. 교회를 너무도 사랑하고 배부시려고 노력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낀다. 그런 부분이 정말 감사하다. 특별히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은 없지만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계속 지속하고 가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기도한 것을 이렇게 이루어 나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하나하나 체험하고 목격하고 같이 동행하기를 바란다. 한마음 공동체가 되었으면 한다. 토마스 맹 기자

한미연합회 모의유엔 학생들, USC 모의유엔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 거둬



USC 모의유엔 대회를 마치고. ©주최 측 제공

한미연합회(KAC, 대표 유니스 송) 모의유엔(이하 MUN) 학생들이 지난 4월 6일과 7일 이틀간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USC) 대학교가 주최한 'SCMUN 모의유엔대회'에 참가하여 총 8개의 상을 수상해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이번 대회에는 21명의 KAC MUN 학생들이 각각 자신이 관심 있는 의제를 다루는 위원회에 참가해 미리 배정된 유엔 회원국을 대표하여 국제 사회현안을 놓고 토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다. 개인 부문에서 유엔환경계획(UNEP) 위원회

에 참가한 '레이첼 최(Rachel Choi)' 학생이 최우수상, 유엔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위원회(CCPC)에 참가한 '소피아 김(Sophia Kim)' 학생, 위기관리위원회(Crisis Committee)에 참가한 '매튜 헤이(Matthew Hsieh)' 학생, '마이클 헤이(Michael Hsieh)' 학생이 각각 우수상을 받았다.

또한, '스테판 정(Stephen Jung)' 학생이 장려상, '엘리 박(Ellie Park)' 학생, '로렌 박(Lauren Park)' 학생, '데이빗 한(David Han)' 학생이 리서치 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김민선 기자

만남의교회, 선한 사마리아인 프로젝트로 미자립교회 돕는다

벨리에 소재한 만남의교회(담임 이정현 목사)가 선한 사마리아인 프로젝트를 통해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교회를 돕는다.

코로나19 때부터 시작된 이 사역은 작년부터 만남의교회 13579캠페인에 따라 3대 절기(부활절, 추수감사주일, 성탄절) 헌금을 이웃과 나누는

예수사랑 실천운동으로 더욱 확장되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부활절 헌금을 나눔으로, 미자립교회 또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교회를 돕고자 지원을 받



는다. 지원대상은 가주 내 모범적 목회활동 중인 교회로 교회당 1천불이 지원된다.

신청기간은 4월 16일까지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는 만남의교회 홈페이지 www.churchmannam.com 배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민선 기자

대한민국 사장님~

노란우산 쓰세요!

홍보대사 남보라

홍보대사 정준호

사장님 지원 플랫폼

노란우산

-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 복리효과로 폐업 시 퇴직금 역할
- 지자체 가입장려금 지원
- 압류로부터 공제금 보호

가입문의 1666-9988 www.8899.or.kr KBIZ 중소기업중앙회

*취급은행: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농협·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 중소기업중앙회 준법지원실 심의번호 제24-082(2024.3.11.~2025.2.28.)
위 광고는 내부통제 기중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예금저축보안연) 노란우산은 예금저축보안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증하지 않으며, 중소기업중앙회와 운영하는 공적 공제제도로서, 중소기업중앙회법 제120조에 따라 정액 지급에 필요한 책임보험을 위해 매 결산마다 납부공금을 포함한 준비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합니다. 노란우산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 홈페이지(www.8899.or.kr) 또는 약관을 참조하십시오.

(사)기독교문학가협회 “한류열풍 속 한국문학의 세계화에 박차”

6일 신길감리교회서 법인설립감사에배·취임식 및 임명식
이사장에 박영률 목사, 상임회장에 백근기 목사 취임

팝, 드라마, 영화, 예능, 뷰티 등 다양한 K 콘텐츠가 세계에서 주목받으며 한류 열풍을 주도하는 가운데, 한국문학(K 문학)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세계문화로 발전 및 확산시키는 일에 기독교 문학인들이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작년 9월 창립되어 12월 서울특별시에서 사단법인 설립을 허가 받은 (사)기독교문학가협회가 최근 사단법인 설립감사에배와 이사 취임식 및 추대패, 임명장 수여식을 열고, 초대 이사장 겸 대표회장에 박영률 목사, 상임이사이자 상임회장에 백근기 목사를 비롯해 법인이사, 운영이사, 고문, 자문위원, 임원 등을 임명했다.

박영률 목사는 현재 세계기독교문학가협회 회장, '하나로 선 사상과 문학' 발행인, 한국교회복지선교연합회 이사장 등을 맡고 있으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총무, 홀리클럽 총무 등을 역임했다.

박 목사는 이사장 취임 인사에서 “한국문학을 세계문학으로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기독교문학가협회가 창립돼 법 인화됐다”며 “지금 우리나라는 BTS, 훈민정음, 아리랑, 심지어 라면, 최근에는 얼음김밥까지 다양한 면에서 세계화됐는데, 유감스럽게도 문화와 정치는 아직 세계화 되지 않았다. 문학을 세계화하기 위해 기회를 만들고, 한국문학을 세계문학으로 발돋움시키는 일에 기여하기 위해 뜻있는 문학자들이 수심 차례 모인 후 법인설립 감사에배를 드리는 것에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 목사는 또한 “750만 한인 디아스포라 가운데 문학자도 많고,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문학을 통해 자신의 뜻을 펼치고 있는데, 이것을 네트워크 해서 연결하는 단체가 없다”며 “외람되지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김봉근 박사가(전 한국문학비평가협회 회장, 전 세계전통사인협회 한국본부 이사장)이 중심이 되시고 한국문학에서 상당한 리더십을 가진 분들을 모시고 (단체를) 시작했다”며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모여야 한다. 모래는 물을 부으면 흩어지나, 진흙은 물을 부으면 더 단단해진다. 우리는 진흙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의 물을 부어 돌과 쇠보다도 단단한 문집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라며 ‘한국문학의 세계화’라는 과업을 위해 단단히 뭉치는 협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협력을 부탁했다.

사단법인 설립에 산과 역할을 한 백근기 상임회장은 “사단법인 설립의 목적과 사업은 한국문화가 세계화되는 시기에 한국문학이 세계문학으로 뻗어나가서 세계인들이 한국문학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최종 목표는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양성하는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지난 6일 서울 영등포구 신포로 신길감리교회(김갑성 담임목사) 본당에서 진행된 1부 법인설립 감사에배는 엄경숙 시인(꽃달림시낭송원 원장)의 오픈링 축사 후 상임회장 백근기 목사의 사회로 감사연주 후 김갑성 신길감리교회 담임목사가 ‘우리도 갈렙처럼’(여호수아 14:6-15)이



상임고문 김봉근 박사(오른쪽)가 이사장 박영률 목사(왼쪽)에 취임패를 전달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이 단체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지희 기자

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 목사는 “앞으로 사단법인을 운영하면서 많은 역동이 형성되는데, 때로는 이 역동이 갈등을 낳거나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할 수도 있다”라며 “여호수아와 갈렙 사이의 역동에서, 갈렙은 (시기와 질투가 있을 수 있었으나) 보다 더 성숙한 방향으로 나아가서 타월함을 나타냈다. 또 성실하고 충성을 다했으며,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고,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능력을 나타냈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사단법인이 출발하면서, 누군가 이 안에서 갈렙 같은 사람이 최소한 한두 명은 있어야 아름다운 집단이 된다”라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갈렙과 같은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큰 족적을 남기는 공동체, 갈수록 생명의 능력과 모든 이들에게 유익을 주는 단체로 성장하길 원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백근기 목사의 헌금기도, 사무총장 김순찬 장로의 광고 후 김갑성 목사의 축도로 1부 감사에배를 마쳤다.

2부 취임 및 임명 축하식은 부회장 김민섭 목사의 사회로 백근기 목사의 내빈 소개, 김순찬 장로의 법인 설립 경과 보

고 후 상임고문 김봉근 박사가 박영률 목사에게 이사장 취임패를 증정하고 박 목사가 취임 인사를 전했다. 김순찬 장로는 “법인을 확보했으니 사람이 아닌 시스템이 움직이는 견고한 틀이 만들어진 것”이라며 그동안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은 임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박영률 목사는 사단법인 태동을 위해 적극 헌신한 상임이사 백근기 목사에 공로패를 전달했으며, 이사 및 감사에 취임패, 고문과 자문위원에 추대패, 운영이사, 임원 등에 위촉장 및 임명장을 수여했다.

상임고문 김봉근 박사는 축사에서 먼저 “박영률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모래, 흙, 성령은 우리 협회 정신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법인은 안정성, 지속성, 공정성, 연대 강화의 속성이 있다”며 법인설립을 축하했다. 이어 “여기서 우리가 다짐해야 될 것은, 우리 문학이 세계화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시, 소설 등에서 노벨상을 받아 마땅한 작품들이 있는데, 노벨상을 타려면 여러 나라 말로 번역돼야 하고, 특히 스웨덴어로 번역돼야 심사대상이 된다. (한국문학의) 세계

화의 길이 굉장히 힘든데 박 목사님께서 이 일을 선도적으로 하시게 된 데 존경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이와 함께 “우리나라가 19세기까지 ‘대륙에서부터 받는 세계화’, 20세기 들어와서 ‘서양에서부터 받는 세계화’를 했다면, 이제 ‘주는 세계화’를 해야 될 때”라며 “영적으로 거듭나서 ‘주는 세계화’를 하는 사명을 우리 사단법인이 쥐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후 김완수 시인과 이영희 시인이 축사 낭송, 테너 오창호 성악가가 축가로 참석자들에게 은혜와 감동을 전했으며, 3부 단체사진 촬영 및 점심 식사로 일정을 마쳤다.

기독교문학가협회는 2023년 8월 25일 21명의 발기인을 중심으로 발기인대회를 열고, 2023년 9월 5일 80명이 서명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신길감리교회에서 열었다. 2023년 10월 4일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 7차례 보완을 거쳐 12월 14일 사단법인을 허가받았다. 2024년 1월 24일에는 제1차 법인이사회를 열어 시행규칙 심의를 가결, 2024년 2월 20일에는 제2차 법인이사회를 열어 협회 임원을 조직했다.

법인이사회의하 호칭 생략)는 △이사장=박영률 △상임이사=백근기 △이사=김민섭, 김순찬, 이서연 △감사=윤윤근, 이웅덕, 운영이사회는 유사열 외 26명, 상임고문은 김봉근, 고문은 고훈 외 9명, 자문위원은 유성호 외 13명이다.

임원회는 △대표회장=박영률 △상임회장=백근기 △부회장=고산지, 김명자, 김민섭, 김연수, 박종서, 서성철, 장현일, 조성호 △편협주간=김신영 △사무총장=김순찬 △서기=정호영 △회계(재무국장 겸 직)=사무총장 임시 △수필분과위원장=최숙미 △소설분과위원장=박종규 △평론분과위원장=윤준식 △시조분과위원장=이육규 △아동분과위원장=신건자 △낭송분과위원장=엄경숙 △시분과위원장=이영희 △한국문학세계화추진위원장=김완수 △로봇작가위원장(청소년작문학교실 운영)=김순찬 등이며, 향후 국내 및 전 세계 지부장을 구성해 나갈 예정이다. 기독교문학가협회는 첫 번째 사업으로 오는 5월 30일 영월군 후원 등으로 진행되는 열차영월문학기행을 실시한다. 이지희 기자

파키스탄 10대 기독교 청소년, 신성모독 혐의로 체포

GCR, 박해 받는 파키스탄 청소년 위한 기도 요청

글로벌 크리스천 릴리프(Global Christian Relief, GCR)가 10일 파키스탄 펀자브 지역에서 신성모독 혐의로 박해받는 10대 기독교 청소년의 소식을 전하며 중보기도를 요청했다.

애쉬비(Asheeb Baber Ghouri)는 아톡(Attock)시 다르살람(Darsalam)의 기독교 공동체에 거주하는 12학년으로, 같은 반 친구와 말다툼한 후 신성모독을 했다는 혐의로 고등학교에서 퇴학당했다. 그

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이후 파키스탄의 악명 높은 법에 따라 지난 3월 6일(현지 시간) 집에서 체포됐다.

아톡시 경찰에 제출된 고소장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애쉬비와 그의 무슬림 친구가 애즈얌을 통해 대화를 나누던 중 친구가 애쉬비에게 이슬람교로의 개종을 권유하면서 시작됐다. 토론은 곧 ‘일부다 차지’라는 주제로 바뀌었고, 애쉬비는 기독교에서 하나님은 중혼을 금지하고 일

부다처제를 죄로 간주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무슬림 친구는 그가 이슬람 종교 관습을 폄하하고, 알라가 죄악적인 행동을 허용하는 것을 암시한다고 비난했다.

신성모독 혐의가 제기되자 학교에 이 사실이 통보됐다. 학교 측은 문제를 조사하고 두 학생 사이의 해결을 중재하는 대신, 교관이 즉시 경찰에 연락해 애쉬비에 대한 불만 사항을 접수했다.

애쉬비 가족의 이웃은 애쉬비가 어린 시절부터 이 동급생을 알고 오랫동안 그

를 친구로 여겨왔다고 밝혔다. 또 그 무슬림 동급생이 한때 애쉬비를 좋아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애쉬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을 고수하자, 종교에 대한 솔직한 토론은 그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애쉬비는 임시보석이 허가됐지만, 재판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애쉬비는 특히 사형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폭력을 두려워하고 있다. GCR은 “종교적 극단주의자들이 법체계를 우회하는 사회에서 애쉬비와 같은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은 종종 폭도들의 폭력의 희생자



박해받는 파키스탄 기독교 청소년 애쉬비 ©GCR

지는 직장 동료와 고용주의 조롱과 위협을 받고, 해고당했다. 비슷한 상황에 직면한 애쉬비의 여동생도 고등학교를 그만두어야 했다.

GCR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내몰린 애쉬비 가족을 위한 기도를 요청했다. GCR은 “애쉬비와 그의 가족을 예수님께서 울타리로 보호해주시고, 이웃과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게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박해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애쉬비에게 믿음을 옹호할 용기를 주셔서 감사하다”며 “그가 마태복음 5장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는 말씀을 기억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지희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주

안전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APRI400

미래의 에너지 솔루션
소형모듈원자로 (SMR)

탄소배출 제로
대용량 수소 생산

해외에서 입증된 기술력
원전수출 사업확대

**Energy Up,
Tomorrow**

탄소 배출 없는 청정 에너지로
탄소중립 시대의 새로운 미래를 그려갑니다

이집트 기독교인 “개종자는 사회에서 거부당하고 모든 것 잃어”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 이집트인 변호사가 개종 계기를 밝히고 기독교 개종자들이 이집트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에 대해 전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무사(보안상 이유로 가명)는 전 세계적으로 박해받는 교회를 지원하는 박해감시단체인 글로벌 크리스천 탈리프(GCR)와의 최근 인터뷰에서 자신의 인생 경험을 이야기했다.

그는 무슬림 가정에서 자랐지만 자라면서 가장 가까운 친구 중 다수가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그분의 진리를 알려달라고 간구했으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말했다. 무사는 아내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아내 역시 신자가 되었다. 그러나 직계 가족 외에는 그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으며, 겉으로 보기에 무사는 무슬림이다.

다음은 GCR과 무사의 인터뷰 내용이다.

다.

-이집트에서 무슬림 출신이 직면한 어려움에 대해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나?

무사: “이집트에서 이슬람 개종자들이 직면하는 문제는 국가와 사회 모두에서 발생한다. 어떤 사람이 이슬람에 위배되는 신앙을 선택하면 그 사람은 이교도이자 사회 배교자로 간주되어 크게 불명예를 당하고 거부당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도 적용된다.

그들은 사회로부터 많은 거부 경험을 받고 생명이 위협에 처할 수 있다. 이집트 헌법 40~46조는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는 실제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이슬람 율법이 아닌 정부법의 적용을 받는 시민 국가에서 살아야 한다. 국가는 이슬람을 떠난 사람들을 공식적으로 처벌하지 않지만, 전 무슬림들은 보안군에 의해 추적되고 종교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다.

이슬람교도가 자신의 종교를 바꾸면

신성모독죄로 기소되지만, 이집트 헌법에 명시된 대로 종교를 바꾸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 보안군은 무슬림이 개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그를 위한 보안 파일이 준비되고 그는 마치 범죄자인 것처럼 추방당한다.

우리는 개인적인 신앙을 가질 권리가 있어야 하지만 나는 내 신앙을 알릴 수 없다. 나의 신념이 나를 범죄자로 만들 것인가? 불행하게도 이런 일은 거의 모든 개종자에게 발생하며 수년 동안 계속된다.

개종자들은 사회에서 거부당할 뿐만 아니라 직장을 잃는 경우도 많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고, 죽음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 그의 가족과 친구들은 종종 매우 나쁘게 대한다. 이집트에서는 누구나 기독교에서 이슬람교로 개종하는 것이 매우 쉽고, 개종을 문서화하는 절차는 간단한 국무부 방문이면 된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결혼하기로 결정할 때 어려움에 직면하는가?

무사: “결혼은 개종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다. 기독교인은 다른 기독교인과 결혼하기를 원하지만 많은 콥트 기독교인 가정은 자녀가 무슬림 가정과 결혼하는 것을 주저하거나 거부한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다.

무슬림으로 등록한 기독교인 개종자와 결혼한 사제가 노동교화소에 수감된 사례도 있었다. 무슬림 배경을 가진 신자들이 비밀리에 생활하기 때문에 서로 만나서 결혼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기독교 개종자의 자녀들도 문제와 어려움에 직면하는가?

무사: “개종자의 자녀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들은 학교에서는 무슬림으로 대우를 받지만 집에서는 기독교인으로 성장한다. 이는 아이들에게 심리적 위기를 가져온다.

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아이들을 상담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Pixabay

사에게 데려갔다. 자녀가 학교에서 자신의 가족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 문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압박감을 느낄 수 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기독교 신앙을 비밀로 해야 한다는 것과 다른 신앙을 따르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기본 과목인 이슬람교를 공부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슬람 교리를 공부하지만 집에서는 기독교인이다. 이는 아이에게 가하기 어려운 압력이다.”

-새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이집트에서 설교하는 것이 가능한가?

무사: “이집트는 신앙의 자유와 전도의 권리를 허용하는 국제 인권 협약에 서명했지만 여전히 실제로는 허용되지 않았다. 나는 젊은 기독교인 마나 압델 사예드(Mina Abdel Sayed)를 기억한다. 그는 배달원이었고 개인 핸드백에는 성경이 들어 있었다. 국가안보부는 그를 체포하고 개종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투옥되어 고문을 받아 사망했다. 반면에 모든 사람은 이슬람을 자유롭게 전파할 수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조치가 많이 있다.”

-당신의 생각에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언제 그들의 권리를 얻게 되었는가?

무사: “나는 헌법이 시행되고 어린이들에게 그것의 수용을 가르친다면 개종자들이 권리를 얻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때가 바로 우리가 차별 없이 모두를 위한 평등한 권리를 보게 될 때다. 그러면 종교는 개인의 자유로 간주될 것이며 우리는 자신의 신념을 선택할 권리를 갖게 될 것이다.” 이명경 기자

美 법원 “일리노이 UMC 한인교회 재산 통제권, 연회에 있어”

미국 일리노이에 본부를 둔 연합감리교회(UMC)의 한 지역기관은 교단에서 탈퇴한 단체와 소송을 벌였던 교회 재산에 대한 통제권을 갖게 됐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법원은 네이퍼빌 한인 연합감리교회의 계좌와 재산 소유권에 대한 법적 다툼에서 UMC 북부 일리노이 연회의 손을 들어주었다.

탈퇴한 교회는 네이퍼빌 한인교회로 알려졌으며 최근 몇 년간 동성애에 대한 교단의 입장을 둘러싼 오랜 분열 속에서 UMC에서 탈퇴한 수천 개의 교회 중 일부였다.

해당 연회의 커뮤니케이션 책임자인 빅토리아 레베 목사는 CP와의 인터뷰에서 “사건이 진행 중이지만 현재 건물을 관리하고 있다”며 “북일리노이연회는 이 판결에 감사하며 이 기회를 이용해 네이퍼빌 한인교회 성도들과 지도자들과의 화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레베 목사는 “UMC에 남아 있기를 원했던 네이퍼빌 한인 연합감리교회 성도들이 종려주일부터 이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새로 오신 분들은 물론 오



일리노이주 네이퍼빌 한인감리교회. ©구글 스트리트 뷰 캡처

랫동안 교회에 다니셨던 분들도 모두 환영한다”라고 말했다.

레베 목사는 CP에 최근 연회가 발표한 성명을 전했다. 이 성명에는 판사가 UMC 지역 기구에 유리한 임시 금지 명령을 내렸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UMC 지역 기구는 지난 10월 교회 재산과 자산에 대한 분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2019년 이후 7천6백개가 넘는 UMC 교회가 이 교단을 떠났다. UMC 장정은 동성혼과 독신이 아닌 동성애자의 안수를 금지하고 있지만, 신학적으로 보수적인 교회는 교단 내 진보적인 지도자들이 규칙을 따르거나 집행하기를 거부하는 것에 반대해 왔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탈퇴 과정에서 장애물에 직면하지 않았지만, 다른 교회들은 재산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UMC 지역 기관에 막대한 금액을 지불해야 했다. 전국적으로 수십 개 교회가 UMC 지역기관이 마련한 절차가 불공평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들 교회 중 상당수는 불만사항을 기각했다.

아칸소주의 한 사례에서는 지역 기구가 교회의 불신임 투표를 거부한 후 목회자를 해임했다. 법원은 지난해 8월 1일까지 신도들에게 건물을 비우라고 명령했다. 담임목회자는 UMC에 충성하는 목회자로 교체됐다고 CP는 전했다.

이명경 기자

기시다 총리 “북일간 대화, 지역 평화 및 안정에 기여”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마·일 정상회담 “북한과의 대화 창구 열려 있어...한미와 협력”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0일(현지 시각) 열린 마일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일 간 대화는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 창구가 열려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며 앞으로 이 사안에 대해 미일과 한미일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또 핵·미사일 개발 등 북한 문제와 관련해 3국이 긴밀히 조율하기로 바이든 대통령과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그는 북일 정상회담에 앞서 양국 간 고위급 대화를 통해 일본인 납북자 등 다양한 문제에 협상을 통해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지난 4월 히로네가이

사이신문(닛케이)과의 인터뷰에서 연내 북한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 묻자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서는 “피해자 가족의 고통과 등을 생각할 때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북일 관계에 대해 “현안의 해결은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으로 연결된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상 간 회담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권성근 기자

스위스 “6월 고위급 우크라이나 평화회의 개최” 공식 발표...러 불참

6월 15~16일 이틀간 중부 도시 루체른 인근 호텔에서 열려

스위스가 세계 고위급 인사가 참석하는 우크라이나 평화 회의를 오는 6월 중순 개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고 AFP통신이 10일 보도했다. 러시아는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비올라 암헤르트 스위스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평화 회의가 오는 6월 15-16일 이틀간 스위스 중부

도시 루체른 호수 위에 있는 뷔르겐슈톡 호텔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스위스는 지난 1월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제안에 따라 고위급 우크라이나 평화 회의를 연내 자국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참가국은 80~100개국으로 추정되며 일각에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참

석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스위스 측은 러시아 참여 없이 평화 프로세스 논의는 불가능하다며 초청 의사를 밝혔지만, 러시아 외교부는 공식 초청을 받더라도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이다. 스위스는 수백 년 동안 중립국으로서 위치를 견지해 왔지만,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중립 원칙에서 벗어났다는 비판을 받았다.

권성근 이명동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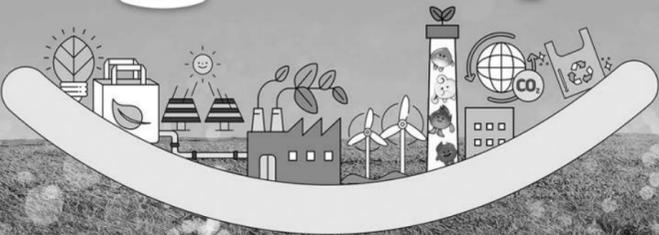


인천환경공단
ENVIRONMENTAL CORPORATION OF INCHON



인천광역시
Incheon Metropolitan City

환경도 도시활 민도 짝





안전 지키GO!
전국 첫 도시침수 예방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자원 다시쓰GO!
공기업 선도 공단
폐기물 자원순환 100% 달성



기후변화 맞서GO!
2030 온실가스 83% 감축,
기후변화 선제 대응



서비스 올리GO!
환경교육 인프라 및
환경 빅데이터 플랫폼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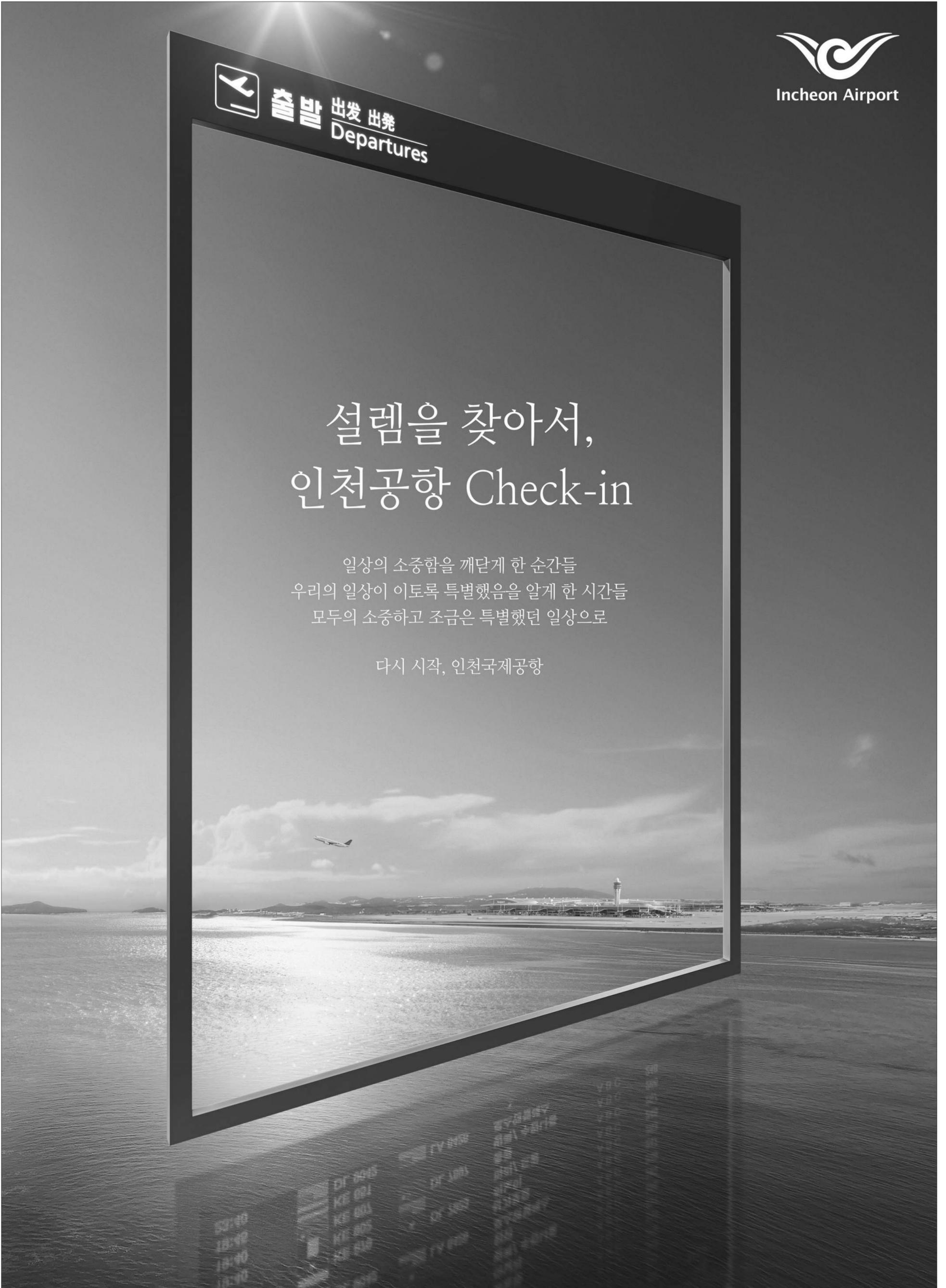


 **출발** 出发 出発
Departures

설렘을 찾아서, 인천공항 Check-in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한 순간들
우리의 일상이 이토록 특별했음을 알게 한 시간들
모두의 소중한 조금은 특별했던 일상으로

다시 시작, 인천국제공항



범야권 190석 육박 '압승'... 국힘은 '참패'

수도권·충청 민주당 '잡았다'... 영남 국민의힘 텃밭 고수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가 11일 오전 10시 30분께 모두 마무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161석을 차지하며 압승을 거뒀고, 비례 14석을 더해 총 175석을 확보했다. 조국혁신당 12석, 진보당 1석을 더하면 범야권은 190석에 육박하는 의석수를 얻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역구 90석, 비례 18석 등 108석에 그쳐 개헌 지지선인 100석을 간신히 넘겼지만 참패를 면치 못했다.

민주당은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강세를 보였다. 수도권 122석 중 102석을 차지했고, 서울에서만 37석을 가져갔다. 경기도에서도 53곳에서 이겨 지난 총선 기록을 경신했다. 충청권 28석 중 21석을 거머쥐었다. 호남권 28석도 모두 수성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영남 대구·경북 25석, 부산·울산·경남 34석 등 영호남 지역 텃밭 의석을 휩쓸었다.

비례의석은 국민의미래 18석, 민주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서 각각 출구조사 결과 발표를 시청하고 있다. ©뉴스시스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당 2석을 비롯해 12석을 얻어 원내 3당이 됐다. 각각 확보했다. 지역구 불참한 조국당은 박용국 기자

윤 대통령 “국민 뜻 겸허히 받들겠다” 인적 쇄신 예고

총리·대통령실 수석 전원 사의... 야당과 소통 나설 것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4월 10일 총선 결과와 관련해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총리와 대통령실 비서실장, 정책실장, 수석비서관 전원이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국가안보실을 제외한 인적 쇄신 조치가 예고됐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국정 쇄신을 위해서는 인적 쇄신이 선행돼

야 한다”며 비서실장 등 수석들이 사의를 밝혔다고 말했다.

범야권이 188석을 확보한 만큼 윤 대통령은 야당과 긴밀한 협력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측은 “중립적인 처리를 위해 야당과 소통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선거 결과가 자신의 국정 수행에 대한 국민 평가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자성의 뜻을 내비쳤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사퇴 의사를 밝혔다. 박용국 기자



이관섭 비서실장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4.10 총선 결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시스

한동훈 “선거 책임지고 비대위원장직 물러난다”

“국민께 사과... 정치개혁 실천할 것”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상대책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기에 부족했던 우리 당을 대표해 국민께 사과드립니다”며 “국민의 뜻을 존엄히 받

아들이고 저부터 깊이 반성한다”고 했다. 그는 당선자들에게 “국민의 뜻에 맞는 정치를 부탁드린다”며 당원과 낙선 후보들에게도 위로와 감사의 말을 전했다.

한 위원장은 “정치개혁 약속이 중단 없이 실현되길 바란다”며 “어떻게 하면 국민 사랑을 되찾을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행보에 대해서는 “특별한 계획 없이 나라 걱정하며 살겠다”고 말해 정계 은퇴 시사와 달리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총선 패배 원인에 대해선 “국민 마음 얻지 못한 것”이라며 “그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비대위원들의 사퇴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그분들 의사를 강요할 문제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용국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22대 총선 관련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시스

이재명 “민주당 승리 아닌 국민의 승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제12차 합동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겸 선대위 해단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시스

“민생경제 위기 해소에 온힘... 정부와 대화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제22대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국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선대위 해단식에서 “국민의 한 표 한 표에 담긴 소중한 뜻을 전력을 다해 받들겠다”며 “국민의 오늘을 지키고 내일을 여는 데 22대 국회가 앞장

서야 한다”고 다짐했다. 당선자들에게는 “낮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이해찬 상임공동선대위원장도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되새겼다”며 “도취하거나 오만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위원장은 “민주당이 정신 똑바로 차려 윤석열 정부의 국정 방향을 바

로잡아야 한다”며 정부와 대화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여야 모두 민생경제 위기 해소에 온힘을 모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민생정치로 국민에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과 소통하고 야당과 대화하는 정부가 되라는 게 총선 민의”라며 “대화정치 복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용국 기자

자유통일당, 제22대 총선 비례대표 국회의원 배출 실패

기독교 정당임을 표방하며 지역 원내 진출을 꿈꿨던 자유통일당이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다 국회의원 배출하는 데 실패했다.

자유통일당은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에서 국회 의석 배분의 최소 기준인 3%를 넘지 못했다. 총선 전 한 여론조사에서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 5.9%를 기록하며 기대감을 높였으나 끝내 꿈을 이루지 못했다. 지난 제18대 443,775표(2.59%), 제19대 257,190표(1.20%), 제20대 626,853표(2.63%), 제21대 513,159표(1.83%)를 각각 기록했다.

석동현 당 총괄선대위원장은 11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총선을 앞두고 최근 여러차례의 여론조사에서 나왔던 결과와는 달리 실제 투표에서는 지지 부족으로 원내정당화의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2년 전 윤석열 대통령 정부를 탄생시킬 때 누구보다 기여했다는 자부



자유통일당 관계자들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출구조사 결과 발표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뉴스시스

심과 향후 야권의 견제로부터 윤 정부를 지켜내겠다는 책임 의식은 어떤 정당에도 두지지 않으나 원내정당이 되기 위한 국민적 신임을 받기에는 아직 여러 면에서 부족했음을 자인한다”고 했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저희 자유통일당을 믿고 지지해주신 분들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당은 더욱 분발 노력하여 소기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조국 대표 상고심 ‘대법원 3부’ 배당...엄상필 대법관 주심

자녀 입사비리 등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상고심이 대법원 3부에 배당됐다.

11일 대법원은 조 대표 사건의 상고심을 3부에 배정했다고 밝혔다. 3부 주심은 엄상필 대법관이 맡게 됐다. 엄 대법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정경진 전

동양대 교수의 입사비리 사건 2심 재판장을 맡아 유죄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또 다른 재판부 구성원인 이흥구 대법관은 조 대표와 서울대 법대 동기 사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 대법관은 2020년 청문회에서 “조 전 장관과 친분 관계여서 회피 사유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

다.

향후 엄 대법관이나 이 대법관이 회피 또는 조 대표 측에서 기피 신청을 할 경우 다른 재판부로 배당될 수 있다.

한편 제22대 총선 결과 조국혁신당은 24.25% 득표율로 비례대표 12석을 얻어 원내 3당이 됐다. 박용국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뉴스시스

프리미어리그 아시아 선수 최초 골든부츠(득점왕) 수상 **손흥민**

안티푸라민
쿨에어파스 에어로솔 의약외품

대한민국이 당신과 함께 달리겠습니다.

유한양행

美아이다호, '트랜스 대명사 사용 거부' 보호법 통과

미국 아이다호 주지사 브래드 리틀(Brad Little)이 학생의 트랜스젠더 성 정체성이 아닌, 생물학적 성별의 이름과 대명사로 호칭했다는 이유로 공립학교 교직원에게 해고되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인 리틀은 지난 8일 하원 법안 538호에 서명했다. 이 법은 '아이다호 주 내에서 어떤 정부 기관도 해당 시민이 거짓이라고 믿는 진술을 전달하도록 강요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법안은 지난주 공화당이 절대적인 다수를 차지하는 아이다호 주 하원에서 58 대 11로, 상원에서는 25 대 9로 통과되었다. 양원 모두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이 이 법안에 반대했으며, 2명의 공화

당 상원 의원만이 민주당과 함께 반대했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 법안은 아이다호 주의 어떤 정부 기관도 공무원 또는 공립학교 학생에게 생물학적 성별과 일치하지 않는, 선호하는 개인 이름 및 대명사로 지칭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법안은 "정부 직원은 해당 직원의 업무 범위와 관계없이, 트랜스젠더로 식별되는 개인을 그들의 선호하는 대명사 및 생물학적 성별과 다른 이름으로 지칭하는 것을 거부하더라도, 고용상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않을 것을 공언한다."

이 법안의 보호는 공립학교 및 공공 고등 교육기관의 직원에게도 적용된다. 해당 교육 기관의 학생들은 생물학적 성별

과 일치하지 않는 이름과 대명사로 사람들을 호칭하는 것을 거부해도, 불리한 징계 조치로부터 보호받는다.

이 조치는 공립학교 직원이 "미성년자 학생의 부모나 보호자의 서면 허락 없이, 학생의 법적 이름이나 파생어가 아닌 다른 이름 또는 학생의 성별과 일치하지 않는 호칭이나 대명사로 고의적으로 호칭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한, 트랜스젠더로 식별된 개인을 그들이 선호하는 이름과 대명사로 호칭하는 것을 거부하여 불이익을 받은 사람들은 "가처분 구제를 위한 개인 소송권"이 제공되며, 위반 사건 발생 후 2년 이내에 법적 구제를 요청해야 한다.

미국 내 일부 교사들은 트랜스젠더 학생을 그들의 선호하는 이름과 대명사로

호칭하는 것을 거부한 결과, 불이익과 징계 조치를 받고 있다. 캔자스 주의 중학교 수학 교사인 파멜라 리카드(Pamela Ricard)는 트랜스젠더로 식별된 여학생을 여성 대명사로 불렀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

징계 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리카드는 "인간과 생물학적 성에 대한 전통적인 기독교 및 성경적 이해와 일치하는, 신실한 종교적 믿음을 가진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확인되었다.

버지니아 주에서는 프랑스어 교사 피터 블라밍(Peter Vlaming)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트랜스젠더로 식별된 여학생에게 남성 이름과 대명사로 호칭하는 것을 거부하여 해고되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학생들이 트랜스젠더로 식별된 교사



2023년 1월 31일, 브래드 리틀 아이다호 주지사가 2월을 '아이다호 심장의 달'로 기념하는 선언문에 서명 후 지지자들과 기념촬영을 가졌다. ©브래드 리틀 페이스북

를 잘못된 성별로 호칭했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 유진 김 기자

미국인 대다수, 하마스 배제된 '이-팔 평화협정' 지지

미국인들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평화협정에 대한 지지가 하마스가 자치정부에 개입할 경우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미디어 전략 기관인 '기드온 300'(Gideon300)은 지난주 스포츠 에머슨이 이끄는 RMG 리서치(RMG Research)와 함께 여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3월 11일부터 3월 12일까지 온라인에 등록된 미국인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미국 유권자의 55%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간의 평화 협정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요르단강 서안 지구의 일부를 통제하며, 2007년 하마스가 장악하기 전까지 가자 지구를 통치했다.

조사 후반에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하마스와 통합 정부를 구성하고, 그들에게 돈을 지불하며, 하마스 테러리스트를 위한 내각 직위를 포함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평화 협정을 지지할지 여부를 물었다. 또한 작년 10월 7일에 하마스가 감행한 이스라엘 기습 공격에 동조하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지지자의 비율이 82%임을 감안할 때 이 협정을 지지하는지 물었다.

이 질문에 미국 유권자의 적은 수(30%)가 평화 협정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이 조사는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과 평화 협정을 요구



하마스에 인질로 잡힌 이스라엘인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시위자들의 모습. ©Levi Meir Clancy / Unsplash

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2023년 10월 7일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여러 차례 공격하여 미국인 31명을 포함한 최소 1200여 명의 민간인을 학살하고 약 240명 이상을 납치했다. 이에 대응하여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지배 및 군사 능력을 파괴하기 위해 가자 지구에 대규모 공세를 벌였다.

지난달 모스크바에서는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등 정파 간의 통합을 논의하는 회담이 열렸다. 이스라엘

타임스에 따르면, 당시 팔레스타인 정파들이 발표한 성명서에는 그들이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alestine Liberation Organization, PLO)의 휘하로 결집되기 위한 회담이 곧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드온300의 회장 매튜 파라치는 CP와의 인터뷰에서 설문조사에 참여한 민주당 유권자들 사이에서 큰 변화가 나타났다고 전했다.

민주당 유권자 중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간의 평화협정을 지지한 비율은 하마스가 자치정부에서 잠재적

대 대표가 될 경우를 고려할 때 73%에서 43%로 급격히 감소했다.

유대인인 파라치는 CP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셀 수 없이 많은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내 경력 동안 참여한 모든 조사에서 특정 주제에 대해 30%의 차이가 나는 설문조사를 본 적이 없다"며 "테러리스트나 테러 지지자들과의 평화협정은 있을 수 없다. 그러한 단체와는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화당 유권자는 38%가 처음에 평화협정을 지지했지만,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간의 통합 가능성을 전제하자 19%만이 이 협정을 지지했다.

무소속 유권자의 경우 처음에는 47%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간의 평화협정을 지지했으나, 자치정부와 하마스의 관계를 알게 된 후 그 비율은 28%로 줄어 들었다.

지난달 갤럽(Gallup)이 발표한 별도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응답자의 55%가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에 반대했는데 이는 11월의 45%보다 증가한 수치이다. 그중에서도 민주당원은 75%가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에 반대했다.

무소속 지지자 중 60%가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공습에 반대했지만, 대부분의 공화당원들은 이스라엘을 지지했다. 갤럽 조사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을 지지하는 공화당원의 비율은 71%에서 64%로 감소했다. 유진 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낙태 반대에서 한 걸음 후퇴

"애리조나 160년 낙태 금지법은 지나치다" 비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임신중절(낙태) 문제에 대해 온건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는 지난 8일 전 국적 낙태 금지에서 한발 물러선 데 이어, 160년 된 애리조나주의 낙태 금지법이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0일 조지아 애틀랜타에서 1864년 애리조나 낙태 금지법 부활이 지나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해당 법은 모체 생명 위험 외에는 모든 낙태를 금지하고, 강간과 근친상간도 예외가 아니다.

그는 "이 문제는 바로잡힐 것"이라며 "이는 전적으로 주 차원의 권리"라고

말했다. 애리조나 주지사 등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과거 프로라이프(낙태 반대)를 자처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후보 시절 낙태 여성 처벌론으로 논란을 빚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당초 15주 기준 낙태 제한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며 전국적 금지에는 선을 그었다. 이는 다가오는 대선 승리를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보인다.

여성 표심이 영향을 미치는 대선에서 극단적 낙태 반대 기조를 견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나래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각) 산모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주수에서의 임신중절(낙태)을 금지하는 애리조나 법을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사진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8일(현지시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임신중절 관련 입장을 발표하는 모습. ©트럼프 트루스소셜 캡처

2024 녹색·에너지 대박

REVOTECH
REVOLUTIONARY TECHNOLOGY

정부·기업·민간의 협력을 통한
자원재활용 및 친환경 공공열분해 선순환

● 재생자원(합성수지류)을 에너지로!

국내 최초 38.4톤 친환경 연속식 열분해 성공

2019년 | 연속식 열분해기술 개발 및 전 공정 자동화로 24시간 연속운전 성공

2023년 | 국내 최초 단일기기 1일 38.4톤 친환경 연속식 열분해 성공

2024년 | 친환경 연속식 열분해설비 설치검사 합격(한국산업기술시험원)

경상북도 문경시 마성면 가은로 311-43 | www.revogreenpia.kr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본문: 출애굽기 3:5-10
설교: 삼척제일교회 박신진 목사

지난 주일을 올해 부활절로 지키고, 우리는 4월을 신생의 달로 지키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사는 우리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부활의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내 안에 예수가 있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 부활 생명으로 저절로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성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이 된다고 하신다. 부활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평화가 선포되고 복음이 전해진다.

오늘은 특별히 전도자정주일로 지키는 날이다. 오늘부터 교회 창립일인 5월 셋째주일까지 여섯 주간을 집중전도기간으로 정하고 선포식을 거행한다. 우리가 전도하기를 외면한다면, 그들은 자기의 죄 때문에 멸망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을 구하지 못한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실 것이다. "네가 전도하여 구원해 내었어야 하는데, 왜 너만 예수 믿고 그를 그냥 두었느냐?" 그때 우리가 무엇으로 변명하며 핑계할 말을 찾겠는가!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지금도 구원받는 자를 얻으시려고 우리를 부르고 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장면을 읽었다. 모세는 원래 이집트의 공주의 수양아들로 자랐다. 정통 왕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왕자의 신분이었다. 바로의 왕궁에서 이집트 왕자로 있던 모세가 그곳을 떠나 광야로 와서 40년을 산다. 매일 성실하게 양들을 키우며 이드로라는 미디안족 속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여 광야생활을 했다. 어느 날 광야에 떨기나무가 있는데 불이 붙었다. 이스라엘 나라는 메마른 광야가 많다. 들판에서 어찌다가 나무에 불이 붙은 것이 아니었다. 불이 타 오르면 얼마 타다가 사그라들 텐데, 모세가 본 떨기나무 불꽃은 사라지지 않고 그냥 타올랐다. 신비한 불꽃이다.

그러자 모세가 '내가 들어가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였다. 정말 희한하다. 어떻게 불이 일어나는데 타버리지 않는가? 그 '타오르는 떨기나무'가 있는 곳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땅'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대답하자 그때 이런 말씀이 들려온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도록 사명을 맡기셨다.

모세가 서 있는 광야의 땅이 거룩한 곳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있는가? 내가 서있는 곳은 어떤 곳인가, 오늘 그런 문

제를 생각해보며 여러분을 돌아보라. 몸만 교회에 와있을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와있어야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모세처럼 거룩한 사람이 되고 삶이 변화될 것이다. 우리가 서야 할 곳은 어디일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있나? 한국에 삼척에, 이런 것 말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라. '말세, 나는 그런 것 생각해보지 않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생각해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사람은 어디에 서 있느냐가 중요하고, 어디에 서있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삼척사람이 되고 싶다면 삼척에 있어야 한다. 우리가 미국 사람이 되고 싶다면 미국으로 가야 한다. 이처럼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리 모두는 지금 교회에 있다. '네가 서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예배하는 곳

먼저 우리가 서야할 곳은 예배하는 곳이다. 모세가 불꽃이 타오르는 떨기나무를 만난 곳은 성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예배처소이다.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 믿음이 자라는 곳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풍성한 곳이며, 하늘 뜻을 이루려는 사명을 실천하는 곳이다. 작은 불씨가 큰불을 일으키듯이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에서 거룩한 일이 시작된다. 바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다. 남의 손에 이끌려 교회에 나온다. 처음에는 그냥 구경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예배 자리에 서는 것과 예배 밖에 있는 것은 아주 다르다. 여러분은 교회로 나왔다. 돈을 숭배하는 배금주의와 향락에 몸과 마음이 찌들고 향락중독으로 사람들의 생활이 병들어 있다. 교회 안에 있어야만 유혹을 물리치고 고상한 삶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

우리는 교회에 서있어야 한다. 교회는 복음이 선포되는 곳, 성령이 사행되는 곳,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다. 주님이 113년 전에 삼척제일교회를 죽서루 옆에 세워 하나님 뜻을 이루도록 하셨다. 교회는 하나님 사랑의 공성이다. 말과 글과 노래 안에 그토록 흔해빠진 사람이 실제로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교회의 역사는 사랑의 역사다. 사랑은 온유하며 이해하는 마음이며 자기를 내어주는 태도이다. 그리스도는 다함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까지 지셨으며, 그 사랑으로 오늘도 예배 중에 우리를 찾아오신다. 물론 보이는 교회는 완전하지 않다. 부족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랑을 향하여 가는 공동체임은 분명하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에 머물러 있다면 거룩과 사랑의 사람이 될 것이다.

사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말씀이 있다. 그렇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복이 있다.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겠는가? 바로 예배가 드려지는 곳에 머물러 있으면 된다. 주일이면 꼭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라 나오는 거다.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이루시려는 모든 좋은 것을 실천하는 거룩한 기관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예배를 드리며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



그때 하늘 뜻을 이루는 거룩하고 고상한 인생이 될 것이다.

가야대쟁기구의 부활절 캠페인을 보니 탄자니아 잔지바르란 곳의 어떤 마을의 무진 교회로 세우자는 광고가 나와있었다. 이 곳은 97%가 무슬림인 곳인데,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난한 교회이지만 교회가 유일한 희망이 되었는데, 교회가 무너졌으니 교회를 지어주어 그들에게 희망을 주자는 것이었다. 이처럼 우리는 예배자리에 우리의 발이 이르기를 소망한다. 교회다운 교회, 복음이 충만한 예배가 드려지는 참된 교회를 사람들은 사모하고 있다. 예배드리는 곳에 항상 머물러 있기를 축복한다. 우리가 있는 곳이 예배드리는 곳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럴 때 예수의 생령, 예수의 축복, 예수의 기쁨이 우리에게 머물 수 있을 것이다.

◆믿는 무리들이 있는 곳

또한 우리가 서있어야 할 곳은 믿는 무리들 사이이다. 그 사람을 알려면 친구를 보면 된다. 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요소이다.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여러분은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 말 한 마디라도 긍정적으로 할 줄 아는 소망의 사람들,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 사이에 서 있어야 한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여러분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람이 될 것이다. 우리 주위에 늘 남을 원망하고 불평불만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부정적인 사람 몇이 있다면 사랑으로 잘 달래주고 인도하라. 그런데 매일 그런 불평불만만 들린다면, 여러분이 그 자리를 떠나야 한다. 구원이 소식이 전해지고 사랑이 실천되는, 믿는 무리와 함께 여러분이 서있기를 바란다.

바울은 오늘의 교회를 있게 한 가장 위대한 사도이다. 그러나 그에게 함께 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없었다면 바울의 역사는 생각할 수도 없다. 대표적인 젊은 동역자가 디도다. 디도는 사도 바울이 전도하여 제자로 삼은 헬라인이자 바울의 제자다(고후 8:23).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신학적 문제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

바울과 함께 파송될 때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 성도로서 예루살렘 종교회의에 참석했으며(행 15:2),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로 조력자로 바울을 대신하여 고린도를 방문하여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였고, 마케도나에서 사역 중이던 바울에게 기쁜 소식을 가져다 주었다(고후 7:5-6). 그후 디도는 지중해상의 큰 섬 그레데 교회에서 감독으로 지냈으며(딤후 1:5), 바울이 급하게 자신이 있는 니고볼리로 올 것을 요청받기도 하였다(딤후 3:12). 그리고 바울의 당부로 달마디아(오늘날의 유고슬라비아)에서 복음 사역을 하였다(딤후 4:10). 항상 바울이 디도 곁에, 디도가 바울 옆에 있음으로써 순교자가 되기까지 위대한 사역자의 길을 갈 수 있었다.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하는가? 믿음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기 바란다. 삼척제일교회의 믿는 무리들과 항상 함께 하면 틀림이 없을 것이다. 믿음의 모인에서 이탈하거나 탈락하지 말라. 속회 모임, 선교회 모임에 빠지지 말라. 믿는 무리들과 함께 할 때 우리도 바르게 갈 수 있고,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넘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선을 행하는 곳

또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선을 행하는 곳에 있어야 한다. 어려운 이웃과 소외된 사람을 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우리는 세속의 더러운 거리와 죄를 꾸미고 저지르는 자리에만 있지 말고 선을 행하는 곳에 있어야 한다. 선을 행할수록 더욱 강해지고 사랑은 나눌수록 더욱 풍성해진다.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선을 행하는 곳에 서있어야 한다.

'나 다니엘 블레이크'란 영국 영화가 있다. 요즘 같은 복지사회에 영국에서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희생당하면서도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한 목수의 이야기다. 다니엘은 자병인 심장병으로 더 이상 일을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아쩔 수 없이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었는데, 그를 심사하는 사람이 의사가 진단서를 떼어주었는데도 실업급여 발급 심사에서 떨어뜨린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두 아이의 싱글맘인 케이트를 만나게 되고 그 집

의 어려움을 도와준다. 케이트의 딸 데이지가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인상적이다. "우릴 도와주셨죠? 저도 돕고 싶어요." 결국 다니엘은 복지신청 재판 승소를 바로 앞두고 화장실에서 심장마비 증세로 숨지고 만다. 선진국의 복지제도 속에서도 비극적인 일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도 선을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따뜻한 이야기이다.

2년 전에 우리교회는 삼척노인복지관을 위탁받아 관장이 운영하고 있다. 이런 기관을 통해 삼척의 노인들과 가까이 하는 것이 정말 귀한 일이라 생각된다. 우리는 이들의 옆에 서있어야 한다. 교회는 선을 행하는 이들과 함께 해야 한다. 그들이 홀로 있지 않아도 된다고 그들을 손잡아 주어야 한다. 선을 행하는 곳, 사랑을 이루는 곳, 그리하여 우리 사는 곳의 냉기를 몰아내고 따뜻하게 세워주는 곳에 우리가 함께 서 있어야 한다. 교회는 사랑의 얼굴로 나타날 때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되찾게 된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 선이 행해지는 곳에 있어야 한다. 초대 예루살렘교회가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가장 전도가 잘 되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행 2:47) 독일 신학자 본회파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과 사람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기도하는 사람은 또한 바르게 사는 사람이다. 우리가 바르게 살며 선을 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설 때,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거룩한 땅, 구별된 성소, 이 교회에 와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 거룩한 백성이라 불릴 것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세상으로 파송된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우리가 서야 할 곳은 예배드리는 곳이고, 믿는 무리들 사이요, 선을 행하는 곳이다. 이제 거룩한 교회에 서셨으니, 이 자리를 떠나지 말고 지키시어 진짜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바란다.

또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사실은, 거룩한 곳에 서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다른 이들을 이곳, 거룩한 곳으로 데리고 와야 한다는 것이다! 광야의 거칠고 험한 시대를 사는 그 사람들을 거룩한 하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그들도 예배드리는 곳, 믿는 무리들과 함께 하는 곳, 선을 행하는 곳으로 불러와야 한다. 오늘 집중전도 선포주일로 우리가 지키는 뜻은, 포로생활에 지쳐가는 히브리민족에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했던 모세를 기억하려는 것이다.

떨기나무 불꽃을 바라보며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는 말씀대로, 부르시는 하나님께 응답하여 먼저 거룩한 땅에서 은혜를 받은 다음에, 담대히 애굽으로 달려가라! 모세처럼 동족을 일깨워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가라! 그리하여 온 세상을 예배드리는 자리, 믿는 무리들 사이, 선을 행하는 곳, 그 거룩한 땅으로 불러내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축복한다!

기회를 '캠'

가치를 '캠'

가능성을 '캠'

대한민국 희망을 캠 '캠코'

부채로 힘든 서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위기에 빠진 기업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국민이 국가자산을 누릴 수 있도록
언제나 당신편에 서서 **대한민국 자산**
희망으로 바꾸는 일, 캠코가 하고 있습니다

국민에 안정을, 기업에 활력을, 국가자산에 가치를 더하는 리딩플랫폼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태로운 기업의 기회를
•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 소상공인 자영업자 매출발급금

침재된 국가자산의 가치를
• 유류 지형권 국유재산 관리
• 노후 국공유재산 개발 • OnBid (온비드)

재기를 꿈꾸는 기업의 가능성을
• 기업구조조정펀드 • 중소기업금융
• 기업구조조정지원센터(기업)

금융위원회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www.kamco.or.kr 문의 1588-3570

역사 종말에 관한 예수의 가르침(3)



김명호 교수
기독교학술원장
송실대 명예교수

역사적 예수 논구 시리즈

III. 목시목적 세상 종말 - 인자의 강림(降臨)
나사렛 예수는 다가올 세상 종말에 관하여 예언적인 두 가지 특징적인 언급을 하신다. 종말은 우주의 재난을 동반하며, 재림하시는 예수는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이다.

1. 우주적 재난
첫째, 세상 종말은 우주적 재난과 더불어 올 것이다. 마가는 예수의 말씀을 다음같이 전해준다: “그 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막 13:24-25). 누가는 다음같이 기록하고 있다: “일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이 세상에 압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 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눅 21:25-26). 마태도 다음같이 기록하고 있다: “그 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마 24:29).
예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께서 예언하신 종말에 일어날 우주적 재난을 설명하고 있으며,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하여 예언하고 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 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결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 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여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나 거룩한 행실과 경건 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 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라, 우리는 그의 약속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 도다(벧후 3:10-13). 종말이 올 때에 “하늘이 큰 소 리로 떠나가고”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결이 뜨 거운 불에 풀여지는” 우주적 재난을 동반하면서 약속하신 의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종말 때 일어나는 우주적 재난 은 불신자들에게는 재앙과 절망이 되나 주의 강 립을 고대하는 신자들에게는 약속의 성취요, 하나 님의 의가 드러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약속이 실 현되는 소망의 때가 된다.
2. 구름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신다
둘째, 예수는 자신을 “인자”(ὁ υἱός τοῦ ἀνθρώπου, the Son of Man)와 동일시 하신다.
예수를 지칭한 “인자”(ὁ υἱός τοῦ ἀνθρώπου, The Son of Man) 칭호는 공관복음에 69회 나오고, 요 한복음에 13회 나온다. 동일맥락이나 문절에 반 복된 것을 피하면 공관복음의 총계 69회가 39회 가 된다. 여기에 요한복음의 것을 추가하면, 예수는 자기를 가리켜 59회나 “인자”라고 하였다(J. Jeremias, New Testament Theology,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 1971, 259f.). 독일 신약 학자 볼트만과 그를 추종하는 양식비평 학자들은 “인자” 칭호란 후에 초대교회 공동체가 창작 한 표현이라고 보았다(R. Bultmann, The History of the Synoptic Tradition, New York: Harper & Row, 1963.). 이들은 예수의 “인자” 문장 중에서 심 히 중요한 인자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언급이 있다. 볼트만은 인자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언

급이 있는(막 8:31; 막 9:31; 막 10:33 이하) 본문 의 신빙성을 전적으로 부인하여, 예수의 예언이 아 니라 초대교회에 예수의 고난과 죽음을 예언형 식으로 기록한 것이라고 해석한다(R. Bultmann, Theology of the New Testament, Vol. I. New York: Scribner's 1952, 29ff.).
볼트만 전통을 이어받은 포스트볼트만 신약 학자 본캄은 약간 온건하게 말한다: “예수가 자 기에게 닥쳐올 고난과 죽음을 알고 있었다고 하 는 것은 의심할 바 없으나 이러한 상세한 지식은 예수의 말씀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상세한 지식은 사건이 발생한 후의 지식이어야 한다”(G. Bornkamm, Jesus of Nazareth, 229).
이러한 양식비평학자들의 견해는 성경론적 이 해를 도외시하고 있다. 성경론적 이해에 의하면 역 사적 예수는 성령을 통하여 자신에게 다가올 십 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미리 예견하셨다는 것이 다. 예수가 “인자” 칭호를 사용하실 때 그는 구약 의 예언자 다니엘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한 성경 의 전통에 서 있었다. 다시 말하여 본문은 다음이 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와서 옛적 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아와 그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로 그를 섬기게 하셨 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율기 아니할 것이 요 그 나라는 폐하지 아니할 것이니라”(단 7:13-4). 예수는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중에 하나가 다니엘 7:13 이하이다.
역사적 예수는 다니엘서의 이 구절이 자신에게 성취될 것으로 해석하였다. 예수의 인자(人子) 사상은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경이는 예수의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와 치유사역에서 현재에 일어나고 있다.
필자는 독일 신약학자 예레미야스의 다음 견해

가 가장 성경적이라고 평가한다. “처음부터 이 칭 호는 예수의 말씀전승에 존재한다. 그러므로 결과 적으로 아무도 그 원초성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다. 이 인자 칭호가 목시문학적인 인자 맥락이라고 하면 본질적으로 예수 자신에게로 소급하여야 한 다.”(Joachim Jeremias, New Theology Theology, 266f.) 인자는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신 다. 마가는 예수의 말씀을 다음같이 기록하고 있 다: “그 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 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 때에 그 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 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막 13:26-27). 누가는 다음같이 전한다: “그 때에 사람 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 는 것을 보리라”(눅 21:27). 구름타고 능력과 영광 가운데 오시는 인자는 바로 나사렛 예수 자신이 다. 이러한 목시목적 인자상은 나사렛 예수의 현재 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적 종말론적 모습이다.
마태는 그의 복음서 24장에 인자(人子)의 강림 에 대한 예수의 말씀을 다음같이 기록하고 있다: “그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때 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 리라. 그가 큰 나팔소리와 능력천사들을 보내리 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마 24:30-31). 마태는 25장에도 세계 심판에 관한 예수의 말씀을 다음 같이 기록하고 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 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쪽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그들은 영벌 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마 25: 31-46).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인자는 역사를 종결시키는 심판자이다. 이러한 인자(人子)상(像)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기대되었던 하나님의 왕국을 회복시키는 메시아상(像)이다. 그러나 이러한 목시목적 인자상은 역사적 예수의 모습과는 다르다. 나사렛 예수가 가졌던 인자상은 고난받는 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는 종말론 적으로 오실 인자는 바로 자신임을 말하고 있다.
나사렛 예수는 체포되어 산헤드린의 공의회에 심문을 당할 때 자신에 대하여 고백하는 사람들 에 대하여 침묵하시는 예수에게 대제사장은 예수 자신의 증거를 제시하기를 요구한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기를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 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마 26:63). 이에 대하여 예수는 앞으로 인자로 재림할 자신의 영광 스러운 모습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예수께서 이 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 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 라 하시니라”(마 26:64). 예수의 이 증거에 대하여 대 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으며 신성모독이라고 말하 며 사형에 해당하다고 말하면서 예수의 얼굴에 침 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렸다.
예수 당시에는 비통과 고통의 표시로서 옷을 찢 는 것(마 26:65)은 일종의 관습이요 의식이었다. 재 판관들이 재판 진행 중에 신성모독의 말을 청취해 야 하거나 어떤 사람을 신성 모독죄로 판정을 내 렸을 때에 그들은 자기들의 옷을 찢었다(마태복 음 26장 62절-68절 해설, 해설 관주 성경전서, 독 일성서공회판, 68). 그러나 예수가 증언에서 언급하 신 종말의 때 인자의 영광으로 오시는 그의 강림 은 고난의 종으로 오신 초림(初臨)의 자신이 진실 로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드러낼 것을 시사한 것이 다. <계속>

영적·인격적·기술적 자질



정태희 목사
DCMi 선교회 대표

정태희 목사의 삶과 리더십

40여 년을 성공적으로 사역하시고 은퇴하신 교 단의 대신배 한 분과 아침식사를 함께하면서 목회 자가 꼭 가져야 할 리더십 자질이 무엇인가고 여 췌어 본 적이 있다. 이어받은 조금의 주저함도 없 이 자신의 40년 성역을 통해 갖게 된 확신을 토로 해주셨다. 이분에 의하면 좋은 목회자가 되기 위 해 리더십을 개발해야 할 영역은 영적, 인격적, 기

술적 영역의 세 분야이다.
영적 영역에서 목회자가 꼭 개발해야 할 자질은 말씀과 기도에 탁월해지는 것이다. 말씀과 기도가 개발되지 않으면 절대로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없 으며 되어서도 안된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 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라”(행 6:4).
어르신은 신세대 목회자들이 미리 만들어진 설 교 아우트라이나나 설교-예화자료 등의 소프트웨 어를 활용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붙 잡고 씌름하기보다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개탄하셨다. 이런 자료들을 능수 능란하게 다루는 능력이 절대 말씀과 기도를 대치 할 수 없다. 영적 리더로서 목회자의 권위는 말씀 과 기도에 탁월하게 세워질 때만 주어진다.
인격적 영역에서 목회자가 꼭 개발하여야 할 자 질은 겸손과 분노를 다스리는 능력이다. “하나님

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를 주시느니라”(약 4:5) 겸손함과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목회자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 한 인격적 자질로 제시하는 이 논리는 흥미롭다.
자신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이 갖추어 야 할 인격적 자질들 중 두 가지를 실패할 경우만 마귀에게 기회를 준다고 성경이 말한다는 것이다. 약 4장 7절을 여는 “그런즉”이라는 접속사는 7절과 6절이 논리적으로 연결되었음을 보여준다. 7절은 이렇게 말한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 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라” 하나님의 사람은 겸손을 통해 마귀와 싸운다. 약 4 장 27절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 비록 분노했다 할지 라도 해가 자기 전까지 분을 쏟아버리지 못한다면 이를 통해 마귀가 틈탄다고 말하고 있다. 기도만 이 마귀와 싸우는 방법이 아니다. 겸손과 감정 통제

능력은 마귀와 싸우는 주요 방편이다.
기술적 영역에서 목회자가 개발하여야 할 능력 은 행정능력이다. 침례교회의 목회자라면 신약성 사에서 목사, 장로, 감독이라는 표현이 상호 호환 적으로 사용되고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런데 여 기 ‘감독’이라는 표현은 목사가 무엇을 감독해야 한다는 것인가? 그것은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 아가고 있으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목사가 감독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 어른은 강조하셨다.
한국 교회에서 언급되는 금언 중 하나인 “목사 님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시고 교회 운영과 재정 관리는 교인 대표에게 맡기십시오”라는 말을 문자 그대로 실천한다면 목사는 ‘감독’의 직무를 심각 하게 유기하는 것이라고 이분은 강조하셨다. 재정 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처럼 교회가 나아가는 방

향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없다. 효과적인 행 정 없이 효과적인 사역과 운영은 없다.
목사는 재정 문제를 포함한 교회 운영의 모든 분야를 감독하여야 한다. 이 책무를 탁월하게 감 당하려면 목사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능력 은 ‘행정력’이다. 행정을 하되 ‘비둘기 같이 순결하 고 뱀 같이 지혜롭게’ 해야 한다. 행정력을 개발하 지 못한다면 영적 지도자로 세워질 수 없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필자는 오래전 들었던 교 회성장학의 대가 피터 와그너 박사의 강의가 떠올 랐다. 그는 세계 최대의 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 회를 언급하면서 조용기목사가 세계 최대의 교회 를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설교 능력이나 신유 사 역이 아닌 행정력에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 교단의 자랑스러운 원로와 대화하다가 받아 적은 목회와 리더십의 지혜가 냅킨 3장을 가득 채웠다.

SAMJIN 삼진제약

발열

인후통

몸살

근육통

해열 진통제 상비약 걱정 끝!

게보린[®]쿨다운정

30정

광고심의필: 2022-1618-003300

상품 및 구입문의: 080-082-1234 (수신자 부담)

[성분 및 함량] 아세트아미노펜 400mg + 벤조피타민 8mg + 리보플라빈 4mg + 아스코르브산 100mg [효능 및 효과] 1. 두통, 치통, 발치 후 통증(통증), 인후통, 귀의 통증, 관절통, 신경통, 요통, 근육통, 건통(아깨결림), 타박상, 골절통, 염좌통(뱀뱀통), 월경통(생리통), 외상통의 진통 2. 오한, 발열시의 해열 [용법 및 동량] 만 15세 이상 및 성인: 1일 3회, 1회 1정 공복(빈 속)시를 피하여 복용한다. 복용 간격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인터넷 의약품 판매행위는 불법입니다." ※부작용이있을수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제품문의전화: 080-082-1234 (수신자부담) www.samjinpharm.co.kr

부활절, 그 이후

이민규 목사
웨드렐웨이제일장로교회



부활은 최종 승리의 확정
부활이 내 삶의 변화 가져와야

지난 주일 우리는 기독교 절기중 가장

기쁜 승리의 상징, 부활절을 보냈습니다. 온 교우들이 함께 모여 연합으로 예배하며 최종 승리의 확정인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가 지난 오늘 우리의 삶에 여전히 부활의 메시지가 남아있는지요? 절기가 절기라면 끝나면 큰 의미가 없겠지만, 그 절기를 통해 내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면 그것은 큰 능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절기를 주신 이유 중 하

나는 잊지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명기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더 긍정적으로 말하면 '기억하라'입니다. 언제 기억할까요? 절기에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평상시 절기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부활은 우리 삶이 예수님의 부활에 의해 이미 이긴 경기를 하고 있다는 아주 놀라운 인생관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 삶을 부정적 삶에서 긍정적 삶으로, 불신의 삶에서 믿음의 삶으

로 이끄는 놀라운 힘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한 주간 사셨나요? 절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현재 내 삶을 얼마나 강력하게 영향을 주며 이끌고 있나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막히고, 답답한 현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 모든 우리 인생의 단한 문의 열쇠입니다.

말씀은 그 모든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입니다. 저는 한 주에 보통 8번 설교를 합니다. 1년을 계산하면 한 해에

약 400번 이상 설교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증거하면서 더욱 선명해지는 경험은 말씀이 정말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정말 영혼을 살리고,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게 하고, 막힌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는 것을 더 깊게 경험합니다. 인생이 100년이 아니라, 옛날처럼 1,000년을 살라 하셔도 말씀이 있기에 긴 인생도 승리로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주일 이후 2주 차를 살고 있습니다. 부활절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 그 이후 우리의 삶입니다. 부활의 복음을 마음에 담아, 계속적인 승리를 경험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받아, 한 주를 승리로 살아 보시지 않겠습니까?

말씀의 교훈을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내 안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담아냅니다. 내내 부활절까지 그 승리의 삶이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는 유신론자였다



백인호 장로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한동안 자고 나면 입이 마르고 목이 칼칼하고 가래로 인해 목소리가 안나와 애를 먹었다. 알러지 인후염 식도염 위산과다 등등 병원에서 검사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한다.

갑기가 왔다 간지가 아마 6년은 된것 같다. 며칠전 자다 보니 몸이 으스스스 춥더니 콧물과 기침이 나기 시작한다. 아이구 갑기란 놈이 찾아온 모양이구나. 즉시 타이레놀을 먹었다. 이를동안 기침 콧물로 괴로웠다. 신기하게도 몇일 지나더니 갑기기도 서서히 사라지고 안오던 목소리가 제목소리가 나와 기도도 정상적으로 할수 있고 찬송가도 부를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 세상에 갑기의 은혜로 목소리를 정상으로 돌아오게 만든 하나님의 은혜도 있구나... 하면서 혼자 중얼거린 적이 있다.

나는 중학생이 될 때까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몰랐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란 것도 모르고 예수가 지상에 온 목적도 전연 몰랐다. 절없는 시절 시골에서 한여름 어른들이 마당에 명석 깔아놓으면 어른들 뜰에 누워 밤하늘을 바라보며 저 수많은 별들은 어떻게 생겼을까, 저 하늘 끝까지 올라가면 무엇이 나올까, 이런 터무니 없는 생각을 가끔하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것을 막연히 믿었다. 누가 설득해서 믿은 것이 아니다. 그냥 믿었다.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니 영적인 영안이 밝아져 사도신경을 믿게 되고 예수님 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부활의 소망을 믿게 된 것이다.

하나님을 먼저 알게 된 초등학교 동창인 친구가 중학교 일학년때 나를 만나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나에게 진도를 하는 것이다. 그는 나를 설득 시키기가 꽤 수월했었다. 왜냐하면 나는 진화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미 내 스스로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고 창조론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

교회 오래 다닌다고 신앙 저절로 성장하지 않아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 정신으로 우주 만물 관찰하면
하나님의 존재 발견할 수 있을 것
전도자의 말 귀기울일 줄 아는 자만이 복음 받아들일게 돼

의 말에 언제나 긍정적인 자세를 보였다.

나이는 같은 또래지만 어린 나이에 연마를 하는 나라로 보내고 얼마후 아빠마저 세상을 떠났다. 의붓 엄마와 피난을 와서 어려운 살림에 시달리다 보니 세상 물정은 나보다 훨씬 앞선 아이였다. 더구나 폐병으로 건강에 시달리면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어린 나이에 생을 마감한 아이였다.

그는 끈질기게 나에게 진도를 하였다. 내가 어렸을때 겁이 많고 마음이 모질지를 못한 이유도 내가 하나님을 빨리 받아들일게 된 동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그후 열심히 성경 공부에 참석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도 알게 됐다. 추

운 별판에 팽개쳐 뒹굴고 있는 불쌍한 존재인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세상에 왔다는 것도 알았다. 하나님을 믿고 삼길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새로운 세계가 온다는 것도 알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중심을 유지시켜 주는 원동력이 되었다. 한평생 살아오면서 명예나 부나 건강도 남달리 만족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지지 않고 아이들도 잘 성장시켜 주셔서 제 같길게 갔으니 감사할 따름이다. 사람이 살면서 부정적으로 늘 불평만 한다면 결코 행복은 찾을 길이 없다는 것도 깨달

았다. 이번에 갑기 걸려 목소리 고쳐 주신 것도 감사할 뿐이다.

인간의 능력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이 광대한 우주와 모든 생명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 침묵속에서 질서 정연하게 우주 만물이 운행되고 있는것을 볼때 하나님의 위대함을 절로 느껴진다. 그때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

우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우주를 지배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많은 천사 중 타락한 사탄이란 자가 탐욕과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하늘로부터 지상으로 추방되어 위정자들의 배후조정으로 이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된다. 세상이 왜 점점 악해져 가는것도 알게된다. 인간의 힘으로는 진정한 평화를 이룩할수 없다는 것도 알게된다.

이세상 종말에 살아가면서 나의 이성과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 일들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때로는 악인들이 득세하는 듯이 보이고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 감당하기 힘든만큼 무겁게 느껴질때도 있다. 이 모든것은 우리 성도들이 핍박과 시련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성숙한 자녀로 만들어 세상 마지막때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사탄 마귀는 주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할수 있어야 한다. 믿음이 저절로 교회에 나온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듣고 읽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임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은 만사는 다 때가 있다고 하셨다. 세상 사람들은 전도자가 있기에 하나님을 믿게 되고 전도자의 말에 긍정적으로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자만이 복음을 받아들일게 된다.

교회만 오래 다닌다고 신앙이 저절로 성장한다고 착각하지 말자. 세상에 물들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정신으로 우주 만물을 관찰해 보자.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 유신론자가 되어보자.

우주만물을 관찰해 보라.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할 것이다.

머리가 좋냐! 지혜가 있냐!



서병채 목사
케냐 멜빈대학교 총장

최근에 나는 이 두 가지에 대해 생각을 해보곤 했다. 더 쉽게 말하면 똑똑하거나 지혜가 있냐로 표현해보면서, 머리좋은은 선천적이고 지혜로운은 후천적이라 생각된다. 머리좋은은 애들이나 젊을 때 화자 되는 것이고, 지혜로운은 나이든 분들에게 해당된다고도 보겠다.

태어날때 주어진 똑똑함은 그저 받은 것이니 자연스럽게 얻게 된 것이다. 그런데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지혜로운은 후천적이라 배워지는 것이라고 본다. 학교라는곳은 결국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사회와 인류를 위해 헌신하라는 가르침의 현장이라고 보겠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좀 덜 똑똑하다는 인상을 주기도 한다. 아니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다. "요즘같은 세상에는 똑똑해야 살아남지!" 하면서 지혜로운을 좀 경시하는듯 표현하기도 한다.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학장은 나이가 좀 드신 분으로 하버드를 나오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지혜로운 분' 같았다. 반면에 존이라는 교수는 좀 젊었는데 옥스포드 출신이었다. 그분은 그야말로 '똑똑함' 그 자체였다. 그분은 정말 칼 같이 엄격한 분이셨다. 한분은 미국에서, 다른 분은 영국에서 공부한 분이셨다. 앞에 분은 우리 같은 동양인을 이해하는 쪽이었고 다음 분은 그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대하는 분이셨다. 똑똑한 것과 지혜로운 것의 일레로 생각이 난 것이다.

좀 비약적인 접근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지혜로운 사람은 동료를 키워주고, 머리 좋은 사람은 그렇지 못함을 종종 보곤 한다. 함께 살자! 또는 너 죽고 나 살자! 마치 같이하는 것이 수술대에 있으면 사람을 살리는 것이 되지만 강도의 손에 있으면 흥기가 되는 것과 같은 경우일 것이다.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들은 좀 비정하다는 생각까지 든다. 태어날 때부터 그랬으니 어쩔수는 없지만, 아무튼 좀 그런 면이 있는 듯하다. 태어날 때부터 그렇다 하더라도 후천적으로 여러 가지 경험을 거치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인데, 머리로 안 좋고 지혜도 없는 경우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정말 무모한 접근인지는 몰라도 종종 이런 경우도 있긴 하다. 머리아 태어날 때 그러니 어쩔 수가 없다. 그런데 지혜까지 없으면 곤란할 것이다. 그런 사람이 어떤 조직이나 기관의 CEO가 되어 있다면 정말 난감할 것이다. 가르쳐서 안되는 사람도 있긴 하다. 소그림 지도자를 선택할 때에 Teachable, 즉 가르쳐서 될 사람인지를 확인해보라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얘기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되면 주위에서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 올바른 판단력도 없으면서 성격마저 부드럽게 하지 해롭지 못하다면 정말 힘든 것이다. 어떤 조직이나 기관을 이끌려면 최소한의 판단력(명석함)은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없으면서 독불장군식이 되버린다면 정말 곤란하다. 주위에서 변화를 기다리지만 변화할 능력조차 없는 경우라면 심각한데, 그렇다고 인위적으로 CEO를 그만 두라고 할 수도 없다. 어쨌든 지도자라면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세상에 행복을 물로 더 행복한 세상!
World Top K-water
한국수자원공사가 국민감동을 위해 거듭나겠습니다.

환경부 | Kwater 한국수자원공사

생산인구 줄고 노인 급증... 부양비 부담 20년 뒤 2배로

통계청, 2022년 장래인구추계 반영 내외국인 인구추계 노인 급증에 생산인구 100당 총부양비 41.8명→81.8명

내국인 노인인구가 2036년에는 1500만명을 넘어설 예정이다. 반면 생산연령 인구(15~64세)는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할 유소년노인 비율을 뜻하는 '총부양비 부담'은 2042년 80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22년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추계'에 따르면 총인구(내국인+외국인)는 2022년 5167만명에서 2042년 4963만명으로 감소한다. 총인구는 2025년 이후 향후 10년간 연평균 8만1000명 감소한 뒤 2042년까지 연평균 16만4000명 줄며 감소폭을 확대할 전망이다.

총인구 인구성장률은 2025년 이후 향후 10년간 연평균 -0.16% 수준을 기록한 뒤, 이후 감소 속도가 빨라져 2042년까지 연평균 -0.33%로 전망된다.

내국인은 2025년 이후 향후 10년간 -0.26%, 이후 2042년까지 -0.44% 수준으로 감소세가 확대되고 외국인은 2.15%, 1.64%를 기록해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총인구 대비 외국인 구성비는 2022년 96.8%(5002만명)에서 2042년 94.3%(4677만명)로 감소하고 외국인은 5.7%(285만명)로 2022년 대비 3.2%(165만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내국인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진입하는 2020년대에는 연평균 39만명, 2030년대에는 연평균 53만명 감소할 전망이다.

2022년과 2042년 내국인의 연령별 인구 구성비를 보면, 15~64세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70.5%에서 55.0%로 15.5%포인트(p) 감소하고,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17.8%에서 36.9%로 두 배 이상 증가한다.



다. 저출산 현상으로 0~14세 유소년인구 비중은 11.7%에서 8.1%로 한자리 수로 떨어질 전망이다. 내국인 고령인구 구성비는 2022년 17.8%에서 2025년 20%를 넘고, 2035년 3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인구(유소년인구+고령인구)를 나타내는 내국인 총부양비는 2022년 41.8명에서 2042년 81.8명으로 증가한다.

저출산 영향으로 2022~2042년 기간 동안 내국인 유소년부양비는 12~17명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나, 내국인 노인 부양비는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2022년 25.2명에서 2042년 67.0명으로 두 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귀화, 이민자 2세, 외국인의 합으로 산출하는 이주배경인구는 2022년 220만명에서 2042년 404만명으로 증가한다. 총인구 중 이주배경인구 구성비는 2022년 4.3%에서 2042년 8.1%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주배경인구 중 귀화 내국인은 2022년 22만명에서 2042년 52만명으로, 이민자 2세 내국인은 2022년 33만명에서 2042년 67만명으로 각각 2배 이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총인구 중 귀화 내국인 구성비는 2022년 0.4%에서 2042년 1.0%로, 이민자 2세는 2022년 0.6%에서 2042년 1.4%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루리 기자

잠복결핵감염 치료하면 최대 90% 결핵 예방

질병관리청, 국형 '잠복결핵감염 관리 안내' 개발

질병관리청은 국내 상황에 맞게 잠복결핵감염 검진과 치료관리를 제시하는 '잠복결핵감염 관리 안내'를 발간했다.

본 안내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질병관리청에서 '결핵 안심국가 실행 계획'에 따라 실시한 '국가 잠복결핵감염 검진 사업'의 효과를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했다.

국내 연구 결과, 잠복결핵감염자 중 치료하지 않은 사람은 약 12.4배 결핵이 더 발생하고, 치료할 경우 최대 90%까지 결핵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복결핵감염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65세 이상에서도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고려할 수 있으며, 치료할 때는 위험과 이득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철저히 부작용을 모니터링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본 안내서는 기존에 '결핵예방법, 국가결핵관리지침, '결핵 진료지침'으로 흩어져 있던 잠복결핵감염 법적, 행정적, 의학적 내용을 한 번에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지역미 질병관리청장은 "국민들에게는 잠복결핵감염 검진 대상자일 경우 적극적으로 검진을 받으시고, 잠복결핵감염자로 진단된 경우에는 치료를 하면 결핵을 최대 90%까지 예방할 수 있으니,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받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안내서의 발간이 보건소 및 민간 의료기관에서 결핵예방관리를 수행하는데 유익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개발된 '잠복결핵감염 관리 안내'는 4월 11일부터 누리집에 게재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인쇄본은 4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지자체민간의 료기관으로 배부할 예정이다. 이루리 기자

작년 산재 사망 64% '떨어짐·끼임·부딪힘'... 현장 집중 점검

2024년 제 7차 현장점검의 날... 3대 사고유형 점검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2024년 제7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떨어짐·끼임·부딪힘 3대 사고유형 예방을 주제로 전국의 제조·건설업 등 고위험사업장을 방문해 집중 점검한다고 11일 밝혔다.

'3대 사고유형(떨어짐·끼임·부딪힘), 8대 위험요인(비계지붕·사다리교소작업대, 방호장치점검 중 작업중지, 혼재작업·충돌 방지장치)은 중대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표적인 유형을 나열한 것이다.

고용부는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으로 중대재해 발생 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특히 떨어짐(251명), 부딪힘(79명), 끼임(64명) 3대 사고유형으로 인한 사고사망자가 지난해 전체 사고사망자 598명 중 64.2%에 달하는 등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위험성 평가를 통한 관리를 집중적으로 알리고 점검할 계획이다.

떨어짐·끼임·부딪힘 위험이 큰 작업, 기계기구 등에는 방호장치와 예방설비를 설치해 근본적으로 사고를 예방하는 게 효과적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대진단' 등을 통해 정부지원사업(클린사업장 조성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방호장치와 예방설비 구축 비용의 70%를 최대 3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떨어짐·끼임 방지시설, 충돌예방설비 등 안전시설장비 등을 직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또 위험 표지판 부착 캠페인을 전개해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개구부 덮개 임의 해체 금지 ▲점검 중 조작 금지 ▲중량물 인양 하부 출입 금지 등과 같은 안전메시지를 위험 장소에 게시하고 부착하도록 지도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의 실천"이라며 "노사가 함께 떨어짐·끼임·부딪힘 등으로 인한 위험을 찾아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실천적 조치를 적극 이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루리 기자

보증금·월세 관계없이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청년월세 특별지원, 거주요건 폐지하여 대상자 확대

국토교통부는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이를 반영하여 오늘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국토부는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거주요건(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을 폐지했다.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점과 월세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지원 기간도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연장한다.

거주요건 폐지를 반영한 신청기간은 4월 12일 오늘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이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거주요건을 제외한 소득·자산 등 기타 요건은 동일하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과 마이홈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 독립하는 청년의 걱정을 하나라도 덜었으면 한다"라며, "거주요건 폐지와 더불어 지원기간도 연장하고자 하니 청년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서다은 기자

성명서, 칼럼, 논평 등 언론에 게재된 송암 권태진 목사의 글 모음집

대한민국 현대사 30년을 정리한 '역사 교과서'이자 '역사 지침서'

최신간
NEW

권태진 지음 | 170x240mm(양장)
400쪽 | 33,000원 | 성빛출판사
2023년 10월 15일 발간

광야에서 희망을 외치다

저자 : 송암(松巖) 권태진

저자는 1978년 10월 15일 천막 하나로 교회를 세운 군포제일교회의 담임목사이다. 성도들과 신앙한 가족이 된 그의 사역을 보고 사람들은 아버목회라 불렀고 끝없는 사랑의 돌봄을 어미목회라 칭했다. 그는 한국 교회의 본질 회복과 연합 운동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늘 순종하며 심김으로 맺어지는 목회자이다. 예장 합신 총회장,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등 총회와 연합기구의 수장으로서 지역, 교단, 교파를 초월해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되는 운동을 계속해왔고 일남전(평호부대) 참전용사로서 피 끓는 애국심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았다. 그는 '송암'이란 호를 가진 시인이기도 하다. 1994년 문예사조를 통해 시인으로 등단했으며 국제PEN회원, 한국문인협회원으로 시 열어달린 권의 시집, 열두 권의 설교집, 열세 권의 에세이 등 총 44권의 저서를 집필했다. 한국천송가개발원의 이사장으로서 찬송 작사가로도 활동 중이다. 그는 '오직 예수님이 희망'을 삶으로 전하며 쉬지 않고 영원한 나라를 향해 달려간다.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 BIRMINGHAM THEOLOGICAL SEMINARY 목회학 박사(D. MIN.), LOUISIANA BAPTIST UNIVERSITY 명예철학박사(Ph.D.),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명예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사단법인 성민원의 이사장이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96회 총회장, 한국장로교총연합회 30대 대표회장, 한국교회연합 89대 대표회장 등을 역임했다.

(이재훈 목사의 한국교회 살리기)

임마누엘 성경구속사개관대학

성경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을 향한 구원의 복음으로 그 능력이 구속사다. 택하신 은총을 입었어도 구원은 복음에 순종해야 얻는 전제조건이 있는 명령이다. 말씀이 믿어져 따지지 않고 따르는 것이 복음 순종이고 구속사의 능력이며, 자기 생각을 따르는 것은 불순종일 뿐 자유도 아무것도 아니다. 임마누엘 성경구속사개관은 문자에 갇힌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언약 이행의 능력을 보게 하고, 자기 생각에 갇힌 자에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뜻을 듣고 보게 하며, 멸망의 자리에 있는 자는 주의 영광 앞으로 나아오게 하는 구주 예수의 선물이다. 복음이 공의대로 들리고 보이고 믿어져 따르게 하는 말씀의 깊은 생이다. 구속사의 공의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회개의 능력으로 학문일 수 없고 또 학문에 가두게 할 수도 없는 복음 안에서만 가능하다. 한국교회 앞에는 물질과 명예와 권세로 미혹하는 종교의 넓은 길과, 검손과 감사로 구주 예수 따라가는 신앙의 좁은 길이 있다. 복음이 들리고 보여 믿어지게 하는 생명수를 듣고 소유하고 흐르게 하기 바랍니다.



강사 약력

생명수기도원 교회 담임(현)
임마누엘 성경구속사개관대학장(현).
제 1 예수복음부흥단 대표.
총회부흥사회.
총신대학원 목회학 석사.

강사: 이재훈 목사.
장소: 천안시 동남구 터미널4길32
임마누엘 성경구속사개관대학, 생명수기도원.
일시: 3~6, 9~12월 첫 주 월(오후 2시)~수(오후 5시)(속석 가능).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전화: 010-5432-7951.
(선교계좌, 농협 302 0472 2140 31 이재훈)

너희는 마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딤후4:2)

전도용 사랑의 건빵

많은 사람을 옳은데로 돌아오게 한자는 별과같이 영원토록 빛나라 (다니엘서2장3절)

믿을 수 있고 맛과 품질이 우수한
금품제과 제품입니다!

심희승 대표(화창)
010.9289.2442. 02.2273.7247.
신한은행.110.191.288484.

문의: 010 9289 2442

장대수 목사의 목요 말씀찬양을 통한 치유 대부흥성회



[부흥회 특징]

불같은 찬양

생수같은 말씀

강력한 축사

우울증해결

강사 장대수 목사
시흥시향의 교회 담임장
대전기독교부흥사회 대표회장

국내최초 우울증 원인분석연구 박사학위 취득
부흥회 경력 30년의 장대수 목사의
능력있는 설교를 경험하세요

장소 | 시흥 사랑의 교회

시간 | 매주 목요일 7시

문의 | 010-6325-3916

경기도 시흥시 하상동 377-2 삼성프라자 304호

미디어 선교를 선도하는 방송
지구촌 예수복음 선교방송

[특 징] 오직! 예수님 말씀만 전하는 방송
유튜브 ▶ 검색창에 장대수 목사를 검색해 보세요

1995~2024 / 국내 최초, 국내 유일

교회복지연구원

교회복지학과 신입생 모집

2024년도 봄학기 신입생 모집

- 모집인원 : 00명
- 모집기간 : 2024년 4월 1일 ~ 4월 30일
- 교육기간 : 2024년 5월부터 12주
서울(화요일), 대전(목요일)
- 교육장소 :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 강의실(3층, 4층)
및 본원 강의실
* 서울은 단 1명이 등록해도 개강합니다.
- 등록비 :
- 50만원(점심식사 제공, 국내 교회복지 실습비 포함)
- 500만원(호주 & 미국으로 교회복지 실습 희망 시)
* 등록비는 개강식 이후 1개월 이내에 납부하시면 되며 분납도 됩니다.
- 등록방법 :
010-9643-6356 문자로 성명, 직분, 등록 지역을 보내시거나 www.cws95.net 신청에서 이름, 연락처, 이메일을 기재하시고, 신청 내용에 신청(예/서울 신청)이라고 하시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 상담문의 : 010-8011-9191(서울/김성덕 박사)
010-5115-9104(대전/정바울 박사)

[특전 및 진로]

- 2년 4학기 수료자는 본인 졸업증서 및 교회복지사 자격 취득(자격 발급비 없음)
- 목회자의 경우 1학기 수료 이후 소정의 자격시험 합격 시 교회복지사 자격 취득
- 목회자의 경우 국내외 교회 및 기독교 관련 복지기관 및 시설 교회복지 전문 목회자로 활동
- 평신도의 경우 국내외 교회복지 기관 및 시설, 기독교 사회복지 기관 및 시설 설치 및 운영

www.cws95.net

말씀 가운데 자연과 함께 사는 좋은 사람들의 요양원

인양비산동
교회 소속

소망의동산실로원

2021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A) 최우수기관

소망의 동산 실로원은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께 쾌적한 환경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에게는 수발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안정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주 소 | 경기 화성시 봉담읍 분천길 185

예배시간 | 주일 오전 9시 / 수요일 오전 9시 (이보영 원로 목사님)

노년 장기요양등급 1~5등급(시설등급)으로
가정에서 일상생활이 어렵고 지속적인 수발과
간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모십니다.



입소 상담 문의 | 031-227-1460 / 원장 010-6217-4208

교회건축의 모든 것
교회건축포럼

교회건축&리모델링 세미나

주제 _ 바라보는 교회건축

2024.04.30(화)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울 양재 엘타워 골드홀(B1층)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3 / 3호선, 신분당선 양재역 9번출구 바로 앞 위치]

2024.05.07(화)

오전 10시 ~ 오후 5시

부산 해운대 한화리조트 3F 포럼 2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3로 52 / 2호선, 동백역 1번출구 도보 15분]

- 참가비 : 30,000원(중식 및 기념품 증정)
- 후원은행 : 1005-604-628807 [예금주 : 교회건축포럼]
- 문의 및 등록
- 전화등록 : 070-4355-3308
- 문자등록 : 010-3966-1463
- [문자등록시 (1.교회명 / 2.등록자명(직분) / 3.참석인원 / 4.핸드폰번호)]
- info@cbuild.co.kr



설계

(주)아진건축사사무소 최두길 대표

- 팬데믹 이후의 교회성장을 위한 설계
- 뉴노멀로서의 교회공간의 복합화
- 지속성장을 위한 혁신적 공간전략
- 신재생 녹색 환경의 교회



미디어

(주)크리스시스템 박정민 실장

- 더 나은 유튜브 예배송을 노하우
- 방송장비 운영인력의 솔루션
- 대형 led 구축과 운영의 실제
- 할스 스피커와 음향기술
- 연무대학교 7000여 조명 리뉴얼 사례
- 기독교 뮤지컬투어 방송 사례(수영교회/ 호산나교회)



인테리어

에스스리글로벌 최중민 대표

- 강력한 효율을 얻는 리모델링 사례 분석
- 예배를 돕는 공간 연출의 기준
- 다음세대를 위한 공간 활용
- 건축상황과 인테리어의 중요성
- 라운지의 카페, 레스토랑 솔루션
- 3D 시각화를 통한 아이디어 적용 방법



CM

(주)라미건축사사무소 이범구 대표

- 교회건축 전문가가 사례를 통하여 전하는 교회건축의 올바른 방향
- 교회건축, 교회가 우선이다
- 교역자가 알 필요, 건축위원회가 알 필요
- 설계자의 업무, 사공사의 업무
- 감리자 및 건설사업관리자의 역할과 책임

고난이 기도를 만나면 기적이 된다

신간 '따라 하는 기도 5: 고난'



살아가면서 누구나 고난을 만난다. 하나의 고난이 끝나면 다음에는 기도하며 잘 통과하겠다고 결심하지만, 다시 고난을 만나면 매번 처음 당하는 일처럼 놀라고 당황하게 된다.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해야 함을 아는 데도 마음이 놀려 기도조차 나오지 않고 자신만의 동굴로 숨어들기도 한다. 저자 장재기 목사(원천침례교회, 지구촌교회 협동목사)는 큰 고난을

겪으며 기도의 사람으로 훈련받았고 <따라 하는 기도> 시리즈를 통해 기도를 어려워하는 수십 만의 성도를 도왔다.

저자는 고난 앞에서 살아갈 힘을 잃은 이들에게 이 책을 간절한 마음으로 권하며 기도할 힘마저 잃었어도 기도를 읽고 듣고 따라하기를, 힘들수록 하나님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 날개 아래 거하기를 권면한다.

저자는 책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힘들다고 울면 안 되지. 힘들어도 웃어 아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울 자격도 없’이라고 생각하며 울음을 참고 살아간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우는 것을 허락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울라고 권한다. 우는 것

이 믿음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다. 운다는 것은 내 삶을 포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견디겠다는 뜻이다. 버티겠다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포기했다는 사인이 아니라 나를 더 강하게 하겠다는 사인이다. 삶에 힘든 고난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는 뜻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고 계신다는 뜻이다. 고난 없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울증과 강박증, 분노가 가득했고, 음란물에 중독되어 살던 제

가 기도를 따라 하면서 완전히 끊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따라 하면서 오열하며 진심으로 회개했고, 처음으로 성경도 읽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슬픔에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 기도를 따라 하면서 힘든 시간을 이겨내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한 많은 성도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고난을 이겨내셨다. 그 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신 이야기다. 이 책은 기도할 힘을 잃어버린 분들을 돕기 위해 쓰였다. 이 책이 당신을 기도의 자리로 이끌고, 기도에 힘을 더해줄 것이다. 기도를 따라 하는 동안, 당신을 고난에서 건지고 고난의 의미를 알게 하실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고 했다. 최승연 기자

신간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하신 일 101가지

삶이 힘들거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하신 일을 아는 것은 큰 도움이 된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생명의 떡이자 세상의 빛이고 양의 문, 선한 목자, 생명이요 부활, 진리요 생령,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 많은 여인을 용서하시고, 시가장에 그를 갖고 있었던 바다메오를 치유하셨으며,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다. 그리고 세상의 죄를 대속하시어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절망에 빠져 있던 그리스도인의 삶을 건지셨다. 하지만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아는 데는 수백, 수천 쪽의 조직 신학, 교의학(敎義學)을 읽



어도 이해가 되지 않거나 어렵게 느껴지곤 한다.

이에 저자 토머스 넬슨 작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기억함으로써 독자들이 감사하는 마음에 불을 붙이고, 그의 위대한 능력과 사랑을 다시 생각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해 이 책을 집필했다.

저자는 책 속에서 “우리가 위로받고 위로받는 방식이나 형태는 다양하다. 몸이 아플 때 담죽을 가져다주거나 슬픈 일을 당했을 때 꽃바구니를 보내주기도 하고, 실직했을 때 힘내라며 어깨를 두드려주거나 안아주기도 한다. 그러나 위로가 절실히 필요할 때 우리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은 간단한 말 한마디다. 위로의 말을 들으면 마음속에 있는 복잡한 갈등을 이겨내고 담대하게 설 수

있는 희망이 생긴다. 제자들에게 위로가 필요할 때 예수님은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라고 약속하셨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으니 너희도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 16:33)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근심을 갖지 말라고 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그들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해줄 것이라며 위로하고 격려했다.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큰 위로와 힘이 된다”고 했다.

이어 “사랑을 행하는 데 부족함이 있는 우리는 혼돈에 빠진다. 그럼에도 분명한 두 가지 사실이 있다. 우리 모두는 절대적으로 사랑을 필요로 한다는 것

과 우리 중 일부만이 사랑을 하는 데 탁월하다는 사실이다. 우리 모두는 사랑 하는 법에 대한 교훈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밖에 모르는 약간의 이기주의자들이라서 다른 사람도 사랑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 그리고 때때로 어떻게 사랑을 나타내 보여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우리를 위해 값비싼 것을 희생하시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며, 우리가 필요로 하는 많은 것을 가까이 주시고,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다. 우리는 또한 마음속에 내재된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일깨워주시는 하나님의 영, 보혜사 성령님을 안내자와 위로자, 스승으로 모시고 있다. 사랑과 공호와 자비는 우리가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다”라고 했다. 최승연 기자

신간

갈등을 관리하는 방법



계급 갈등, 인종 갈등, 성별 갈등, 세대 갈등 등 갈등 대부분은 결국 개인이나 조직의 이익과 가치 때문에 발생한다. 상대에게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조직의 이익과 목표를 이루내기 위해 갈등 관리의 절대적으

로 필요하다. 세계적 갈등 관리 전문가 피터 T. 콜먼 컬럼비아대 교수는 지난 20~30년 동안 컬럼비아대에서 의뢰받은 각 조직 갈등 사례를 연구했다. 그의 연구 과정과 결과를 토대로 쓰인 책 ‘갈등을 관리하는 방법(마리복스)’은 자신의 생계와 직결되는 조직 갈등을 다

룬다. 수많은 사람이 높은 권력과 낮은 권력의 다양한 감정과 복잡한 관계로 뒤엉킨 조직 내 갈등은 어떤 갈등보다 수위가 높다.

갈등은 한번 불이 붙으면 더 확산되고 거세지면서 고통과 손실은 물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온다. 우리에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게 하고 관계까지 파괴한다.

갈등을 잘 관리해 극복하면 관계가 더 견고해져 만족감을 느끼고 조직에 활

기를 불어넣는다.

이 책은 갈등의 긍정적인 면에 주목한다. 개인과 조직의 ‘갈등 지능’과 ‘갈등적응력’을 키우는 다양한 전략과 방법을 안내한다. 해결책을 찾지 못할 때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지도 알려준다.

특히 이 책이 제안하는 7가지 전략, 즉 실용적 자비 전략, 지지 구축 전략, 건설적 지배 전략, 전략적 회유와 순응 전략, 선택적 자율성 전략, 효과적 갈등 적용력 전략, 원칙적 저항 전략은 지금 벌어지는 갈등에 적용할 수 있다. 이나래 기자

4월, 작가들의 말말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믿음의 핵심이자,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사는 모습으로 성화되어 가야 합니다. 물론 구원받은 사람들도 세상에 사는 동안 고통과 고난, 슬픔과 외로움, 기근과 실패 등을 경험하며 살 수도 있지만, 그런 때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찾고 의지하며 삽니다. 주기도문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드릴 기도의 기준이고, 복음과 신앙생활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고, 매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야 하며, 용서의 삶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속한 나라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곳으로 영원하며, 성경에 기록된 천국의 모습만으로도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을 만큼 좋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김한동 '신앙생활 이야기'



자, 여기에 어떤 사람이 “내가 오늘 구원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라고 묻고 있다. 『선생님들아,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행 16:30) 이 질문에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답하셨는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도 바울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행 16:31)라고 답할 것이다. 그렇다면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하나요?』(마 19:16)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셨는가? 이 사람에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행 16:31)라고 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그러나 네가 생명으로 들어』(마 19:17)라고 말씀하셨다. 그렇다고 오늘날 교회 시대에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처럼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키십시오.”라고 하겠는가? 물론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 당시는 오직 “믿음으로!”가 아닌, “믿음과 행위”를 통해 구원받는 “구약 시대”였기 때문이다! 시대가 서로 다른 것이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의 속죄를 이루시기 이전에는 여전히 율법 시대이므로 “계명(율법)을 지키”고 영생을 얻어야 했고,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폐기되었기에(엡 2:15) 율법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이다. 박승용 '올바로 나누면 성령이 열린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의 경우를 보면,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후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해방됨을 믿지만, 순간순간 찾아오는 죄의 성품들로 인해 감히 하나님께 당당하게 서지 못하며, 하나님 앞에 서면 완전한 용서를 체험하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것도 성도들의 실상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구원받은 때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필요한 폭 넓은 복음이며,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십자가의 복음이 적용이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유함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실수나 부족함, 연약함이나 죄를 느낄 때, 그래서 주님을 의식하거나 하나님을 대할 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선물들이 라고 생각됩니다. 구원을 경험한 성도들의 현실은, 예수님을 영접한 의인이라고 가르치고 인정되기 때문에, 죄 이야기를 자주 하면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알아 가면 갈수록 죄의 기준은 더 세밀해지고 양심은 더 살아나기 때문에 죄가 더 잘 보이고, 잘 보이는 만큼 점점 자책이 오고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그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죄가 많이 보이는 만큼, 내가 받은 용서의 크기도 커지고, 구원의 의미가 더 귀해지고, 구원의 감격도 더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도 점점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용서를 체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과 비례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최갑중 '로마서 내려티브로 읽기'

크리스천투데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저자 이효준 장로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행하라!

현 시대 기독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외침!

평신도 그리스도인 리더, 장로의 눈으로 바라본 하나님, 신앙, 그리고 이 세상! 그 두 번째 이야기

추천사

장로님께서 칠순을 맞이하여 출간하게 된 이 책은 그동안 인생의 긴 여정을 소상하게 나타내 주어 깊은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김형근 경교 (구세군 전주교회)

참된 이해 없이 맹진적으로 받아들이던 말씀들에 대한 새로운 삶의 길과 방법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영적 성숙을 향한 좋은 길잡이입니다. 배준일 목사 (범어중앙교회)

준엄한 엘리야의 심정으로, 터지듯 피어난 꽃 한송이 앞에서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구성지게 읊어낸 책입니다. 박호철 목사 (양원내산교회)

따뜻한 신앙인들

신앙의 뿌리를 재점검하다!
정직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 되는 법

매일묵상 동성애에 대한 성경의 말씀 I

오늘 본문은 디모데후서 3장 12-17절입니다.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다 핍박을 받을 터이나 악한 자들과 미혹하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이는 네가 이것들을 누구에게서 배운 줄 알며 또 어린아이 때부터 네가 성경 기록들을 알았기 때문이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기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하나님

집에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설교하며 서로 교제를 나누게 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바로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는 날입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오늘이 구원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크리스천은 믿음 위에서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 확실한 교리를 가지게 해 주십시오. 저희들과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살던 시대에는 물론 얼마 안 되었지만, 동성애자를 감옥에 보냈습니다. 제가 어려울 때는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그 사람은 감옥에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군대와 의회 그리고 성직자에도 동성애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동성애자가 불미스러운 병보다 더 나쁘게 여겨지던 시대에서 완전히 정상으로 생각되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게이 결혼

을 축하하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저는 말하기도 싫지만, 국회에서는 게이를 장애자와 같은 소수의 사람으로 취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소수의 장애자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변질된 성도착자들입니다. 그들의 권위를 소수의 소외된 사람으로 취급해선 안 됩니다.

저는 미국이 앞으로 세계 사람들이 보기에 United States of America가 아니라 United States of ... (United States of Gay로 목사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다 차마 말씀하지 않았음) 도대체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우리나라 미국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 사회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정부에서 일하는 분은 사회통념에 대한 각각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번의 동료가 이런 소수 사람들에 대한 결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소외 받은 소수 사람들에게 정책 편이 주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보도 매체들은 다음 뉴햄프셔 성공회 주

교가 누가 될 것인지를 보도했습니다. 그는 뉴햄프셔의 모든 성공회 교회의 주교가 될 것입니다.

CNN은 성공회 주교들의 모임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동성애자인 진 로빈슨을 뉴햄프셔 주교로 임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소식을 알 것입니다.

진 로빈슨은 투표 후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것은 꿈만 같은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직 로빈슨의 말을 다 인용하지 않았지만 저는 이런 잡스러운 것에 하나님을 끼워 넣는 것에 대해 매우 분개하고 개탄합니다.

개탄스럽고 말할 정도로 저는 감정이 솟구칩니다. 성령님이 주교 투표에 같이 했다고 하는데 성령님은 이런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로빈슨은 주교가 되는 것이 매우 흥분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설교를 계속하기 전에 2가지 전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동성애에 대해 설교하는 것에 대해 여러분이 듣기 싫어하는 것

처럼 싫습니다. 보도 매체가 보도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동성애에 대해 어떻게 쓰여 있는지에 대해 하나님이 저에게 설교를 하라는 강한 권유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저는 전혀 게이를 싫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게이에 대해 관대한 생각을 가진 분이나 이웃 또는 친구를 가진 분의 기분을 나쁘게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하려고 하는 바가 아닙니다. 설교를 끝까지 들으시면 충분히 아실 겁니다. 오히려 저는 그들에게 성경이 전하는 복된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들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게이들은 즐거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어로 Gay는 동성연애자 외에 즐겁다는 뜻이 있다) 그들은 가엽고 사악한 사람으로서 게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는 길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계속>

글 버드 칼버트 목사(페어팩스 baptist 템플 (Fairfax Baptist Temple) 교회) / 크리스천투데이 제공

바이블칼럼

부흥하는 교회 7가지 비밀

본문: 살전 1장 1-10절
1. 헌신적인 리더가 있습니다(1절). 부흥하는 교회를 보면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 같은 헌신적인 리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리더 한 사람이 변화되면 교회는 반드시 변화되고, 리더 한 사람이 성장하면 반드시 교회도 성장합니다. 그러므로 리더는 리더십 개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고, 리더를 따르는 사람들은 철저히 리더를 따르고 존경해주어야 합니다.



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말씀대로 실천하고자 하는 교인들이 넘치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2. 감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2절). 이 세상에 기도의 밑거름이 없이 부흥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얻어지는 승리의 결과물입니다. 특히 중보기도와 감사기도가 필요합니다. 먼저 교인은 끊임없이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목회자는 기도를 가장 많이 해야 할 필요도 있지만 기도를 가장 많이 받아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첫 번째 공격목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움직이는 교회가 부흥의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교회 봉사를 취미로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 일을 가볍게 취급하라는 말이 아니라 교회 일을 기쁘고 즐겁게 하라는 취지의 말입니다. 언제 교회 봉사가 즐거워질까요? 교인들이 자기 은사를 따라 봉사할 때입니다.

이 아니고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사랑, 화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총성, 온유, 절제가 결여된 성령 충만은 허상일 뿐입니다. 성령 충만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되는 것'(5절)입니다.

3. 성도들의 참여가 있습니다(3-4절). "목회자가 바쁜 교회는 부흥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보다, 더 전념하고 교인들이 바쁘게

4.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5절). 성령의 역사가 어떤 것입니까? 각 사람마다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구현되는 모습도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격적인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물질

5. 말씀에 열린 예배가 있습니다(6절). 아무리 다른 이유를 대도 처음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영혼이 힘을 얻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삼기 때문에 예배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꽃은 설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

6. 실천적인 삶을 통한 전도가 있습니다(8절). 오늘날 많은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부상당한 장수가 성 안에서 소리치는 모습과 같습니다. 즉 많은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는 큰소리를 치는데 교회 밖에서는 아무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의 신자도 되어야 하지만 교회 밖의 신자도 되어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마 11장)는 말씀만 받아들이는 "오라!"형 교인에만 머물지 말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마 28장)는 말씀도 받아들이는 "가라!"형 교인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7. 전문성과 경영 마인드가 있습니다(9절).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신적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모인 사회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잘 이끌 수 있는 전문성과 경영 마인드를 무시하는 것은 균형 잡힌 모습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려고 기쁨과 관리를 배제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하시는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에 대한 사례 깊은 성찰과 연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세계 제공

NIV 영어성경 따라잡기

Isaiah 40:28 NIV
..... The Lord is the everlasting God, the Creator of the ends of the earth. He will not grow tired or weary, and his understanding no one can fathom.

- everlasting : 영원한, 변치 않는
- the Creator : 창조주
- the ends of the earth : 땅 끝
- grow + 형용사 : ~해지다
- weary : 지친
- understanding : 지력(智力)
- no one : 아무도 ~않다
- fathom : 헤아리다

(이사야 40장 28절)
여호와와 영원한 하나님, 땅끝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피곤하거나 지치게 되지 않을 것이며, 아무도 그분의 지력(智力)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광동초이스 CHOIS PREMIUM

업그레이드 리뉴얼 출시

성분도 UP! 용량도 UP!
"더 커진 프리미엄 환"으로
고객님의 사랑에 보답합니다.

광동제약 전속모델

반세기 광동의 독심으로
마침내 프리미엄을 완성하다!

광동 침향환 프리미엄

고객 감사 업그레이드 출시!

프리미엄 업그레이드 기념 특별 감사 이벤트

{일선착순 500명 한정!}
※ 증정품 소진 시 이벤트가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광동 침향환 프리미엄 30환 2박스 구매 시

광동 침향환 프리미엄 30환 2박스 무료 증정!

생명의 진한 정성, 광동 쌍화진 30포 1박스 추가 증정!

침향, 침향추출에센스, 녹용의 빈틈없는 3중 황금배합으로 프리미엄을 완성하다.

광동 침향환 프리미엄은 진귀한 '침향'에 최상위 SAT 등급 뉴질랜드산 '녹용', 침향나무에서 극소량만 얻을 수 있는 '침향추출에센스'까지 담아 광동제약의 반세기 노하우와 기술력이 집약된 프리미엄 침향환 제품입니다.

100kg 침향나무에서 약 1kg 가량 추출한 진귀한 '침향추출에센스'는 광동제약의 독자 기술력으로 β-유데스롤 등 침향 성분을 담아내어 적은 용량으로도 침향이 지닌 다양한 성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오직 최상위 SAT등급 청정 뉴질랜드산 녹용 전지를 통째로 사용하였습니다. 부위별 쓰임새가 다른 녹용의 힘을 오롯이 담아내기 위해 녹용 전지를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무료 상담 **1899-1260**



백판기 목사의 영어로 읽는 로마서(92)

로마서 8장 10절

10. But if Christ is in you, your body is dead because of sin, yet your spirit is alive because of righteousness.

·But : 또
·if Christ is in you :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your body 몸은
·is dead because of sin :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yet your spirit : 영은
·is alive because of righteousness. :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중요한 단어, 속어

yet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 그러나, 아직. // It's a small car, yet it's surprisingly spacious. : 이것은 작은 승용차이다. 그렇지만 놀라울 정도로 넓적이다. // He has a good job, and yet he never seems to have any money. : 그는 좋은 직장에 다니다. 그런데도 언제나 돈이 없는 것 같다.

alive 살아 있는 상태로. // The death of a woman in a traffic accident has developed into a sharp debate over medical ethics as German doctors keep the brain-dead woman's body alive to nurture her 4-month-old fetus to eventual birth. : 독일 의사들이 어느 교통사고에서 뇌사한 여인의 몸을 산 채로 유지해 몸속의 4개월 된 태아를 발육한 후 출산시키려 하자, 의학적인 윤리 관점에서 날카로운 논쟁을 불러 일으키게 되었다.

righteousness 의, 올바른, 정직함, 진짜. because of sin : 죄 때문에, 죄로 인하여.
because of righteousness. : 의 때문에, 의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성령 안에 있고, 성령께서는 또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하게 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이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우리의 몸은 어찌되

었다고 말씀하는가?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의 몸이 죄로 인하여 사형에 처해진 것이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용하여 우리의 육신을 죽여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육신 안에 갇혀 있지 않게 되었고, "죄와 사망의 법"은 효력이 정지되었으므로 우리는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이다. 우리의 몸은 이제 죽은 시체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보자. 우리는 세 가지 입장에 놓여 있다. 그 하나는 서서히 죽음을 향해 죽어가고 있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죽어 땅에 묻혀 있는 입장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 가지 상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장사되어 무덤 속에 있다. 나의 관점에서 보면, 나는 지금 좀처럼 숨을 멈추지 않고 아주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죽음을 향해 죽어가고 있는 중이다. 나머지 하나, 나의 내면의 관점에서 보면 나는 다시 일으켜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중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세 가지 상이한 삼중으로 된 복합적 삶이 공존하는 아주 복잡하고도 미묘한 생활을 살아가는 존재다.

갈라디아서 2:20

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20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and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The life I live in the body,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for me.

▶해석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1절

11. And if the Spirit of him who raised Jesus from the dead is living in you, he who raised Christ from the dead will also give life to your mortal bodies through his Spirit, who lives in you.

·And if the Spirit of him who raised Jesus from the dead :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하나님)의 영(성령)이
·is living in you : 너희 안에 거하시면
·he who raised Christ from the dead :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will also give life : 살리시리라
·to your mortal bodies : 너희 죽을 몸도
·through his Spirit :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who lives in you. :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중요한 단어, 속어

raise 올리다, 살리다. mortal 필멸의, 죽음을 면치 못할 운명의, 인간의. We are all mortal. : 우리 모두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 // fatal a mortal blow/wound : 치명적인 타격/치명상. // to be in mortal danger : 대단히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 // Her reputation suffered a mortal blow as a result of the scandal. : 그 스캔들 결과 그녀의 평판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 mortal enemies : 필사적인 적들. // They were locked in mortal combat. : 그들은 목숨을 건 전투에 사로잡혀 있었다.

through ~을 관통하여, ~하는 동안 계속, 완전히, 철저하게, 직행의. give life to ~에 생명을 주다, ~에 생기를 불어넣다(주다).
*his Spirit : 그의 영 즉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19절을 아주 주의 깊게 읽어 보라. "너희 마음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

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엡 1:18-19). 성령께서는 우리의 지성을 밝혀 주신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약속 돼 있는 "그의 기업(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닫게 해 주신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충분한 지성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 에베소서 1장 20-21절에서 이렇게 언급한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엡 1:20-21).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지성을 간구해야 한다. 그분의 위대하신 능력을 조금이라도 알기 위해서...

사도행전 2:23-24

23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박아 죽였으나 24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23 This man was handed over to you by God's set purpose and foreknowledge; and you, with the help of wicked men, put him to death by nailing him to the cross. 24 But God raised him from the dead, freeing him from the agony of death, because it was impossible for death to keep its hold on him.

▶해석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백판기 목사(예수날사랑합교회)

건강상식

교정 치료 후 충치 걱정, 확실한 구강관리로 끝

흔히들 교정치료를 하면 충치가 더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정 상담을 할 때에도 부모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것 중 하나가 충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찌 보면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충치(Dental caries)란 입안에 있는 박테리아가 음식물 잔사를 분해하면서 생기는 산(acid)에 의해 생기기 되는데 치아에 붙어있는 브라켓이나 철사 등의 교정장치로 인해 양치질이 소홀해지고 미처 제거되지 못한 음식물 잔여물이 잘 낄 수 있는 상태와 환경이 만들어 진 것입니다.

교정치료 후 충치가 있는 환자의 교정 장치를 제거해보면 대부분은 브라켓 주위에 충치가 생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잘 닦이지 않고 정체되어 있던 치아에 탈락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정치료를 시작하게 되면 교정용 칫솔과 관리 키트(kit)를 드리고 새로운 환경에 따른 정확한 구강관리 방법을 설명 드리게 됩니다.

하지만 노력을 하여도 잘 안 닦이는 부분이 있게 마련이고 그런 부분은 교정치료를 진행하면서 교정의사가 확인 후 알려드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정치료를 반드시 확실하고 정확한 구강관리가 필수 조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환자분들 중에서는 교정치료를 시작하면서 오히려 관리에 더 신경을 쓰게 되고 예전보다 더 치아상태가 좋아졌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듯 교정치료 자체가 충치를 더 많이 생기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구강 관리의 소홀로 인해 충치유발의 기회를 더 많이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 일듯 싶습니다.

예쁜 치아와 훌륭한 기능을 얻기 위해 시작한 교정치료 때문에 치아가 상하고 망가진다면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일까요. 가지런한 치아도 중요하지만 치아건강이 우선인 만큼 매 식정용 칫솔과 관리 키트(kit)를 드리고 생활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용제 뉴엔세치과 원장

은혜 한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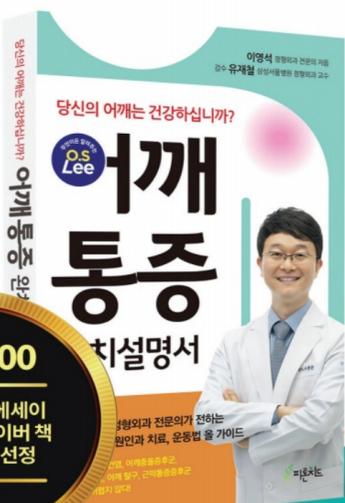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앞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후서 1:2

基督日報
기독교일보 www.cdaily.co.kr

통증없이 건강한 어깨로 100세 살기!

오십견·석회성건염·어깨충돌증후군·회전근개 파열·어깨 탈구·근막통증 증후군 완전 정복 어렵지 않다!



어깨통증 완치설명서

은평구 성누가병원 정형외과 대표원장 이영석 전문의가 전하는
어깨통증의 원인과 치료, 운동법을 가이드

SAMSUNG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유재철 교수 감수

YES24·교보문고·영풍문고·주요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 중!



신앙과가정 죄는 진실을 타고 온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창조자 자신이 감탄하셨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장소에 에덴 유토 피아를 만드셨고 흠족해하셨습니다. 그곳은 하나님과의 막힘 없는 교제가 축복이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존재하지 않는 '만족의 상태'와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곳에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금단의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린 것입니다. 그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렸습니다. 죄는 그래서 적극적으로는 그분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범하는 것이며, 소극적으로는 그분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죄는 곧바로 인식이 가능한데, 문제는 소극적인 죄입니다. 그것이 죄가 아닌 양,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포장하고 살았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죄

인 줄 모르고 지낸 것입니다. 태초의 시간에 인간은 죄를 범했는데,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머릿발이 쭈뼛하게 설 정도로 날카롭고 교묘합니다. 그 죄는 '뱀'이 이용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지으신 짐승 가운데 가장 '슬기로운(간교한)' 존재였습니다. 자신의 지혜가 '탁이' 되지 못하고 악한 것에 쓰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장점이라고 여겼거나, 기질이라고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어이없게 쓰일 수 있다는 것을 눈여겨보아야 하는 대목입니다. 하와 역시, 뱀에게 공금했던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저것만 못 먹게 하시지? 뭐가 있을까?' 호기심이 상존했던 것 같습니다. 그 호기심이 자극을 받아 생각이 들어가니 열른 그 열매를 따 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사탄의 계략입

니다. 진실을 거짓으로 보이게 가져오면 곧바로 알아차릴 텐데, 진실을 가지고 들어오면, 정말 속아 넘어가기 딱입니다. 들어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이기도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네가 먹으면 눈이 밝아져 네가 하나님같이 되기 때문이야!' 이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을 말해 주지 않았습니. 눈이 밝아진 것도 사실이었.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었기 때문에 사탄은 거짓으로 승부 한 것이 아니라, 진실을 가지고 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기대처럼 그 열매를 먹음으로 눈도 밝아졌고, 하나님의 속성 중의 하나를 갖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결과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을 뼈저리게 인식하지 못하고,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죽을까 하노라고' 회색된 하나님의 말씀

으로 살았기 때문에 인간의 행복이 아닌 비참한 존재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팬데믹의 시대를 지나고도 우리가 아직 배우지 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 정말 어려서는 존재입니다. 팬데믹의 시대에 사탄은 '진실을 가지고 우리에게 도전했습니다. '모이면 바이러스에 감염돼! 위험하잖아? 그러니까 온라인 밖으로 나가면 절대 안 돼, 죽는다!' 맞았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나타난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친 것입니다. '안전 구역' 속으로 숨어는 지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한없이 쇠약해졌습니다. 우리의 허술한 '보안 의식'이 영적인 무장 해제로 이어진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을 우리는 정신 차리고 대응해야 합니다. 주는 대로 냉면 받으면 사고 납니다. 아름다움교회 제공

교회오빠

선물 속의 선물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후서 9:15

사탄이 작년 크리스마스 때 남편 앤디로부터 받은 가장 좋아하는 선물은 골동품 보물함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상자가 3개 들어 있었고 그 상자들 속에는 초콜렛과 장신구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녀는 선물 속의 또 다른 선물들을 좋아하였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선

물 속에 다른 많은 선물을 넣어주셨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영접하게 되면, 그들은 다른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는 다음과 같은 특별한 선물들을 또한 받게 됩니다.

죄 사함.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엡 1:7).
성령님의 가르침. "보혜사 곧 아버지께

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요 14:26)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영생과 천국의 집
요한 사도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요일 5:12)라고 말했고,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요 14:2)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요 15:13).
당신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단지 간구만 하면 받습니다.

구원의 첫걸음
당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라(로마서 3:23).
예수님을 믿으라(사도행전 16:31).
당신의 믿음을 고백하라(로마서 10:9-10).

예수님은 자신이 선물인 동시에 모든 좋은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다.
창글산 봉목사

성경상식

사제

신과 인간의 중개인
성서의 맨 앞부분에는 사제가 나오지 않는다. 초기에는 카인과 아벨, 노아처럼 누구나 신에게 제사를 지낼 수 있었다. 그러다 점차 일반 사람을 대신해 신에게 제사를 지내줄 '중개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싹텄다. 성서에 언급된 최초의 사제는 멜기세덱이다. 이스라엘에는 이집트에서 탈출하기 전까지는 사제가 없다가 모세의 형 아론이 최초의 제사장이

되었다. 그의 옷차림은 출애굽기 28-29장과 레위기 8장에 설명되어 있다. 제사장으로서 그는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 제사를 지내고, 사람들의 죄를 신에게 대신 고해하고, 인간과 신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역할을 했다. 오직 제사장만이 성소에 들어가 언약 궤에 피를 뿌릴 수 있었다. 이스라엘의 사제들은 모두 아론의 후계자로 간주되었으나, 그중에는 아론의 두 아들처럼 탐욕스럽고 타락한 자들도 많았다. 모세의 시대부터 솔로몬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사제들은 성막이라는 천막을 치고 제사를 지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아람

다운 성전을 지은 뒤부터 사제들은 그곳에서 제례를 행했다. 사제들 중에는 고결한 사람들도 많았으나 복음서들이 증언하듯이 예수의 시대에는 대부분 타락하고 탐욕스러운 관리였다. 제사장 가이바는 예수를 신성모독으로 몰아 처형시켰다.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사제는 동정심이 부족한 인물로 묘사된다.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되고 40년 뒤 로마인들은 성전을 파괴하고 유대 사제직을 완전히 없애버렸다. 신약성서의 히브리서에서는 그리스도교도의 사제는 천상의 예수 단 하나뿐이라고 말한다. 예수는

마지막 제물이며(“신의 어린 양”) 신과 인간을 맺어주는 사제였다. 낡은 사제 제도와 제사 방식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다. 신약성서에서는 그리스도교 목사들을 '사제'라고 부르지 않고, 그 대신 '주교', '장로', '부제'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그리스도교에서 '모든 신도들의 사제는 신약성서의 몇 구절에 바탕을 두고 있다. 예를 들면 베드로전서 2:9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요한계시록은 신도들을 몇 차례 '신의 사제'라고 지칭한다.
들녘 출판사 제공

향유옥합

하나님 나라 선포와 듣고 행하는 제자의 도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것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가? 그것은 구원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구제가 아닙니다. 구제는 구원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참된 구제는 구원을 통하여 맺어지는 여파인 것입니다. 가을이 오면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반개가 치면, 천둥은 뒤따르고 대기중에 질소가 발생하여 풍년 농사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포는 구원의 선포이며 이 선포는 말씀만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 그 선포를 듣고 행하는 사람은 깨달음과 회개와 치유를 입게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과 혈육 같은 일체가 되는 것입니다(눅 8:21)입니다.

8:21).
하나님 나라의 선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입니다.

선포할 때에 듣는 이는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그는 구원을 받는 복된 영혼입니다.

그렇지 못한 영혼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게 하느니라" 버림받은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는 자기 소리에 눈과 귀가 막여 천둥소리조차 들을 수 없는 멍통인자라 멸망의 길을 재촉할 뿐입니다.

제자의 도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것"(눅 8:21)입니다.

《산마루서신 <http://www.sanletter.net>》은 이 땅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혼들과의 영적인 대화이며, 진실한 만남이며, 사랑의 소통입니다. 참된 삶을 구하는 모든 영혼들과의 진실한 주님 안에서의 대화입니다.

한국도로공사 안전동화 시리즈 | 해와 달 편



위급한 순간의 생명을 안전띠

안전띠 미착용 시 사망률은 4배 이상입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띠,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드러머에게 있어서 스피드란



김현중 교수

드럼을 연주하는 연주자들은 모두 빠른 스피드의 연주를 들으면 흥분합니다. 그 연주자가 너무 멋지고 자기 자신도 또한 그렇게 빠르게 연주하고 싶어 집니다. 이것이 처음 연주자가 되고자 하는 하나의 이유였을 수 있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은 비단 드러머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악기 연주자들의 강한 욕망입니다. 클래식 음악에서도 파가니니나 쇼팽, 리스트의 스피드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을 굳이 마다할 연주자들은 없을 테니까요. 그러므로 현대 대중음악에서 기타리스트나 피아니스트, 드러머, 심지어 베이시스트에게조차도 빠른 연주는 필수적입니다. 멜로디나 화성적인 면을 다루지 않는 드럼에서는 특히 강한 파워와 스피드가 더욱 강조되는 덕목입니다만, 누구나 빠르게 연주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빠른 연주를 위한 연습을 게을리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빠르게 연주하는 것을 목표로 삼지도 말고 게을리하지도 말라'는 얘기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돈도 벌고, 명예도 소중히 여기며, 학문에도 정진하고, 자신의 직업에서도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이 맞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다시 말하면 '최상의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드러머에게 있어서 스피드는 갖추어야 할 덕목이며

추구해야 할 연습과제이지만 최상의 가치는 아니라는 점을 항상 마음속에 품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사는 것이 왜 중요한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날 브라질의 리우에서 올림픽 경기가 있었을 때였습니다. 올림픽 경기 중 스피드의 꽃은 역시 남자 100m 경기일 것입니다. 이 올림픽 경기에서 100m 기록은 '우사인 볼트'라는 자메이카의 선수가 오랜 기간 그 왕좌를 지키고 있습니다. 올림픽 100m 경기에서 우사인 볼트보다 늦은 기록을 가진 선수가 우사인 볼트를 제치고 우승하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 경기가 가장 빠른 기록을 최상의 가치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약물이나 기타 부정행위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서 말입니다.) 스포츠 경기는 기록이자 점수이고, 남보다 앞서는 사람이 승리하며 또 그 승리를 축하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긴 사람을 축하해 줘야 할까요? 그것은 서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노력해 왔고 그 결과가 올바르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능력보다 상대방의 경기 능력이 우수할 때, 우리는 그 경기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자신도 더욱 노력하여 다음번 경기에서는 그 사람을 이기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존재하고 있어서 (내가 사랑하는) 그 경기에서 더욱 노력할 수 있게, 즉 나의 능력을 한 단계 더 높게 만들도록 해주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이상적인 얘기

라 벌써 실망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실망하는 그 얘기가 진리가 아닙니까?) 만약에 내가, 나를 이긴 사람을 진정으로 축하해 주지 않으면 다음번에 내가 그 사람을 이겼을 때 그 사람의 축하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축하해주려 해도 내 마음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도 나와 같은 마음일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현대에 올림픽 정신이 사라졌다고, 스포츠 정신이 훼손되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패배를 역을 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 경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승리로 인한 돈과 명예가 한순간에 사라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며, 좀 심하면 상대방의 반칙이나 정정당당하지 못한 태도에 악이 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의 인생에서는 돈과 명예, 권력, 학문, 예술에 대한 사랑도 최상의 가치가 될 수 없습니다. 위의 모든 가치를 무가치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최상의 가치'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열심히 공부하고 돈을 벌기 위해 직장에서 열심히 노력해야 하며 학문과 예술을 사랑하고 연마해야 하는 것이 좋지만, 그것에 최상의 가치를 두지는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보통 '전체적인 뜻에는 동의하면서도 현실에서 어디까지가 사랑하고 연마하는 일이며 어디까지가 최상의 가치를 두는 것인지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와 같은

무대에서 먼저 연주를 하는 드러머가 나보다 빠르게 연주하는 능력을 갖춘 자라면, 우리 대부분은 다음 무대에서 주눅이 들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피드라는 가치를 존중하고 그 능력을 연마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노력한 그 연주자에게 진정한 축하를 해 줄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내가 가진 연주 능력의 또 다른 가치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려 하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스피드가 최상의 가치가 아니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사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앞 순서 연주자의 연주에 주눅이 들면서도 그 사람을 존경하며, 약해진 마음을 다잡아 자신의 음악을 실행하는 용기가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음악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며,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최상의 가치가 아니라 음악을 최상의 가치로 생각하는 뮤지션의 태도일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스포츠 경기와 음악이 (겉정적으로) 다른 것은, 100m 경기에서는 스피드가 최상의 가치가 되고 그 하나의 가치를 위해 모든 선수가 경쟁하며 단 한 명의 우승자만을 가리지만, 음악은 앞 연주가 최고로 좋다고 생각되어도 다음 연주를 들으며 이것도 최고로 좋은 연주라는 생각이 다시 든다는 점입니다. 또 뒤이은 그다음, 그다음의 연주도 또 마음속 최고의 연주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당신은 음악을 최상의 가치로 생각하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흑 스피드를 최상

의 가치로 두고 계신 건 아닌지요? 앞의 연주자가 나보다 더 나은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완전히 좌절하거나 자신의 음악을 연주할 기분이 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음악의 가치를 너무 편협하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음악의 수많은 가치 중 하나만을 고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의 잣대를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가치를 모두 다 추구할 수는 있지만, 또 추구하는 것이 옳지만 그중 하나를 자신의 최상의 가치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뮤지션으로서 자신의 음악을 대하는 가치관이 될 것입니다. 어떤 초보 뮤지션에게는 그 음악에 관한 가치관이 스피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음악을 사랑하는 과정에서 점점 다변화하여 다른 가치관들을 많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긴 이야기를 할 수 없으므로 이 문제를 깊은 논점으로 전개하기는 곤란하여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음악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희망을 주고 있는가? 우리의 음악이 슬픈 음악이라도 그 슬픔의 표현을 통해 슬픔을 극복할 힘을 주는가? 아니면 더욱더 그 슬픔에서 헤어 나오지 못할 절망으로 가게 하는가? 우리가 표현하는 기쁨은 자극적인 쾌락인가? 아니면 영원까지는 아닐지라도 시대를 넘어 지속 가능한 환희인가? 그 음악은 한번 듣고 나면 다시는 듣고 싶지 않은 음악인가? 몇 번이라도 다시 듣고 싶은 음악인가? 그 음악은 듣고는 싶으나 음반을 사고 싶을 정도는 아닌가? 아니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 음반을 꼭 사고 싶은가? (음반을 사지 않고 음원이나 스트리밍 서비스를 선호한지 오래되었지만 음반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생긴다면 그것은 그 음악에 대한 강한 사랑의 표시서 긴 이야기를 할 수 없으므로 이 문제를 깊은 논점으로 전개하기는 곤란하여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 김현중 교수

서강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Musicians Institute에서 드럼과 레코딩을 전공하였다. 상명대에서 컴퓨터음악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고, 성균관대학교에서 동양철학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귀국 후 96년 서울재즈아카데미를 처음 만드는데 일조하였으며, 영화 정사, 약속, 미술관 옆 동물원 등의 OST 드럼을 연주하였다. 퓨전밴드 RTZ, 이정선, 한상원&정원영, 이현우 등의 공연 세션을 하였고, 오리엔탈 익스프레스에서 드럼 연주를 하고 있다. 현재 여주대학교 실용음악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는 Rock Drums(2003)에 술)가 있다.

쉬지 말고 찬송 하십시오



김남수 교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16-18)

2010년 안식년 동안 남유럽과 북유럽을 돌아보며 마음에서 지울 수 없었던 것은 '쉬지 않고' 이룩된 전통이었습니다. 그들이 끊임없이 쉬지 않고 쌓아올린 아름다운 삶의 현상이 무척 부러웠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성가족교회(Sagrada Família)'는 천재 건축가 가우디(Antoni Gaudi)의 설계로 1882년에 공사가 시작된, 탁월하고도 독특한 양식의 건축물로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으며

다. 교회의 동서남북에 의미를 부여해 북쪽은 제단, 1921년 완공한 동쪽 문은 예수님의 탄생, 서쪽 문은 고난, 그리고 지금도 건축 중에 있는 남쪽은 예수님의 영광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가우디는 1926년 사망하기까지 44년간 그 교회의 건축을 위해 일생을 바쳤고, 그가 세상을 뜬 지 8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건축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2026년경에 완공될 것이라고 하니 140여 년 동안 쉬지 않고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셈입니다.

제단이 금으로 만들어져 '금 성당'이라고 불리는 세비아(세빌리아) 성당은 이슬람을 물리친 기점으로 이슬람 사원이 있던 자리에 지은 성당으로, 1410년 건축을 시작하고 1511년에 완성 되었으나 무려 101년간 건축되었습니다. 제단과 찬양

대석을 살펴보니 제단은 금으로 만든 여러 성상들과 공예품들로 장식되었고, 117좌석인 찬양대석은 의자마다 다르게 신약과 구약성경의 내용이 조각되어 있었습니다. 의자라기보다 예술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성당의 천장은 가문 대를 이으며 30여 년에 걸쳐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교회를 바라보며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것은 '쉬지 않고, '일생'이라는 것과 '최고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찬양은 인스턴트 음식처럼 손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건축물같이 많은 시간을 들여 정성껏 준비한 찬양일 것입니다. 그런 찬양은 당연히 아름답고 은혜로운 찬양일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께 드리기 위해 '쉬지 않고' 만들어내는 삶의 찬양은 주일 예배에서 활짝 피어날 것입니다. 끊임없이 준비한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많

은 성도에게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 가장 기능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 맘과 정성을 다한 심령의 고백은 은혜로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찬양하고, 쉬지 않고 찬양하고, 범사에 찬양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입을 벌려 찬송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쉬지 않고 끊임없이 집중하는 찬양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외에 저희를 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위로요, 우리 힘이요, 우리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중심에 계시므로 눈물로, 혹은 노래로 우리의 삶을 향기롭게

하며 아름답게 합니다. 예수님 계심에 먹어도 좋았고, 또 굶주려도 슬픔이 없습니다. 남이 나를 칭찬한다 하여 흥이 날 것도 없고, 남이 나를 욕한다 하여 그것이 나를 분하게도 못 합니다. 다만 예수님이 계시어 만사가 은혜요, 기쁨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모든 것이 저주요, 슬픔일 것이니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주님만 계시어 주옵소서, 고생스럽거나 편안하거나 주님만 계시어 주옵소서, 살든지 죽

든지 주님만 제 안에 계시어 주옵소서. 세상과 더불어 웃는 생활보다, 주님과 더불어 우는 생활이 행복합니다. 세상과 더불어 잘 먹는 것보다, 주님과 더불어 굶고 주림이 오히려 영광입니다. 예수님 한 분을 얻어 지는 모든 것을 다 얻었으니, 주님은 저의 모든 것이며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믿음의 형제의 고백처럼 일생을 통해 쉬지 않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 김남수 교수

The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에서 교회음악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침례신학대학교 교회음악과 교수와 신탄진침례교회 음악목사(역임), 한국찬송가공회 이사로서 섬기고 있다. 제45회 신인음악회(조선일보)로 데뷔하여, 21회 동아콩쿠르 입상, 18회 난파음악제 우수상, 18-19회 서울음악제에 연속으로 당선되었으며, 대전광역시로부터 위촉을 받아 국악 관현악과 합창을 위한 "大田詩曲"(2001)을 발표했고, 합창곡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2002)』을 출간했으며, Southern Seminary로부터 "Distinguished Composition Award(2003)"를 받았다.

나랑 가까워서 좋고
 나를 잘 알아서 좋은
 우리동네
 좋은 병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e음" 앱에서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를 확인하세요



(사)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수용자 자녀 당사자 10인 목소리 담은 작품 전시회 개최

수용자 자녀 당사자 10인의 목소리를 담은 작품 전시회 '화양연화 어둠에서 피어나다'가 지난 8일부터 오는 19일까지 2주간 마포구 상수동 소재 극동갤러리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아동복지단체인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의 '청년 당사자 자문단'이 주최한 것으로, 수용자 자녀의 인권 옹호를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이번 전시에는 위기를 겪은 수용자 자녀로서 미성년 시기를 보낸 10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이들은 현재 성년이 되어 세움 청년 당사자자문단으로 활동하며

수용자 자녀에 대한 인식개선 캠페인을 수행했다. 2023년 3월부터 1년 가까이 전시를 준비해온 그들은 전시를 통해 자신들의 이야기와 목소리를 다양한 형태의 작품으로 선보인다. 전시회를 관람하는 이들은 수용자 자녀들의 성장 과정과 그들의 이야기를 글, 그림, 사진, 영상, 음악 등으로 만날 수 있다.

청년당사자 육공이 작가는 "당사자인 저는 수용자 자녀에 대해 숨기고 살아왔다"며 "이 전시에 참여하는 당사자 자문단들이 용기를 가지고 전시회를 한다. 여러분이 이 전시회를 통해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그리고 청년이 된 10인의 작가들은 수용자 자녀 또한 당신과 동일한 한 사람으로 귀중하고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그들이 온전히 한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번 전시를 기획했음을 밝혔다.

이번 전시는 수용자 자녀들이 세상의 편견과 낙인을 벗어나 아동으로서 마땅한 권리를 누리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하



수용자 자녀 당사자 10인의 작품 사진. ©(사)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고 있다. 이에 관람객들은 작품 관람 뿐만 아니라 '유엔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촉구하는 서명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으며, 관람객들에게 도슨트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포춘쿠키 등 다양한 형태의 기념아이템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세움의 공식 홈페이지(www.wiseum.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지동 기자

갤러리 비움과 채움, 김신성 개인전, '생명의 삶'(Living Life) 개최

시인이자 화가인 김신성 개인전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갤러리 비움과 채움에서 열린다. 김신성 개인전은 지난 3월 31일부터 8월 31일까지 양평에 위치한 갤러리 비움과 채움,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북원이아트홀에서 보엠씨어터 주관으로 진행된다.

이번 전시는 죽음의 문턱을 밟아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하늘소망을 품은 화가의 시선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33점의 화폭에 담았다. 성경 기록을 통해 바울의 선교 여정을

알 수 있듯이, 투병 기간 동안 작가가 머물렀던 국내외 모든 시공간은 글과 그림이 되어 희망과 부활로 피어나는 예술가로서 선교적 삶을 보여 준다.

김신성 개인전은 지난 3월 31일 시작되어 8월 31일까지 양평에 위치한 갤러리 비움과 채움,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북원이아트홀에서 보엠씨어터 주관으로 진행된다.

양평과 경기도 광주는 투병 중 김신성 작가가 창조주 하나님과 교감하며 창작 작업을 위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곳이다. 장지동 기자



김신성 작가의 작품들. ©주최 측 제공

님의 생기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레트로 감성을 세련되게 풀어낸 편곡과 프로듀싱은 "Amazing"에 이어 천재 프로듀서 이기현이 맡아 음악적 완성도를 높였다.

해당 음원은 국내외 해외 각종 음원사이트에서 들을 수 있고 뮤직비디오는 김누림 공식 유튜브 채널 "누리는누림"과 유튜브인 "광수미디어" 채널에서 감상할 수 있다. 장지동 기자

김누림의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능력이"

두 번째 솔로 디지털 싱글 발매



동덕여대 실용음악과를 졸업한, 비틀즈-라이즈업코리아 메인보컬 출신인 찬양시역자 김

누림의 두 번째 솔로 싱글 음원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능력이"가 최근 발매됐다.

올해 1월 12일에 발매된 첫 번째 싱글 "Amazing"을 시작으로 솔로 CCM 아티스트로서도 찬양시역을 하고 있는 김누림의 두 번째 싱글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능력이"는 직접 작사 작곡을 하여 싱

어송라이터로서의 재능도 엿볼 수 있다.

근 몇 년간 개인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어 오던 김누림은 "마른 뼈가 주님의 생기로 살아나 군대가 되는 환상" 말씀을 여러 번 주셔서 그 본문을 묵상하며 만든 곡으로 이 찬양을 통해 마른뼈와 같은 영혼들이 주

방송 편성표 ※ 편성표 일정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간	CTS 기독교TV	Good TV	CGN TV	CBS TV	Cchannel	
오전	5:00	00 CTS 새벽예배 40 힐링송 50 신앙예배	50 생명의 삶 - 데일리리뷰-	00 생명의 삶 20바이블 프로젝트 (신약) 30은누리교회 새벽기도회 생방송	00 TV강단 연동(김주홍) 30 TV강단 성찬(오원호)	40 김병삼 목사의 매일만나 365 (주님은 나의 최고봉)
	6:00	00 새벽을 말씀과 함께-고명진 목사(수원중앙교회) 30 주성민 목사의 주의 길 45 주성민 목사의 주담길	00 365 새벽기도 생방송 2부 30한국교회와 함께 큐티를 보다 40 GOODTV 오늘의 기도 50 GOODTV 뉴스	10 [말씀] 김다위 목사(선한목자교회) 50 [말씀] 화중부 목사(남서울교회)	00 생명의 양식 신나는(이정기) 30 하나님을 기쁘시게 7004	00 생방송 명성교회 새벽기도회 40 사랑의교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7:00	00 CTS 뉴스 20 생명의 말씀-임석순 목사(한국중앙교회) 50 생명의 말씀-신용수 목사(용인비전교회)	10 힐링스토리 20 말씀의 센터 LA새생명비전교회 강준민 목사 50 말씀의 센터 황성교회 김요나 목사	30 [청소년라이프코칭] 내 마음 일기예보 50로잔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사도행전 2024)	30 새예덴의 언약 (소강석)	40 김학필 목사의 믿음의 사람들 50 노변담화
	8:00	20 신앙예배 30 CTS아침찬양 40 백세인생	20 다큐 더 로드 30 힐링송 50 아버지 나의 아버지	00허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말씀] 이종훈 목사(구덕교회)	20 CBS 성서학당 스페셜(신우인)	00 비전메시지 - 하늘비전교회 오영택 목사 30 비전메시지 - 세미한교회 이은상 목사
	9:00	00 다시보는 내가 매일 기쁘게 (한해진 2부) 50 Miracle Moment (2회 지금 이 순간 2)	50 리바이츠 헤리티지	00 CGN 비전특강 40 Q&A 107 소요리문답 50 이스라엘로 (오십소)	10 새롬게하소서	00 선교는 지금 5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
	10:00	00 사장은님은 선교사 50 말씀노트	00 말씀의 센터 수원제일교회 김근영 목사 30 말씀의 센터 여의도침례교회 국면호 목사	20 어메이징 그레이스	00 살롱 살롱 10 더 콜링 40 CBS뉴스	00 힐링토크 회복 플러스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구약
오후	11:00	00 [생방송] CTS대담 한국교회를 논하다 50 [생방송] CTS 뉴스	00 명사들의 명강 30 말씀의 센터 충정교회 육성석 목사	00 [말씀] 이재훈 목사(은누리교회) 40 로잔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사도행전 2024) 50 [청소년라이프코칭] 내 마음 일기예보	00 율포원	00 소문난 성경교실 30 CN 크리스천 월드뉴스 50 말씀의 창 - 청주금천교회 신경민 목사
	12:00	30 생명의 말씀-한별 목사(대치순복음교회)	00 GOODTV 뉴스 20 힐링스토리 30 오병이어교회 금요성령충만집회	10 바이블 프로젝트 (신약) 20 [말씀] 백금산 목사(예수가족교회)	00 TV강단 구세군대한분명 30 TV강단 만리현성결(조준철)	20 말씀의 창 - 대림교회 김명호 목사 50 말씀의 창 - 영안장로교회 양병희 목사
	13:00	00 생명의 말씀-문대일 목사(대구동신교회) 30 신앙예배 40 [워킹온더바이블] 성경의 땅	00 말씀의 센터 영광의교회 조이엘 목사 30 세상을 보는 창 오색오감	00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고 바이블 20 [말씀] 이주연 목사(산마루교회)	00 잘 믿고 잘 사는 법 20 21일간 열방과 함께하는 2023 다니엘 기도회	20 배기기 목사의 생수의 강 30 고품격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 차톡
	14:00	00 [생방송] 콜링가 50 위대한 유산	00 주일예배실황 꿈의교회 김학중 목사	00 허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말씀] 이용조 목사(갈보리교회)	00 말씀의 힘 신일(배오한) 30 새롬게하소서 정유나 수행비서 2부	00 우리 함께 찬양해 40 다시보는 성자가 좋다
	15:00	40 7000마리골 - 스페셜	00 GOODTV 특별간증	00 [말씀] 김용준 목사(열린문장로교회) 40 생명의 삶	20 행복다이어리 30 TV강단 역대(송규의)	00 선교는 지금 50 김학필 목사의 믿음의 사람들
	16:00	30 생명의 말씀	00 말씀의 센터 목길교회 임재호 목사 30 말씀의 센터 송전교회 권준호 목사	00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고 바이블(영문) 20 직분자 제자훈련 (술만한 도끼 한 자루 준비합니다) 40 Q&A 107 소요리문답 50 [말씀] 박관철 목사(남서울은혜교회)	00 CBS 성서학당 (조성욱) 50 CBS 비전특강 박관 목사의 성서적 전언지유	00 내 삶의 행복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17:00	00 정필도 목사의CTS성령집회 50 빛으로 소금으로	00 말씀의 센터 군포성산교회 김지현 목사 30 말씀의 센터 분당성산교회 윤규현 목사	30 [말씀] 정갑신 목사(예수향남교회)	40 CBS 교회소식 50 성서 700 도시여행	00 말씀의 창 - 아산큰빛교회 김성권 목사 30 말씀의 창 - LA새생명비전교회 강준민 목사	
18:00	00 백석의 시간-정중현 총장 (54회 사망자2) 30 주성민 목사의 주의 길 45 주성민 목사의 주담길	00 행복플러스 30 한성위십 50 더 메시지	10 크만추 50 [말씀] 지형은 목사(성락성결교회)	30 TV강단 수일명성(유만석)	00 고품격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 차톡 30 성자가 좋다 - 국내편	
저녁	19:00	00 찰스 스텔러 목사의 주님의 손길 30 생명의 말씀	00 말씀의 센터 군포제일교회 권태진 목사 30 말씀의 센터 강북제일교회 황형택 목사	30 신약의 세계로 오십소	00 TV강단 인천제일(장찬영) 30 TV강단 베다니(곽주환)	00 (오직주님) 명성의 위십
	20:00	00 생명의 말씀-유승대 목사 30 생명의 말씀-윤자복 목사	00 말씀의 센터 거북한빛문정 유정성 목사 30 주일예배실황 지구촌교회 서울	00 생명주간 특별저녁예배 <한결같은 주의 생명>	00 맞나는 교회	00 장중현 목사의 신학은 왜 학문이 아니니까 40 복음강단 - 영동영락교회 고요성 목사
	21:00	00 CTS 뉴스 40 최일도 목사의 인생사진관	30 리바이츠 헤리티지 40 힐링스토리 50 GOODTV 뉴스	00 생명주간 특별저녁예배 <한결같은 주의 생명>	00 CBS 성서학당 (신우인) 50 CBS 뉴스	10 이석 목사의 잃어버린 복음을 찾아서
	22:00	30 CTS 낭만 레코드 워십 코리아	10 오윤교회 금요철야	10 로잔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사도행전 2024) 20 CGN 월드뉴스 40 CGN라이브워십 (다와서 찬양해) - 한성교회-	10 율포원	00 C채널 매거진 굿데이 20 금요성령집회 - 제자광성교회
	23:00	00 윤호균 목사의 CTS 금요철야예배 50 은혜로운 찬송이야기	10 2023 다니엘기도회	00 [권퍼런스] 선교로의 부르심 30 생명의 삶 50 바이블 프로젝트 (신약)	10 CBS 금요철야예배 (새예덴교회)	10 금요철야예배 수영로교회
	24:00	00 콜링가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00 주일예배실황 한소망교회 류영모 목사	00 Living Life 20 한국교회 상담사역 콘퍼런스	00 새롬게하소서 50 신위의마을 예배(김영준)	00 새예덴철야예배 50 김학필 목사의 믿음의 사람들
	1:00	00 하나님의 음성 30 CTS 특집다큐	00 오 자유여	00 2023 KGMLF 40 [말씀] 권혁민 목사(씨드교회)	40 사랑의 말씀 (오정현)	00 비전메시지 - 뉴욕우리교회 조원태 목사 50 리바이츠워십
	2:00	20 힐링스토리 30 CTS찬양의 찬양	00 명실고 인선 제2교회 이경연 목사 30 세상을 깨우는 말씀 훈민복음	20 하용준 목사의 창세기강해(아람어자막)	30 이영훈목사의 말씀과 함께	00 말씀의 창 - 필그림성교회 양준길 목사 3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 40 김병삼 목사의 매일만나 365 (주님은 나의 최고봉)
3:00	00 CTS특선다큐	00 GOODTV 특별간증	00 [Global Sermon] Kyle Idleman's How Are You Feeling? 30 [말씀] 홍민기 목사(라이트하우스무브먼트)	00 새롬게하소서 50 성경꿀팁 이것이 궁금하다	00 선교는 지금 5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	
4:00	00 클래식 생명의 말씀 20 오늘의 양식 (집사의 하나님) 30 생명의 말씀-전대식 목사(서울진주초대교회)	00 은혜와 찬양 20 말씀의 센터 감일교회 차영아 목사 50 힐링송	10 [말씀] 박신용 목사(열반인문누리교회)	00 CBS 성서학당 스페셜 (이문식) 50 CBS 교회소식	00 힐링토크 회복 플러스 50 말씀의 창 -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반응하는 눈
THE RESPONSIVE EYE

2023.12.21-
2024.04.21



V I C T O R
TREASURES FROM BUDAPEST
V A S A R E L Y

주최 가우디움 경향신문 주관 지에이아트 협찬 KOREAN AIR SAMMIS 협력 VASARELY HUNGARIAN CULTURAL CENTER SEOUL 후원 UNIVERSITY OF FINE ARTS, BUDAPEST HUNGARIAN CULTURAL CENTER SEOUL

제작지원 VIBE NAVER Cloud 오거션 힐탑 KIPRA funderful 미디어포스트 NAVER 수사연구소 리케팅